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8월 27일 수요일 (주간) 제 436 호

인도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싹트고 있습니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 인도돕기)

스리랑카에 '조계종 마을'

수재지역 주택 · 학교 · 의료센터 건립 지원

법장 스님 등 대표단 9월초 현지 방문

수해성금 전달 · 양국간 교류 확대 논의

스리랑카에 '조계종 마을'이 세워지고, 이를 계기로 조계종과 스리랑카의 불교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된다.

조계종은 지난 5월 수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의 한 마을을 선정, 마을 복원에 필요한 주택 및 학교, 의료센터 시설 건립 비용을 제공하고 이 마을의 명칭을 '조계종 마을(Korea Jogye Buddhist Village)'로 명명키로 했다고 8월 20일 밝혔다.

조계종과 현대불교 등 교계 언론사는 지난 7월 한 달간 '스리랑카 수재민 돕기 성금모금 캠페인'을 벌여 총 2억3천5백만원의 성금을 모금했으며, 모금액 전액은 '조계종 마을' 건립에 사용된다.

'조계종 마을' 건립 대상지 선정을 위해 조계종은 현재 스리랑카 정부 및 대사관과 협의 중이며, 복원 예상 규모는 100채 가량의 주택과 학교, 의료시설 등 공공기반시설이다. 스리랑카에서는 집 한 채를 짓는데 우리 돈으로 약 1백5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조계종은 이번 수해 마을 복구 지원을 위해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중심으로 한 대표단을 구성해 9월2일부터 6일까지 스리랑카를 방문한다.

대표단은 법장스님 외에 도영(포교원장) 월서(호계원장) 진각(마곡사 주지) 법정(수덕사 주지) 지성(동화사 주지) 종상(불국사 주지) 원정(쌍계사 주지) 명섭(화엄사 주지) 몽산(대흥사 주지) 채공(봉선사 주지 직무대행) 미산(조계종 사회부장) 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 및 교구본사 주지와 동국대 참사랑운동자원봉사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방문에서 법장스님은 스리랑카 대통령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하고 수상 등 정부 인사들과 만나 양국 불교 교류 확대에 대한 조계종의 입장을 전달한다. 또 스리랑카 주요종단 지도자와 만나 불교 교류에 대해 논의한다.

방문단은 이어 수해 피해지역을 둘러본 뒤 '조계종 마을'로 복원되는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조계종과의 교류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불교국가인 스리랑카는 국민의 70% 이상이 불교신자이며, 동남아 불교의 성지로 꼽힐 정도로 찬란한 불교문화를 자랑한다. 지난 5월에는 56년만의 최악의 홍수로 700명 이상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6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반갑습니다" 2003 대구 하계 U-대회가 21일 '하나가 되는 꿈'을 주제로 11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172개국 7천1백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는 북한도 대규모의 선수단을 보내왔다. 사진은 20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북한 선수단이 대구 동변동에 위치한 유니버시아드 선수촌에 입촌하면서 불교관 자원봉사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14면** 대구=박원구 기자

전국 비구니회관 개관

2천6백여평, 교육 · 포교 · 복지사업

7천여 비구니 스님의 숙원사업인 전국비구니회관이 마침내 개관했다.

전국비구니회는 8월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스님, 조계종 원로 지관스님등 1,500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서울 수서구에 위치한 전국비구니회관에서 개관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광우스님은 이 자리에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비구니회관이) 어린이 · 청소년, 여성교화는 물론 수행, 교육, 포교, 복지가 함께 이뤄지는 실천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대지 1천2백40평, 건평 2천5백60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800명 수용가능한 대법당(만불전)과 교육관, 불교문화실,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는 전국 비구니회관은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에 대한 교육, 포교, 복지사업은 물론 청소년, 장애인, 지역민 등을 위한 사회복지 및 문화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8월 19일 개관한 전국비구니회관 전경.

한편, 이날 법회에서 비구니회관 건립에 기여한 공로로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우스님 등 40여명이 공로패 및 감사패를 받았다.

또 중앙승가대학 본각스님은 학술논문자료집 <비구니와 여성불교(전6권)> 등을 출판, 비구니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관련 인터뷰 3면**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국제 간화선센터 건립 추진

조계종, 삼보사찰 중 한곳에 5천평 규모

한국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인 간화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 간화선 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간화선 수행은 불교만이 아닌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이며, 국제적인 문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국제 간화선 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8월 20일 밝혔다.

국제 간화선 센터는 내 · 외국인을 대상으로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립지는 삼보사찰 가운데 한 곳이 될 가능성이 크며, 규모는 건평 5천평으로 계획하고 있다.

조계종은 센터 건립에 24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 예산이 확정될 경우 조계종은 센터 건립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 마련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아시아 교수불자련 추진

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 등 5개국 교수 불자 30명은 8월21일 강원도 인제 백담사에서 열린 제1회 동아시아 교수불자대회(관련기사 8면)에서 '아시아교수불자연합회'를 창립키로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창립추진위' 발기인 모임을 갖고 '창립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창립 준비에 들어갔다.

백담사= 김철우 기자

광주지역 스님들!

무료로 인터넷 배우세요

9월 1일부터 인터넷 · 한글 97 등

불교정보화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후원으로 실시하는 '스님들을 위한 무료 컴퓨터 교육 사업' 제 4차 교육이 광주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교육일정**: 2003년 9월 1일부터 8주간(매주 월~금 오전 10~12시)
- **교육과정**: 윈도우 98, 인터넷 초급과정
- **교육장소**: 광주우체국 정보화 교육실(062-231-8062)
- **수강료**: 무료(교재비 본인부담)
- **신청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광주지사
  지사장 **주용직** 062-375-9986, 016-602-7544
- **모집 인원**: 5명

불교정보화협의회 ·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구:(053)768-8008 광주 전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릉:(033)643-5599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제천:(043)644-4366 경남 서부:(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불자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는 단주. 작은 단주에 전법의 원을 담아 '희망의 단주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불교교육원(이사장 대성) 법우들이 화제다.

부산불교교육원이 희망의 단주 보내기 운동을 발원한 것은 지난 6월, 원주교도소 재소자불자회 회장이 보내온 한 통의 편지 때문이다. 부산불교교육원이 교도소와 구치소에 보시하고 있는 소책자 '날마다 좋은 날'을 읽은 박 모 회장은 "출소자들은 범죄의 유혹 속에서도 단주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다"며 "먼저 출소한 선배들이 폐품을 줍고 막노동을 하면서 번 돈으로 후배들을 위해 단주를 사 보내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소자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단주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사연을 적고 있었다.

'희망의 단주보내기' 운동

단주가 불연(佛緣)의 고리를 놓치지 않게 만드는 길잡이가 된다는 사연을 접한 부산불교교육원 법우들은 곧바로 희망의 단주를 보내기 위한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8월 5일 부산교도소에 300개의 단주를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19일에는 편지를 보내온 원주교도소에 300개의 단주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부산불교교육원은 희망의 단주 보내기 운동과 더불어 부처님 말씀이 담긴 소책자 '날마다 좋은 날' 법보시, 불서 보내기 운동 등을 꾸준히 펼칠 예정이다.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 수는 35곳. 법회를 보는 곳이 27곳, 한 곳의 평균 법회인원이 300명이라고 하니 부산불교교육원 법우들의 발원은 이제 막 봉오리를 맺은 셈이다. '희망의 단주 보내기'가 교도소 포교의 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 '희망'이 되어야 할 때다.

천미희(부산 주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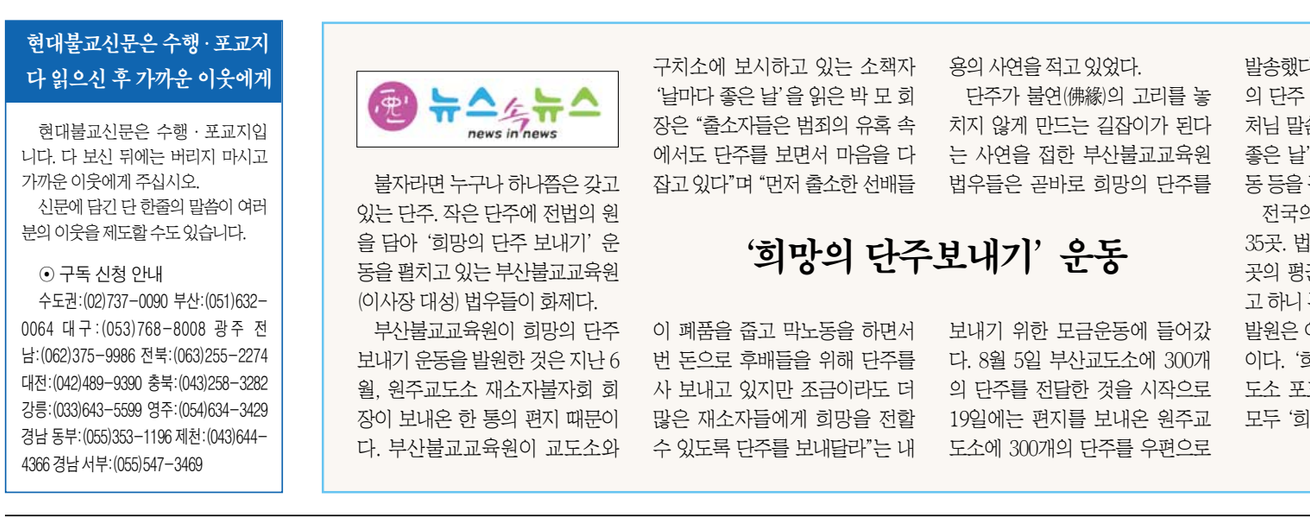
해외불교 페이지 신설

금주부터 격주로 31면에

봉행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 불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상량식





▶한국불교총본산성역화 조감도

21세기 새로운 불교를 열어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상량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수희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불기 2547(2003년) 8월 29일 금요일 3시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신축현장
문 의 : 02)737-3975 ~ 6
불사동참 : ARS 060-700-0482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 장**

사 설

포교수불자대회를 환영하며

세상에는 다양한 계층이 거미줄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살고 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각양각색의 직업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교수도 특별한 직업은 아니다. 이 세상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직업 가운데 하나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각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를 예견하고 현재의 문화를 분석하며 당대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지식인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백담사 만해문학기념관에서 한국교수불자회 주관으로 인도, 태국 등 아시아 지역 5개국에서 온 30여명의 교수불자들이 모여 '동아시아 문화와 불교'라는 제하의 학술대회가 열렸다. 그렇지만 이 대회의 목적은 학술대회에 있었다기 보다는 아시아 지역 문화의 공통분모 중의 하나인 불교를 신앙하는 교수불자들의 모임을 결성하는 것이었다. 불교문화에 대한 공동연구, 현대문명의 제반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상호 친목 도모 등을 통해 불교 중흥에 일조하자는 취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말한다.

불교는 종교적 특성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 그런지 연합의식이 박약한 것이 사실이다. 계층, 직업, 취미 등에 따라 다양한 불교 동아리의 활약이 요구되고 있지만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지식인 그룹의 교류는 더더욱 없었던 일이다. 그렇기에 처음 한국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의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벤트 성격의 행사가 아니라 아시아 전지역의 교수불자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불교적 가치를 확대하는 단체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자 한다.

세속정화는 8재계로

계율의 목적에 대해 대승불교 운동가들은 세 가지로 압축하여 설명한다. 첫째는 악을 방지하는 것이다. 둘째는 선을 장려하는 것이다. 셋째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물론 선악의 판단 기준은 애매하기 짝이 없다. 세월과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남을 괴롭히고 학대하며, 남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한다. 나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더불어 사는 삶의 미덕을 발휘하는 것에 가치의 비중을 두고 있다. 세상 어느 종교와 다른 것이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규범이리라.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불교에서는 국토의 장엄이라 말한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자기를 정화시키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용서, 화해, 관용,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기에 우리는 보살의 삶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보살같이 살아갈 것을 주문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8재계는 재가 생활을 하지만 세속사에 매몰되지 말고, 항상 수행하는 마음가짐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시설된 계율이다. 부처님 재세 당시 8재계는 불교도 일반이 지키는 규범이었다. 그러나 북방의 환경적 특성, 문화적 차이 등으로 거의 사문화 되어 있었다. 그것을 조계종 포교사단에서 지키겠다고 한다. 전 불자가 8재계를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몽을 하겠다고 한다.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들, 계율을 생활화하는 불교도가 되길 염원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문화재청 직제개편 단행

건조물국등 1국3과 보강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문화재 행정의 기능 강화를 위한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문화재청에 '건조물국', '문화재정보과', '근대문화재과' 및 '동산문화재과' 등 1국 3과를, 국립문화연구소에 '건조물연구실'을 신설했다.

이번 직제개편에서 특기할 사항은 '건조물국'에 사적과, 건조물과, 근대문화재과 등 건조물 문화재 중심의 기능을 집중 배치하고 문화재기술과를 문화재정책과로 변경한 부분. 이는 불교문화재가 대부분인 목조 · 석조문화재의 보수정비와 보존관리 체계를 전문화하고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설된 동산문화재과는 동산문화재와 사범단속업무를 분리해 비지정 일반 문화재 조사와 도난 예방을 위한 행정 기능을 강화했다.

오유진 기자

계율지키기 포교사들 나섰다

1100여명 팔재계 수계·실천 대법회 봉행

법전종정 "형식보다 계받는 마음 더 중요"

매달 보름 팀별 포살의식 갖고 잘못 반성

계는 오늘 받고 내일 파하더라도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지계(持戒)보다 수계(受戒)를 더 중요시 해온 재가불자들의 수행과 계율 지키기 풍토조성을 위해 전국의 포교사들이 모범보이기에 나섰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8월17일 합천 해인사 보경당에서 팔재계 수계 · 실천 대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법전 스님이 증명법사로,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이 계사로 참석한 이날 법회는 전국에서 1,100여명의 포교사가 참가해 높은 호응도를 반영했다. 팔재계는 과거 신라시대부터 봉행되어온 팔관회 연등축제에 기원을 둔 불교전통의식의 하나로 오계에 출가수행자의 생활상을 담은 세 가지 이계일재를 더한 것. 재가불자들이 이날 하루 동안 세속의 생활을 버리고 수행자의 삶을 닮아가려 노력하면서 출가인연공덕을 짓는 법회다.

특히, 포교사단에서 이번에 새로 채택한 팔재계는 환경, 통일, 성차별문제 등 현실사회에 걸맞은 다양한 실천덕목 제정을 통해 재가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법회에서 법상에 오른 종정 법전 스님은 중국 율종을 확립한 도선율사 등의 일화를 소개하며 "계를 받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계를 받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설법했다.

이에 앞서 포교사단 김대중 단장은 "포교사들은 수행과 포교라는 두개의 바퀴를 굴려가야 하는 임무를 가졌다"며 "수행에 있어 근본인 계율 지키기를 일상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팔재계를 수지한 포교사들은 한달에 6재일(8,14,15,23,29,30) 동안 계를 지키고, 그 내용을 수행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하여 매년 팔재계 수계법회에서 점검받게 된다. 또, 매월 음력 보름에는 팀별로 포살의식을 가진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범종단환경연대 보류

종단협, "성격상 부적합"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8월2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범종단 환경연대기구 설립안을 "종단협 성격상 맞지 않는다"며 보류했다. 기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방법과 절차상 종단협 산하기구로 둘 수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대신 각 종단 실무부서 관계자들이 모여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자고 결의, 여지를 남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문화관광부 종무실 통폐합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천태종의 개성 영통사 복원의 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재논의토록 했다.

박봉영 기자



◇조계종 정책자문위원회가 21일 타워호텔에서 창립식을 가졌다.

조계종 정책자문위원회 발족

스님 5명 등 21명으로 구성…활동 착수

조계종의 대 정부정책을 다룰 정책자문위원회(가칭)가 8월21일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책자문위원은 학담(조계종 중앙종회의원) · 도법(실상사 주지) · 일면(전 조계종 교육원장) · 법등(조계종 중앙종회의원) · 종상(불국사 주지) 스님 등 조계종 스님 5명과 복지 · 환경 등 16개 분야 전 · 현직 관료 각 1인씩 모두 2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법조분야 안문태(변호사)위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총무원장 직속 상설기구인 정책자문위원회는 △종단 대정부 정책 결정 △종단 대정부 현안문제 조정 · 교섭 · 위임 활동 △대정부 정책과제 연구 및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이동혁 기자

동국대, 불교계 추천전형 확대

사범·예술·문과대 제외 전 단과대학으로

불교계 추천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문이 넓어졌다.

동국대는 2004학년도 2학기 수시 모집요강에서 서울 캠퍼스의 경우 불교계 추천 전형을 사범 · 예술 · 문과 대학을 제외한 전 단과대학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교학부, 수학과, 통계학과, 법학과, 사회과학부, 경영학부, 생명자원과학부, 전자공학과, 생명 · 화학공학과, 컴퓨터 · 멀티미디어공학부에서 78명을 불교계 추천 전형으로 뽑는다.

사찰에서 봉사 · 포교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조계종 사찰(포교당 포함) 주지 스님이나 종립고 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어야 하고, 올 2월 졸업한 재수생도 지원 가능하다. 9월 1일부터 8일까지 홈페이지(www.dongguk.edu)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받는다.

한편, 위덕대는 고교 재학 중 불교포교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었던 학생으로 학교장 및 불교계 지도자(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종단)의 추천을 받았거나 각 종단의 성직자와 종무행정에 근무하고 있는 이를 대상으로 불교문화학부에서 15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9월1일부터 19일까지이다.

권형진 · 박봉영 기자

고침 435호 6면 '심장병 어린이돕기' 기사에서 혜광스님을 태광스님으로, 10면 '학위 수여식 논문' 기사 중 2003년 후기를 2002년 후기로 바로 잡습니다. 또 18면 '연악산 토굴서…' 기사 가운데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基)'을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으로 고칩니다.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되어 주역 • 풍수지리 • 사주명리 • 관상학과 유 • 불 • 선의 심오한 사상을 알기 쉽게 실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배포하는 국내 유일의 동양학 전문지로 99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훌륭한 잡지 입니다.

월간역학에서는 2002년 4월부터 역학전문학원인 월간역학교육원과 인터넷 동영상 역학 학원인 월간역학 원격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학원을 졸업한 분에게는 수료증과 자격증을 수여하며 개업시 월간역학을 통해 적극 홍보해 드립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www.kbs.cc)를 듣는 분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확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7만원)

역학(사주) 수강생 모집

초급	주말(토)반 (9월2일개강)	14:00~17:00	월15만원
	월요반 (9월개강예정)	18:00~21:00	
고급	수요일 (9월3일개강)	19:00~21:00	월10만원
동변반	수요일 (한재경회중)	18:00~21:00	월15만원

※사주를 배우고도 감정에 자신없는 분을 위해 확실한 교육
※본 교육원의 수강생은 풍수지리(금낭경)강의(매주 금 18:00~20:00)를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명당탐지기 관룡자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관룡자로 당신이
직접 명당을 찾으세요.



창간 13주년 기념 사은행사
월간역학

관룡자란?
심룡척이라고도 불리우며, 이미 수천년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잡거나 황제의 묘터를 잡을 때,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은밀히 사용되어오던 기구입니다.
「월간역학」을 발행하는 진산실업(주)에서 완벽하게 재현에 성공하여 국내에 공급함은 물론 해외에 시험 수출하였습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 교회 등 건물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감정할 때, 산소나 납골당, 공원묘지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자리를 감정할 때 관룡자를 사용하면 명당에서만 발산되는 특별한 지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혈(穴)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좌향(방향)까지 잡을 수 있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의 교수, 사업가, 전문 경영인, 법률가, 풍수지리사 등 400여명이 활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관룡자는?
1990년 7월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진산실업(주)에서만 생산 공급합니다. 조계사, 해인사, 수덕사, 상원사, 월정사 등 오랜동안 번성해오는 모든 사찰들의 대웅전 중앙과 서울 명동성당,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천도교대교당 등 종교단체의 건물 중앙, 세종대왕릉, 남연군 묘와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여러 문중의 묘, 일본 동경의 황거(皇居)와 오사카 성 등의 문화재, 중국 북경의 자금성을 비롯한 황제들의 능, 대만 타이베이 중정기념당(장개석 동상) 등 세계적인 유적과 시설물에서는 틀림없이 관룡자가 작동됩니다. 또한 아직 찾아내지 못한 명당자리도 국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교육장을 역임하신 김모선생께서 관룡자가 작동되는 지점에 은행나무 묘목을 이식하였는데, 수령 2년생인 나무들에서 호두알 굵기의 은행 열매가 50~70여 개씩 열렸습니다. 김선생께서는 이것을 보고 명당의 지기를 실감했다고 합니다.

원래 관룡자는 88만원 입니다만, 2003년 7월로 월간역학 창간 13주년을 맞아 130분께만 특별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관룡자(88만원)+월간역학 1년분 (105,600)=985,600원을 80만원으로 할인해드립니다.

▣ 구입방법 : 수협 227-01-002756, 예금주: 진산실업(주)
80만원 입금하신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자세한 사용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리며, 앞으로 1년간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
※신용카드 소지하신 분 12개월까지 할부가능. 기업체에서 구입시 세금 계산서 발행. 구입 후 반품을 원하시면 3개월 이내 언제든지 즉시 환불해드립니다.
▣ 월간역학 1년분 구독료는 105,600원 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9만원으로 할인 + 수맥탐지봉 1세트 무료 증정.
▣ 월간역학 과월호(93년이후)를 1년분(12권)을 7만5천원에 판매합니다.

풍수지리 답산 : 8월30일(토), 장소 : 경기도 용인(와우정사, 전직대통령선친묘, 정몽주묘), 참가비 : 3만원(교통,중식비포함)
입금계좌 : 수협, 227-01-002763(진산실업)

(02)2264-0258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청옥빌라트 101호

www. kbs. cc

북한산 도로·문화재청 승격 등 불교계 현안풀기

조계종·불자의원들 공조 분위기

북한산 관통도로 백지화 및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 등 불교계 현안 풀기에 조계종과 불자 국회의원들 간의 '공조' 분위기가 조성됐다.

조계종은 민주당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연등회' 의원들을 초청, 8월 20일 코리아나호텔 일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회 이슈, 정책 및 제도, 국고지원 등 세 분야의 불교계 현안과 숙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연등회 의원들은 조계종의 요청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이들 현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중앙종회의장 지하스님을 비롯해 성관(총무부장)·현고(기획실장) 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과 김기재(연등회 회장)·김근태·추미애·박주선·김태홍·함승희 의원이 참석했다.

조계종은 이날 간담회에 이어 26일에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나라당 불자의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조계종이 협조를 요청한 사안은 모두 9가지다. 우선 '사회 분야'의 요청 사항인 북한산 관통도로 폐지 및 친환경 노선 채택과 관련해 법장스님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한국 종교계를 대표하는 7대 종단도 불교계와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국무총리실은 객관성과 중립성, 조정능력에 우려가 있는 만큼 대통령이 해결해야 하며 불자의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산 문제 친환경 노선 채택 지원
불교문화재 종단환수 위한 정책 필요"

'정책 및 제도' 분야에서는 △문화관광부 종무실 통폐합 반대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국공립 박물관 소장 종단 소유 불교문화재의 불교계 이관 등 네 가지 사안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이 가운데 국공립 박물관 소장 불교문화재의 이관과 관련해 조계종은 "현재 건립중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에 불교전문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어 전국 국공립 박물관에 분산 보관되고 있는 불교 문화재를 불교가 보관할 수 있게 됐다"며 "불교 문화재가 원래 소유자인 종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국공립 박물관에 분산 보관돼 있는 불교 문화재는 국보 4점, 보물 12점을 포함해 총 2,121점이다.

'국고 지원' 분야에는 △종단 역점 추진사업 △전통사찰 및 문화재 △남북교류 △전통불교문화 등 4개 항목에 10개 사업이 포함됐다. 조계종은 이들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종단의 자부담 외에 국비와 지방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제시한 '종단 역점 추진사업'의 세부 항목은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교구본사별 실비노인 요양시설 △한국불교국제간화선센터 건립이다.

특히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 조계종은 "노인복지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불교계와 정부간의 공동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통사찰 및 문화재' 관련 항목에는 △전통사찰 보존 △문화재 보수·정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이, '남북교류' 관련 항목에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개성지역 문화재 조사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전통불교문화 보급' 항목에는 △전통사찰 관광안내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이 들어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법장 스님 종책수행 한계도달' 위기감
"총무원장에 힘실어 주자" 각 계파 통합

조계종 중앙종회 구도 재편될 듯

현 조계종 중앙종회 각 계파 간 구도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재편 움직임은 단순한 계파 간 통합이 아닌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지지하는 세력의 '결집'이라는 점에서 향후 종단 정치 및 중앙종회 구도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종회 내 최대 계파이자 친 법장스님 계열인 원융회와 법장스님을 총무원장에 당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일여회 및 무소속 종회의원 대표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통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계파에 참여하는 인원은 원융회 23명, 일여회 9명 전원과 무소속 3~5명 등 모두 35~38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금강회 소속 종회의원 1~2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통합 계파 측은 최소 36~40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 계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비구니 종회의원 10명 중 절반이 통합 계파에 동조할 것으로 보여, 결국 통합 계파 인원은 종회 내 과반수(41명)를 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 격인 보림회의 일부 종회의원도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예상보다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같은 가능성은 지난 18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법장스님이 마련한 종회의원 초청 만찬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이날 만찬에 참석한 종회의원은 모두 52명. 보림회 종회의원이 일부 참석하기는 했지만 예상보다 호응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 계파들이 통합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최근 들어 법장스님이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시 말해 종회가 힘을 실어주지 못함으로써 법장스님이 소신있는 종책을 펴는 데 한계에 도달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통합 논의에는 법장스님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멸빈자 사면안을 부결시키는 등 적지 않은 상처를 입혔던 반대 계파의 벽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종단 운영 주도권 확보는 절실할 수밖에 없다.

통합 추진 계파들은 각 계파가 일정한 지분을 갖고 그 지분에 따라 방향을 결정하는 '계파간 통합'이 아닌 지분과 관계없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의 '세력 결집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원융회, 일여회, 무소속 종회의원들은 조만간 '통합'을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총무원장 힘 실어주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법장스님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확실한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종단 운영에 임할 수 있게 돼, 종책 실현 및 종단 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명우 기자


전통한정식 목 정
정갈하고 담백한 전통한식으로
스님과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예약전화 : 02)2269-7155(주차장완비)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6번출구 (인쇄정보센터빌딩 지하) 금강심 합장 배례

논문모음 전6권, 2,500건에 달하는 신문기사모음 전6권, 모두 합해 4,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비구니자료집이 발간됐다. 한국비구니에 대한 자료를 모은 총서 〈비구니와 여성불교(전6권)〉, 〈신문기사로 본 근현대 비구니자료집(전6권)〉을 펴낸 중앙승가대 한국비구니연구소(이하 비구니연구소) 소장 본각스님을 만났다.


◇본각스님(오른쪽에서 세번째)이 비구니연구소에서 학인스님들과 함께 자료 정리를 하고 있다.

인터뷰 **비구니총서 발간한 본각 스님**



▲책을 발간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1999년, 대한매일신문사에서 〈여성종교지도자명감〉 편찬을 위해 당시 승가대학 비구니 수행관장이었던 저에게 불교계 인사의 원고정리를 부탁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각 종교의 지도자를 수록하는 명감에 불교계 인사만이 빠질까 염려돼 맡게 된 일입니다. 명감을 작성하려면 먼저 인선(人選)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자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비구니에 관련된 자료라면 뭐든지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처음엔 1년이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이더군요. 결국 연구소를 거쳐 간 40명을 비롯해 현재 활동 중인 18명의 학인스님이 4년간의 방학을 고스란히 반납하며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학인스님들의 고생이 컸어요. 신문자료를 모을 때는 신문특유의 냄새를 견뎌야 했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전국 어디라도 찾아갔습니다. 정리한 자료라도 순서가 바뀌면 꼼짝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고요. 특히 교양논문('비구니와 여성불교' 4, 5권)을 수집하기 위해 한국에서 간행된 학술지는 물론이고 교양지에 게재된 기고문까지 찾아내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비구니 관련 분야가 어떻게 학문이 될 수 있냐는 비난 섞인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때마다 '비구니분야는 학문이 아니지만 자료를 모으고 체계화 시키면 학문이 된다'는 말로 한국비구니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했지요."

▲이번 총서발간으로 지난 8월 19일, 전국비구니회관 개관법회 때 '비구니회장 감사패'를 받았는데 소감은.

"부끄럽습니다. 우리 학인스님들을 대표해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이번 총서에 포함돼지 않은 자료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고문서 자료들을 따로 빼 놓았습니다. 삼국유사, 이조실록 등 사료에서 선별한 고문서 자료들을 보완해 3~4년 이내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 학인스님들이 전국 각지의 사찰을 직접 방문해 수백 개의 테이프에 담은 비구니 스님들의 녹취를 바탕으로 비구니 큰스님들의 어록, 발자취를 담은 '행장'을 출판할 계획입니다. 행장 작업은 가능하다면 내년 6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사키야디타(세계여성불자대회) 전까지 끝마치려 합니다. 사실 외국학계 등 외부에서 한국비구니에 대한 자료를 끊임없이 요청해 왔지만 그 때마다 1600년 역사, 7천명 비구니 승단을 자랑하는 한국불교에서 마땅히 내놓을 자료가 없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학인 스님 58명 방학 반납 4년동안 작업
비구니 큰스님 어록·행장 내년 6월전 출간

▲이 책을 보게 될 여성 불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국불교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는 재가불자와 비구니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여성불자 모두가 좋은 도반으로서 열악한 세계 여성불교의 교량역할을 하는 주체가 되길 바랍니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유·리·거·울·은·내·몸·을·비·춰·주·고
종·이·거·울·은·내·마·음·을·비·춰·준·다

"〈종이거울자주보기〉 운동을 시작하며"

《종이거울자주보기》는 우리국민 모두가 한 달에 책 한 권 이상 읽기를 목표로 정한 새로운 범국민 독서운동입니다.
국민 각자의 책읽기를 통해 우리나라가 정신적으로도 선진국이 되고 모범국가가 되어 인류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운동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인간의 성숙 없이는 그 어떠한 인류행복이나 평화도 기대할 수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깨닫고,
오직 개개인의 자각을 통한 성숙만이 인류의 희망이고 행복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믿게 된 때문입니다.
이에, 우선 우리 전 국민의 책읽기로 국민각자의 자각과 성숙을 이루고자 〈종이거울자주보기〉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글을 대하는 분들께서는 저희들의 이 뜻이 안으로는 자신을 위하고 크게는 나라와 인류를 위하는 일임을 생각하시어,
흔쾌히 동참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7월 17일 《종이거울자주보기》운동

●공동대표 / 조홍식 이시우 황명숙

●지도위원 / 조홍식(성균관대명예교수) 박재동(에니메이션 감독) 박성근(낙농업) 황보상(의사) 김재영(동방대교수) 이근후(의사) 정웅표(서예가) 김영태(동국대명예교수) 박범훈(작곡가) 윤용숙(여성문제연구회장) 안장헌(사진작가) 방상복(신부) 이재운(소설가) 송영식(변호사) 이택주(한택식물원장) 이시우(前 서울대교수) 신희섭(KIST학습기억현상연구단장) 김숙자(주부) 김기철(도예가) 강대철(조각가) 이호신(화가) 김성배(미,연방정부공무원) 신송심(주부) 이일훈(건축사) 김세용(도예가) 김영진(변호사) 임현담(히말라야순례자) 안상수(홍익대교수) 박광서(서강대교수) 박성배(미,뉴욕주립대교수) 안숙선(판소리명창) 이각범(한국정보통신대교수) 유재근(연심회주) 한승조(고려대명예교수) 서혜경(전주대교수) 민희식(한양대명예교수) 이인자(경기대교수) 황명숙(한양대명예교수) 손진책(연출가) 박세일(서울대교수) 이중표(전남대교수) -무순-

● 〈종이거울자주보기〉 운동의 회원이 되려면,
· 먼저 〈종이거울자주보기〉운동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매월 회비 10,000원을 냅니다.
(1년, 또는 몇 달 분을 한꺼번에 내셔도 됩니다.)
국민은행 245-01-0039-101(예금주 김인현)
· 때때로 특별회비를 냅니다. 자신이나 집안의 경사 및 기념일을 맞아 희사금을 내시면, 그 돈으로 책을 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분들에게 책을 증정하여 〈종이거울자주보기〉운동을 폭넓게 펼쳐갑니다.

● 〈종이거울자주보기〉 운동의 회원이 되면,
· 회원은 매월 책 한 권 이상 읽습니다.
· 매월 책값(회비)에 관계없이 좋은 책, 한 권씩을 귀댁으로 보냅니다.
(회원은 그 달에 읽을 책을 집에서 받게 됩니다.)
· 〈도서출판종이거울〉에서 발간되는 책마다 회원의 이름을 싣습니다.
· 저자의 출판기념 강연회와 사인회에 초대합니다.
· 지인이나 친지, 또는 특정한 곳에 동종의 책을 10권 이상 구입하여 보낼 경우 특전을 받습니다.
※평소 선물할 일이 있으면 가급적 책으로 하고, 이웃이나 친지들에게도 책 선물을 적극 권합니다.
· 〈도서출판종이거울〉 및 유관기관이 주최·주관하는 문화행사에 초대합니다.
· 책을 구하기 어려운 곳에 자주, 기쁜 마음으로 책을 증정합니다.
· 〈종이거울자주보기〉운동의 홍보위원을 자담합니다.
· 집의 벽 한 면은 책으로 장엄합니다.

연락처 / 〈종이거울자주보기〉운동
전화 031-676-8700 전송 031-676-8700 E-mail dopiansa@kornet.net



덴마크포교당 등 시찰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8월 14~19일까지 유럽 등 해외포교 전진기지 확장을 위해 덴마크 포교당 등지를 시찰했다.

일주문



고려대서 학술발표회

불교학연구회 회장 해주 스님은 9월 6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 서관 132호에서 제19차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02)2260-3128



표본사찰 신도임원 연수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8월 30~31일까지 화성 신흥사 수련원에서 표본사찰 신도임원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02)720-7060



무의탁 노인 초청 잔치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 스님은 8월 24일 불교문화원에서 수원시내 거주 무의탁 노인들을 초청해 잔치를 열었다.



'현대인의 불교' 주제 강연

동국대 정병조 교수는 8월 29일 오후 7시 30분 정토불교대학에서 '현대인의 불교'를 주제로 강연한다. (042)624-6555



신규교직원 연수 · 수계식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 스님은 8월 20~22일 2003년 2학기 신규 교직원(교수 18명, 직원 9명) 연수를 실시하고, 22일 수계식을 가졌다.



법왕정사 서울포교당 개원

양평 법왕정사 주지 청견 스님은 서울 군자동에서 서울 포교당을 마련하고, 9월 21일 개원식을 한다. (031)771-7745



직장인 위한 불교교리강좌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은 9월 3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직장인을 위한 불교교리강좌를 개최한다. (02)732-1206



제5회 경로수련법회 개최

총지종 통리원장 법공 대정사는 8월 28~29일까지 보은 열림원 유스호스텔에서 제5회 경로수련법회를 개최한다. (02)552-1080



선우논강 정리 1집 발간

선우논강 대표 철오 스님은 최근 6, 7회 선우논강 결과물을 정리한 선우논강 1집을 발간했다. (02)3676-4060



기본교리 경전대회 본선

조계사청년회 정우식 회장은 8월 3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기본교리 경전대회 본선을 개최한다. (02)735-3724

"미래불교 이끌 인재 산실로"

불교아카데미 윤천수 이사장



"경영 · 정보교육센터를 불교아카데미 전용 교육시설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미래 불교를 설계하는 사람들의 배움과 나눔의 터전이 되도록 개방하겠습니다."

불교아카데미 윤천수 이사장(56 · 사진)은 8월 22일 개원한 경영 · 정보교육센터를 "미래 불교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의 산실로 거듭 태어나도록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57번지 매트로빌딩 3층에 마련된 경영 · 정보센터는 모든 불교단체와 사찰, NGO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교육장으로 운영된다.

30여평 규모의 경영 · 정보센터는 빔 프로젝터 등 미디어활용 기자재와 최신 노트북 및 무선LAN 등이 설치돼, 공개강좌 및 세미나, 각종 회의 및 명상모임 진행이 가능하다. 센터에서는 스님들을 위한 인터넷 활용법 등 실용/실무능력과 청년지도자 육성을 위한 리더십 개발과정 등 경영/리더십, 직장인을 위한 일터 생활명상 등 문화/교양 등 NGO 지원교육 공개강좌가 열린다.

윤 이사장은 "뜻있는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교계 최초로 미디어 교육 시설을 갖춘 전용교육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한국전통사찰 양식 소개하고 싶어"

스리랑카 팔리불교학 연구소장 티락 교수



"명상센터 구조로 된 사찰 구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한국스님들의 생활 모습이나 스님이 되는 과정이 스리랑카와 유사해 동질감을 느낍니다. 특히 스리랑카에는 없는 목탁이나 범종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인제 백담사에서 열린 제1회 동아시아교수불자대회에 참석한 스리랑카 켈라니아 대학 팔리불교학연구소장 티락 카리야아샴(Tilak Kariyawasam, 60 · 사진) 교수는 한국불교 첫인상을 이렇게 밝히며 "한국의 전통 사찰 양식을 스리랑카에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티락 교수는 특히 스리랑카 수재민 돕기에 나섰던 한국불교계에 감사를 표하며 스리랑카 불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당부했다. "현재 스리랑카에 한국 사찰이 1곳인 반면 한국 교회는 계속 늘고 있다"는 티락 교수는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와 한국 사이에 폭넓은 교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제= 김철우 기자

"불서 읽기는 부처님 마음 찾는 일"

'종이거울 자주보기 운동본부' 조홍식 본부장

"불서 읽기는 부처님 마음을 찾는 일입니다."

7월 22일 경기 안성 도피안사에서 출범한 '종이거울 자주보기 운동본부' 조홍식 본부장(83 · 성균관대 명예교수 · 사진)은 불서 읽기를 강조한다. 불서는 마음을 비추는 '종이거울'과 같기에 한 권의 불서로 내면의 불성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조 본부장은 "다양한 불교 서적을 탐독해야 일상에서 불법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인드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본부장은 불법에 대한 무지로 전통이 왜곡되는 경우를 우려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불자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불서읽기'라는 것이 조 본부장의 말이다.



출범한 지 한 달 여 만에 수백 명의 회원을 확보한 '종이거울 자주보기 운동본부'는 회원들에게 매달 한 권 이상의 불서를 전달해준다.

조 본부장은 "불서읽기 운동을 시작으로 책읽기와 마음닦기 모두 생활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031)676-8700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토론없는 독서 독선에 빠질 우려"

'독서토론사회 실천연대' 김규칠 대표



"독서 없는 토론은 알맹이가 없고, 토론 없는 독서는 독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8월 19일 첫 모임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 '독서토론사회 실천연대' 김규칠 대표(61 · 불교방송 사장 · 사진)는 독서와 토론의 생활화를 강조한다.

"정보와 콘텐츠로 승부하는 현대사회에서 독서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독서를 통해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들어주는 훈련이 돼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 문화가 정착돼야 합니다."

김 대표의 독서에 대한 관심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학교 1학년 시절, 수많은 동 · 서양 고전을 읽어도 사라지지 않는 지적욕구는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을 읽은 뒤 비로소 해소됐다.

김 대표는 "앞으로 서민을 위한 내실 있는 도서사업을 펼칠 것"이라며 "공부방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공간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도서를 기증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02)591-7807, www.booktalk.or.kr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교육생 35%를 불자로 양성"

육군부사관학교 충국사 재건 나선 정행 법사

"호국 충국사가 불자 부사관 양성의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익산 육군부사관학교 충국사 법당 재건축을 이끌어 낸 주지 정행 법사(사진)는 8월 19일 봉행된 법당 기공식 에서 "80년에 사병식당으로 건축돼 99년에 철거하려던 건물을 개 · 보수를 통해 법당으로 사용하고, 2004년부터 육군부사관학교 연간 교육생 1만명 중 35%정도의 부사관을 불자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혁 기자

강원도 횡성서 농촌봉사활동 성료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8월 5일~9일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에서 '사랑 넘치는 환한 세상 만들기' 제2회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모자라는 농촌일손을 돕고, 학생들은 자연의 소중함과 노동의 경건함 등 농촌문화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외국인노동자 불교문화순례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는 8월 17일 경주 불국사에서 '외국인노동자 불교문화순례'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부산 보현의 집 입소자들과 방글라데시 노동자 등 80여명은 불국사와 석굴암 등의 경주 지역 불교문화재를 둘러봤다.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개호복지사과	2년	■주간 30명 ■통신 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각 종단 승려 포교사 · 30세이상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승려학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통신 80명		
	4년	■통신 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4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 30명		

1989. 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종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9. 중국 한의대 본과 34명 합격
2002. 2. 제 11회 졸업생 배출
2002. 9. 중국 한의대 본과 50명 합격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포교사 자격취득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과 2급 자격취득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효장 사법대학 입학 및 편입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8월 30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우편당일 소인 유효)

· 본교 교학과 : TEL 02)511-2026~7 FAX 02)511-2028
인터넷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376-1321, 13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 화 불 교 **삼 화 불 교 대 학**

남경한의과대학

1 남경중의약대학(한의과대학)
2003년 본과생(학사) ■석사 · 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건강진단서(영문)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여권용사진 10매
사 범 대	3학년 편입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한국한의사 시험 2005년3월예정(국회법통과)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중국 중의사 시험 2002년부터 개방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8월 30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문의처
주소: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86-25-632-2539 팩스 : 86-25-532-0825
· 한국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
전화 : 02-511-2026~7 팩스 :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 · 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삼 화 학 원 **삼 화 불 교 대**

日강제연행 한인 희생자 사죄비건립 등 추모행사

강제연행된 뒤 일본에서 강제노동을 하다 희생된 한국인들에게 일본인들이 사죄비를 세우며 추도하는 의식이 열렸다.

8월 22일 천안 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고보댐 강제연행 강제노동 희생자 사죄 추도식 및 납골식 사죄비 제막식'에서 고보댐 강제연행을 조사하는 모임 대표 후꾸마사 야스오는 사죄추도의 시를 통해 "앞으로 강제연행 · 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맹세하고 진심으로 사죄와 추도를 바친다"고 말했다. 고보댐 강제노동 사건은 일제강점기 일본 히로시마현 쥬고꾸 산지에 고보댐을 건설하면서 강제연행된 한국인들이 희생된 것을 말한다. 남동우 기자

법화경 금니사경병풍 등 묘향산 보현사에 기증

법화경 금니사경 병풍 한 점이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북한 사찰로 간다. 40여 년 간 사경불사를 해 온 보명 스님(대구 동불암 주지)은 22일 법화경 금니사경 병풍 한 점과 컨테이너 2박스 분량의 식용유 구입을 위한 대북지원 성금 1천5백만 원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기증했다.

보명 스님은 "말로만 남북통일을 외치지 말고 실천을 해 보자는 마음에서 1자 1념으로 사경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내안의 문제들 말끔히 씻어낸 느낌"

'중생들이 오직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그 소리를 보시고 일체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시니라.'

8월 7일 서울대 · 포항공대 · 이화여대 합동 수련회가 열린 보은 법주사 법당에 앉은 학생들은 얼굴만큼이나 제 각기 다

서울대 · 포항공대 · 이화여대생 법주사서 합동수련대회 가져


◇수련대회에서 학생들이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고 있다.

른 크기의 목탁을 들고 〈관세음보살 보문품〉 경구를 떠올리며 관세음보살 염불에 푹 빠져있었다. 2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법당 문을 나서는 학생들의 얼굴은 한없이 맑고 그윽해 보였다. 그 중에는 소매 자락으로 눈물을 훔치는 남학생들도 있었다.

"내 안에 있던 문제들을 해결한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스님 말씀대로 비우려고 애썼는데 어느 순간 그 생각조차 걷히더니 해결점이 보이더라구요."(정은 · 이대 02)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많이 쉬었지만 머리 속은 오히려 깨끗해진 느낌이 들어요."(정인지 · 서울대 02)

소감을 한 마디씩 던진 학생들은 쉰 목을 축일 새도 없이 수행을 하며 느끼고 생각한 점들을 나누기 위한 담선법회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수련대회는 5박 6일의 일정으로 새벽예불과 관세음보살 정근, 법회, 사시예불, 담선법회, 관세음보살 정근,

예불 · 정근 등 5박6일간 강도높은 체험

저녁예불 등으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

수련대회장 배성우 학생(서울대 00)은 "순간의 즐거움이 아닌 부처님 법을 수행함으로써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모인 만큼 다들 수행에 열심이다"고 설명했다.

세 학교의 합동 수련대회는 이번이 4번째. 서울대 지도법사 자명 스님이 이화여대와 포항공대에 법회를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교류의 물꼬가 터졌다. 하지만 수련대회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든 일의 주체는 학생들이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다.

"깊이 있는 수행을 하고 싶다는 법우들의 요청이 많아 수련대회 일정이 작년보다 하루 늘어났다"는 이화여대 불교학생회 회장 이보라미 학생(02) 말처럼 합동 수련대회 일정 조율 또한 학생들의 몫이다.

새내기로 처음 수련대회에 참가한 홍민선 학생(서울대 03)은 "선배들은 문제점도 해결하고 수행도 열심인데 반해 전 가족들과 친구 생각 등 밖에 일들이 자꾸 떠올라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다"며 "조금 더 많은 자유시간과 개개인에게 맞는 다양한 수행방법이 제시됐으면 좋겠다"고 애교있는 투정을 부렸다.

개강을 코앞에 두고 막바지 방학을 즐기겠다며 해외로 배낭을 메고 떠난 친구, 도서관에서 미리 새 학기를 준비하는 억척이 친구들도 많다. 하지만 부처님 품안에서 자신을 성찰한 시간을 갖은 이들만큼 빛날 수 있을까.

보은=김은경 기자

경남 하동 쌍계사 목조삼세불좌상 및 사보살입상과 축서사 괘불탱(掛佛幀), 신경행 청난공신교서 및 관련문적을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이 지난 20일 보물 제1378호로 지정한 쌍계사 목조삼세불좌상 및 사보살입상은 대웅전에 봉안돼 있는 석가모니불 중심의 삼세불좌상과 일광 · 월광 · 관음 · 세지 보살로 추정되는 네 보살입상이 한 조를 이루는 칠존불 형식이다. 쌍계사 불 · 보살상은 조선시대 17세기 전반 칠존불 형식 불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목조삼세불좌상등 3점 문화재청, 보물지정

보물 제1379호로 지정된 축서사 괘불탱은 정면을 향한 입불상을 화면 전체에 가득 차도록 그리고 광배 주위로 화불과 보살상을 배치한 독존도 형식의 진채(眞彩) 괘불화다. 신경행 청난공신교서 및 관련문적은 선조 29년 이몽학의 난을 토벌하는데 공을 세운 공신이 5명에 불과해 희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문화재청은 수덕사 목조삼세불좌상 일괄 1건을 보물 지정예고 했다.

오유진 기자


◇쌍계사 목조삼세불좌상.


◇쌍계사 사보살입상.


◇축서사 괘불탱.


◇한혜린 학생이 이양배 의정부교도소장으로부터 표창장과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불우 재소자들 위해 써주세요"

한혜린 어린이, 일년간 모은 돈 기탁

천진한 동심(童心)이 재소자들의 가슴을 울렸다.

8월 22일 수원 창룡초등학교 4학년 한혜린(11) 학생이 지난 일년간 모은 용돈과 세뱃돈 일백 만원을 불우 재소자를 돕는데 써달라며 의정부 교도소에 기탁해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한혜린 학생은 평소 지상사 수지포교원(주지 의선) 불우이웃 돕기 단체인 '부처를 닮은 사람들'에서 꾸준히 활동해오며 이웃을 향한 사랑을 키워왔다.

22일 의정부교도소에서 열린 성금 기탁식에서 한혜린 학생은 "어릴 때부터 스님과 교도소 위문을 다녀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이양배 교도소장은 "어른들도 하기 힘든 일을 해 너무 기특하다"며 "성금은 생활이 어려운 재소자들에게 영치금 형식으로 5만원씩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은경 기자

9 · 11테러 2주년 기념 미 환경단체 3보1배

9 · 11테러 2주년을 맞는 다음달 11일 미국 콜로라도주 텔루라이드(Telluride)에서 삼보일배가 진행된다.

삼보일배와 새만금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온 미국의 환경단체 '글로벌 리스펀스(Global Respon se)' 기획국장 파올라팔머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평화와 정의, 환경을 위한 미국 콜로라도주 NGO 대회' 참석자 중 한 사람이 9 · 11테러 2주년을 맞는 다음달 11일 미국 콜로라도주 텔루라이드(Telluride)에서 삼보일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남동우 기자

석 · 박사 553명 배출 동국대, 후기졸업식 거행

동국대학교 2002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이 8월 20일 열렸다.

1천여 명이 참석한 학위 수여식에서 홍기삼 총장은 "졸업 후에도 자기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불교학 관련 박사 2명과 석사 16명을 포함해 박사 66명, 석사 487명, 학사 558명, 불교대학원 38명 등 모두 1천111명이 학위를 받았다.

권형진 기자

경불련의 내홍

목탁소리

남동우 (취재1부 기자)



불교계 최초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대표 정련, 이하 경불련)이 내홍에 휩싸였다.

경불련 단위 사업장 실무자들은 8월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불련이 창립된 지 10여년이 넘었지만 모든 의사 결정은 한 개인의 독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며 "경불련도 어느덧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라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실무자들은 또 경불련의 정체성에 대해 "사회적 약자(외국인 이주노동자, 장애우, 노숙인 등)들의 사회적 권리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백화점식 시민운동과 이름 걸기식 운동은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운영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했지만 실무자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운영위원회가 해산된 뒤 구성된 조직발전위원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정체성에 관해서도 "경불련은 발족할 당시부터 사회단체와 불교단체의 가교역할을 해 왔다"며 "경불련이 표방하고 있는 이념적 정체성 안에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권리 옹호와 지원이 포함돼 있어, 부문 운동은 경불련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 경불련 한 관계자는 "양측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이 문제가 불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것"을 주문했다.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및 시식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백중천도시식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10시 ~ 새벽 3시 대비주 철야기도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 번 멋지게 걸어 보십시오

주[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제 2차 천삼십일기도 회향

지난 2000년 11월 5일부터 시작한 제2차 천삼십일기도가 오는 8월31일 오전10시 조계총림 송광사 율원장이며 부산의 두송종합사회복지관과 두송자활후견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계신 부산 관음사 주지 지현대화상을 모시고 마침내 회향을 맞게 됩니다. 보다 아름다운 회향이 되도록 불자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연꽃나라’·‘래프팅’·‘비욘드 템플’ 등

종단 홈피내 동호회 ‘인기’

‘연꽃 나라’ ‘래프팅’ ‘현직직장인들의 방’ ‘뉴코드(newcode)’ ‘너희가 스타크래프트를 아느냐’ ‘비욘드 템플(beyond temple)’.

천태종과 진각종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커뮤니티 공간에 생겨난 동호회들이다. 일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볼 수 있었던 동호회들이 종단 홈페이지에도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동호회 회원들은 종단 홈페이지 내에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그 속에서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보를 얻고 공통의 화제로 대화를 나눈다. 서로 필요한 자료를 주고 받거나 고민을 공유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간을 벗어나 오프라인 모임으로 발전시키고, 보다 친목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다.

종무 홍보·소속감·결속력 강화

천태종 청년·지역·신도회 등 30개 공간 회원 500명

진각종 동문·팬클럽·취미 등 23분야에 커뮤니티

천태종과 진각종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젊은이들의 소속감과 결속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종단 홈페이지 방문자를 늘려 종단과 종무시책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한 이유다.

이로 인해 커뮤니티는 젊은 불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불교를 접하고 동호회 활동으로 이어가는 새로운 포교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호회마다 100메가바이트의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천태종 커뮤니티(comm.chentae.org)에는 올해 1월 개통한 이후 30여 동호회가 결성돼 5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할 만큼 활발하다. 비회원들의 검색을 포함하면 1천여명이 넘는 불자들이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20여 곳이 천태종 관련 청년·학생·지역·신도회 등의 모임이다.

천태종 사이버 중앙청년회 운영자 김희정 씨는 “동호회 사이트를 통해 중앙청년회와 관련된 행사와 회원 동정은 물론 불교계 소식, 필요한 자료 요청 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회원 뿐만 아니라 비회원들의 활용도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렛츠 고(let’s go)’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진각종은 지난 5월말 개통, 30여 동호회와 150여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진각종 커뮤니티(www.jingak.or.kr/cc)는 게임, 기관·단체, 동문·동창회, 스포츠·레져, 여성, 취미, 진각종, 팬클럽, 컴퓨터·인터넷 등 23개 분야로 나눠 50메가바이트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10메가바이트의 이메일 계정과 일기장, 일정표 등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또 성격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활동도 보장돼 청소년층의 회원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종단과 관련된 젊은 세대에 한정되어 있어 보다 폭넓은 방문자를 유치할 수 있는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진각종 전산국장 경일 정사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는 포교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젊은 세대가 불교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임원개선 등 조직개편

총화종 신도회 재구성

총화종은 종단 신도단체인 전국신도회가 박두규 전 전국신도회장의 유고와 신도회 임원들의 사퇴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교구별 신도회 재구성을 비롯한 신임 임원단 선출 등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무원은 9월말까지 소속 사찰의 신도회에서 2명씩 추천받아 10월초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총회에서는 19개교구별 신도회 창립을 위한 회칙 개정과 회장을 비롯한 신임 임원단 선출, 운영위원회 구성 등이 이뤄진다.

박봉영 기자

종령선출 지연…넉달째 공석

총지종, 추대법규 해석·방법에 이견

총지종이 종령(종정) 선출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총지종은 8월 14일 종령을 추대하기 위한 승단총회를 서울 통리원에서 개최했다. 그러나 종령추대법 법규 해석과 추대방법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종령 추대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전 종령 록정 대종사가 입적한지 4개월여가 지났음에도 종령직이 공석으로 남게 됐다.

이날 논란의 초점은 종령을 선거로 선출해 원의회에서 추대토록 규정된 종령추대법의 조항과 궐위시 10일 이내에 그 후임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선거로 선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다. 이날 총회에서는 종령 추대 방안을 놓고 설전을 벌인 가운데 최종 투표 결과 현행법대로 하되 추대방법만 개정하자는 의견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총지종의 종령 추대는 9월말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종령 추대를 위해서는 종법 개정을 위한 종의회 개최 이후 승단총회와 원의회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는 데다가 9월에는 월초 불공과 추석이 있어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총회를 통해 표출된 종단내 불협화음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박봉영 기자

중랑노인요양원 수탁 진각복지재단

서울 중랑구에 대규모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은 8월 11일 서울시로부터 중랑노인전문요양원 운영을 위탁받았다.

중랑구 망우동 일대 3,543평의 대지에 1,668평 규모로 건립되는 서울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은 물리치료실, 요양실,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안전장치 등 최첨단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갖춘 대규모 노인복지시설이다.

중랑노인요양원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치매·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다.

진각복지재단 장지현 사무처장은 “중랑노인요양원과 다른 시설을 연계하는 사업과 납골당 운영 등 장·단기 노인복지 플랜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혁 기자



법상종 하반기 종도 수련회

법상종은 8월 18~20일 안성 쌍미륵사 수련원에서 하반기 종도 연수 및 수련회를 개최했다. 총무원장 학산스님, 종회의장 도명스님, 사회부장 일공스님, 교육원장 무성스님 등 종단 간부와 종도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는 불교의식 강의, 지역포교와 사찰운영 특강, 종단발전을 위한 세미나 등으로 진행됐다. 회향식에서 총무원장 학산스님은 “종단 발전을 위해 종도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한국불교의 중추 종단으로 거듭나자”고 법문했다.



금강선원 설계·수계법회 봉행

한국불교금강선원은 8월 14~17일 가평 상락향수도원에서 제5회 설계(說戒)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금강선원 총재 활안스님, 한국불교통신대학원 원장 호암스님, 금강선원 이사장 강혜원 법사와 태국 승왕청 부승왕 담와라라자 스님 등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300여명이 비구(니)계, 사미(니)계, 보살승계, 삼귀오계, 법사품계 등의 계를 수지했다.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나란다삼장불학원의 졸업식도 함께 열렸다.

종단소식

천태종 28일 하안거 해제

천태종은 8월 28일 오후 10시 총본산 구인사를 비롯해 전국 사암에서 계미년 하안거를 해제한다. 스님과 재가불자이 함께 결제에 드는 천태종 하안거는 7월 29일부터 한달간 진행됐다.

2천여명의 재가불자들이 동참한 구인사의 해제법회는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과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대화문도회 결성법회

본원종 총무원장 대화스님 문하 제자들이 8월 14일 서울 평창동 총무원에서 대화문도회를 결성했다. 결성법회에서 30여 문도들은 법훈스님(홍천 문암사)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문도간 친목 도모 △기금 조성을 통한 교도소 재소자·군포교 지원 △종단시책 부응 등의 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총무 명진스님(총무원 사회부장)은 “친목 도모는 물론, 승려 본분의 자세로 돌아가 종단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교생 길거리 농구대회

진각종립 위덕대는 8월 31일 대학 농구장에서 사회체육부장배 고교생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한다. 참가 자격은 농구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학교 또는 고교 연합팀에게 주어지며, 팀당 최대 5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입상자에게는 위덕대 사회체육학부 입학전형 우선권이 부여된다.

게시판

행사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9월3일 오전 10시 ‘제8회 타태아기령(낙태아) 천도사경 연합법회’ 49재 입재식을 봉행한다. 서울 상계동 사천왕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회는 입재 후 매주 화요일 1~6재를 거쳐 10월21일 천도재로 회향한다. (02)723-6258

▲자비의 집은 추석을 맞아 9월1일 오전 10시 ‘송편나누기’ 행사를 개최한다. 만들어진 송편은 모두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준다. (02)945-4200

▲보조사상연구원은 8월30일 ‘유식의 수행관’을 주제로 동국대학교 덕암 세미나실에서 제51차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02)733-5315

모집 ▲세계사회복지협의회는 제30회 아·태지역 사회복지대회 본회의 및 심포지엄 학술발표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30분 분량의 영어 발표문을 작성해야하며 1차 마감 8월29일. kncsw@unitel.co.kr로 인터넷 접수만 받는다.(02) 713-4884

▲송파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무의탁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 봉사자를 모집한다. 월 2회. 차량소지자 우대. (02)2203-3677

▲선암사 원효불교대학은 제13기 신입생 및 경전반 신입생을 모집한다. 9월16일 개강하며, 경전반은 9월19일 개강한다. 입학금 3만원, 매월 수강료 2만원. (051)803-7573

구인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은 재가복지담당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 경력은 무관하며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증 소지자면 된다. 준비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1통. 모집인원은 1명이며 이메일(bungcer@hanmail.net)과 우편, 내방, 팩스(033-635-1504)로 접수. 접수마감 8월30일. (033)635-0758

▲노인전문요양시설 연꽃마을 감로당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이상 자격소지자 중 3~5년의 경력자. 준비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이며 우편, 이메일(k900900@empal.com), 팩스(031-676-4877)로 접수한다. 모집인원 여1명. 마감은 충원시. (031)671-3677

이전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8월18일 서울 종로 성보빌딩에서 중구 충정로 1가 58-1번지 청양빌딩 9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23-6258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지장 제일기도도량 도솔천 내원궁 도솔암

1029일 천도재

도솔암은 최근 극락보전을 중창 낙성하고 아미타부처님을 개금해드리는 한편 후불탱화를 새로 모셨습니다. 이 뜻깊은 불사 회향을 선망부모·유주·무주 고혼과 함께 하고자 **1029일 동안 49재를 21번** 지내는 대규모 천도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동참 불자께서는 천도제사를 매주 올리게 되며 기도회향때까지 **총 147회의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을 지켜온 마애불(보물 제1200호)과 지장보살(보물 제 280호)이 보살피시는 도솔암에서 다시 천년을 이어갈 가람으로 중창하고 열리는 ‘1029일 천도재’에 많은 불자들께서 동참하시어 뜻하신바 소망을 성취하고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과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두번째 49재 안내

제 1재	8월 17일	제 2재	8월 24일	제 3재	8월 31일
제 4재	9월 7일	제 5재	9월 14일	제 6재	9월 21일

두번째 49재 – 9월 28일 원명사 묘허큰스님 영가법문

▶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 철야 지장기도**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천도제사** (영가천도 법회 총 147회)

■ 교통안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조계사앞 출발 / ● **매주 일요일** 오전 6시30분 조계사앞 출발

도솔암 전화 063)561-0075 / 팩스 063)561-4080

서 울 017-221-8778(이회장) 02)821-3242,4689(진여회)

부 산 011-855-8741(부산고속관광 박길하), 016-842-4272(유정희) 대 전 011-409-2702(동선관광 이현호)

조계종제24교구본사
선 운 사 **도솔암 주지 지정 합장**



◇ 도솔암 지장보살(보물 제280호)

현대사회 현안 불교적 대안 모색

제1회 東亞 교수불자대회 요약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연기영 • 동국대 법학과)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백담사 만해문학기념관에서 한국 • 스리랑카 • 인도 • 태국 ·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5개국 교수불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동아시아교수 불자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동아시아 문화와 불교'를 주제로 △공동체와 불교 △과학과 불교 △문화와 불교 △사회와 불교 △종교문화와 불교 등 총 5개 분과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각 분과별 발표내용을 분석 • 요약했다.



◇동아시아 5개국 석학들이 21일 강원도 백담사에서 열린 '제1회 동아시아교수 불자대회'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분과별 발표자 및 논문 주제

분과	분과주제	논문제목	발표자
제1분과	공동체와 불교	중국내 탈북자 보호와 불교의 역할	이용중 서울대 교수
		화쟁사상과 분쟁해결	정천구 영산대 교수
		불교경제학 만들기의 가능성	정기문 강원대 교수
		불교와 현대경제윤리	최정달 경상대 교수
제2분과	과학과 불교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불교적 고찰	곽만연 동아대 교수
		녹색불교와 생태환경정의구현	김용환 충북대 교수
		불교의 생명관	이중표 전남대 교수
		불교와 생명윤리	이희재 광주대 교수
		제8식과 유전자의 기억작용	현남규 제주대 교수
제3분과	문화와 불교	일본국 다떼야마시 따이간인의 한글비문 불교경전과 유언비어	장영길 조현춘 경북대 교수
제4분과	사회와 불교	사회와 불교 생명윤리학의 종교윤리적 접근	고수현 금강대 교수
		청소년비행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곽대경 동국대 교수
		노인복지와 불교	김주현 강원대 교수
		정보사회 및 인터넷의 윤리적 문제와 불교윤리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사회문제를 보는 불교적 시각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회정책 평가	황진수 한성대 교수
		물의 위기와 붓다의 가르침	이동한 충북대 명예교수
제5분과	종교문화와 불교	종교문화와 불교 佛儒의 생사관	고영섭 동국대 교수
		미래의 종교문화 동향과 불교	김용표 동국대 교수
		동학과 한말 불교계와의 교섭	박맹수 원광대 교수

기조발표

백경남 / 동국대 교수

21세기 세계의 주요 관심은 세계정치와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동북아로 쏠리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는 세계의 생산과 투자, 금융, 물류, 정보기술, 문화가 모여들고 번영하는 허브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상부구조 열쇠는 문화의 공통기반인 '불교의 자비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동북아의 정체성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한국불교의 역사적인 역할 복원을 의미한다. 그 사상적 바탕은 원효 스님의 화쟁사상에 의한 상호소통과 이해 증진에서 모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동북아 불교인의 평화포럼 개최 △불교문화 교류를 위한 동북아 불교문화콘텐츠 공동개발기구 설치 △동북아 불교네트워크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제1분과 공동체와 불교

문명과 문화, 가치체계가 서로 다른 국제사회에서 전쟁을 회피하고 화해와 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 또는 도덕률이 있어야 한다. 공동체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원효 스님의 화쟁(和諍)사상을 제시할 수 있다. 또 화쟁사상을 미국과 영국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경험주의와 같이 우리나라 대외정책의 사상적 기초로 삼아야 한다.

중국 내 탈북자 보호를 위한 불교의 역할도 중요하다. 포교전문성을 갖춘 단체들의 탈북자 정착지원, 봉사, 후원 등을 통해 포교시장을 개척하는 등 불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공동체와 불교에 대한 논의와 같은 선상에 있다.

제2분과 과학과 불교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과학기술문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윤리문제들이 등장했다. 특히 안락사, 낙태 등 생명 경시풍조에 편승하고 있는 오늘날 윤리적 가치관은 우리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뇌사와 장기이식문제는 불교의 자비와 보시의 윤리로서 가능할 수도 있다. 또 인간복제는 인류 미래에 있어서 더욱 큰 재앙의 업보로 이어질 것이다. 과학은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는 진리 아래 행해질 때 '참 생명'을 위한 과학이 될 수 있다.

생태환경론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현대불교인들 다수가 호응하는 '녹색불교'는 자비의 위계질서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모두 승자로서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제3분과 문화와 불교

한자나 범어로 된 불교 원전들을 오늘날의 언어와 문화로 재해석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조계종은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한다면서 한국인이 읽을 수 있는 <한글금강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태고종 역시 '고대 중국 한자어 음독'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선이 부처님의 마음이라면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있다. 교를 거치지 않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가려는 것은 손가락을 보지 않고 달을 찾는 것과 같이 무모한 짓이다. 우리나라 불교신자들은 한글다운 한글로 번역된 불교 경전을 읽을 권리가 있다. 불교학자들이나 스님들은 한국인들이 읽을 수 있는 '한글다운 한글 경전'을 제시해 줘야 한다.

제4분과 사회와 불교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불교적 시각은 사회과학의 선행 사회문제이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그 한계와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 불교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 이해의 재구성, 장 · 단점 등을 살펴야 한다. 특히 오늘날 한국사회 과학계의 사회문제 담론 속에 불교적 시각이 전무한 현실은 불교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생명복제 등의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생명윤리 문제에서부터, 청소년 비행문제와 또래집단 연구,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터넷 윤리, 북한이탈주민 대책, 문명발달로 인한 수질오염, 물 부족 등에 대해 불교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사상체계와 명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5분과 종교문화와 불교

미래의 종교문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종교의 상업주의와 세속화 현상 심화, 종교인구의 증가, 종교연합주의나 종교간 대화 운동의 활발한 전개, 권위주의적 종교 퇴진과 인본주의적 종교문화 대두 등이다. 미래의 종교문화에서 불교의 역할과 가질 수 있는 기대는 무엇인가? 우선 첨단 과학의 발전을 위한 원리와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들 수 있다. 또 탈현대주의로 대변되는 현대문명 비판이론에 대해 생명과 자연주의적 사상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사상과 언어의 테두리를 벗어나 인간이 근원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인간 해방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불교의 연기사상은 사회의 불평등문제나 환경문제 해결에 원리를 제안할 수 있다.

백담사= 김철우 · 이동혁 기자

왜 간화선인가 실상사서 선우논강

"현행 강원 교육으로는 4년여의 짧은 기간동안 스스로 자신의 수행법을 점검할 수 있을 만큼의 기본적인 불교관 · 수행관을 확립할 수 없어, 간화선 본래의 입각점과 창조성을 되살리기 어렵다."

8월 22일 실상사에서 열린 여덟 번째 선우논강 '왜 간화선인가'에서 원경 스님은 간화선의 문제점을 교육제도의 측면에서 이같이 고찰했다. 간화선 수행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에 맞는 수행풍토를 정립시키기 위한 제8회 선우논강의 내용을 살펴본다.

간화선 뿌리 · 수행법 바른 이해 필요
'禪이 최고, 敎는 천박' 관념 바꿔야



발제 원경 스님 / 송광사 강원 학감

고려시대에 한반도로 전래되어 1천년 가까이 전통을 이어온 간화선은 문화적 경직성과 수행법의 단일성으로 문제를 갖고 있다.

단적인 예로 간화선의 1700공안은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의 선문화(禪文化) 현상이 되어, 경전의 가르침에 앞서는 깨달음의 준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같은 문화적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간화선은 유기체로서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 간화선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 채 무조건 최고로 인식하는 현상은 다른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풍토를 만든다.

간화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첫째, 조계종이 분명 선종이라면 일체 모든 의식이나 수행이 선과 관련되어 일관되게 행해지는 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둘째, 간화선의 뿌리와 수행법 발달사를 바르게 이해한 후 수행에 임해야한다. 이를 위해 기본과목의 한글 교재 보급과 다양한 학림 개설로 수행풍토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셋째, 여타 수행법과의 엄정한 비교연구를 통해 간화선법의 변별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넷째, 선(禪)이 최고이며 교(敎)는 천하다는 고정관념을 바꿔,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동체대비 서원 · 윤리적 실천 일상생활속에 녹아 있어야

논평1 도법 스님 / 실상사 주지

간화선을 우뚝 세우기 위해서는 간화선의 특징과 장점을 명확히 드러냄과 동시에 뼈를 깎는 자기 성찰과 비판이 있어야 한다. 최근 간화선에 대한 비판을 '간화선 흔들기'로 규정하는 일부의 논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간화선 전통의 문제점은 간화선주의의 편협성과 배타성, 교학적 이론에 대한 무지와 왜곡, 간화선 획일주의, 절대주의로 요약된다.

간화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수선납자의 동체대비의 서원과 윤리적 실천이 실제 일상생활에 살아 있어야 한다. 또 간화선이 자유정신과 개방성 · 유연성이라는 불교의 일관된 가르침을 온전히 존중할 때 21C 구원의 수행론으로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간화선修證正宗 수립 시급 선학교육 활성화도 바람직

논평2 월암 스님 / 칠불암 주지

오늘날 선원의 모습을 보면 눈 밝은 선지식의 교시가 아쉽고, 3-40년 동안 수선 안거한 선참 납자는 선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초참자들은 길을 몰라 헤매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간화선 정신과 방법론에 의해 간화선의 수증정종(修證正宗)이 수립되야 한다. 오늘의 간화행자들은 이 시대의 대중이 일상 언어와 보편적 개념으로 최상승의 선지를 설명해야 한다. 또 선강원 · 선림원 등을 설립하여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에도 선 수행에 관한 이론과 실천을 익히는 선학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정리= 오유진 기자

제3기 이혼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가 교육생 모집

이혼의 원인은 작은 견해차부터 여러 가지 심각한 갈등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지만, 평등한 부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이뤄지는 그릇된 대화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긍정적 언어표현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부부간에 인격체로서의 상호존중을 통해 부부정체성을 확인하여 '이혼'이라는 심각한 폐해를 예방을 하고, 또한 가족관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일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에'이혼예방을 위한 전문상담원'교육을 통해 한 개인으로서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체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더불어 가정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책임 있는 전문상담원이 되어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상담원의 교육을 하고저 합니다.

◆ 일 시: 2003년 9월17일(수) ~ 11월 3일 (90시간)
◆ 장 소: 연꽃 교육장 (인사동 사거리) ◆ 인 원: 30명(선착순)
◆ 문 의: 02-738-5586,5568 / 상담소: 02)735-0406~7
◆ 수강료: 12만원(우리은행 : 098-088769-01-501/한국여성불교연합회)
◆ 주 최: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1.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9월 17일	1. 성 • 가정폭력법 해설	9월 18일	3. 가족구도와 가치변화
	2. 가부장 제도와 여성인권		4. 한국 가족의 현주소
2. 아내 학대 발생과 원인 분석			
9월 22일	5. 가정폭력 배경과 원인	9월 27일	8. 부정적 감정 다루기
	6. 가정폭력	9월 30일	9. 부부의 갈등 및 외도, 이혼가정상담
9월 27일	7. 가정폭력 상담의 전반적 이해	10월 2일	10. 여성의식 변화로 이뤄진 가정
3. 현대사회의 변화와 가정 위기			
10월 2일	11. 여성인권과 여성운동	10월 4일	14. 이혼의 실태와 제반문제
10월 10일	12. 현대사회의 변화와 가정문제		15.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
10월 11일	13. 왜! 이혼가정이 늘어나는가!	10월 11일	16. 이혼가정의 자녀생활과 실태
4. 건강한 가족제도 및 치료상담			
10월 18일	19. 건강한 가족제도	10월 13일	17. 정신적 수양을 위한 음악치료
10월 20일	20. 성폭력 상담의 이론과실제		18. 전화상담의 기법과 운영사례
10월 21일	21. 가족문제 상담, 성폭력 상담사례	10월 28일	22. 부부대화법 및 가족치료
5. 가족문제 상담 및 역할연습			
10월 27일	23. 경전에 나타난 상담	11월 1일	26. 가정폭력에 대한 핵심적 기법
10월 31일	24. 상담자의 자질과 역할		27. 가족치료의 통합적 접근
	25. 상담사례를 통한 역할연습	11월 3일	28. 가정폭력 비디오 및 수료식

1.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인정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을 수여함.
2. 본 행복한가정상담소에서 필요시 상담활동(봉사 • 유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

수신토종오가피 5개 신문 히트상품 선정!

소비자들이 먼저 확인한 우수한 품질, 다시한번 인정받았습니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는 다릅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신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농장견학회 및 재배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일간스포츠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한국일보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경향신문 2003 경향히트상품 선정
★ 서울경제신문 2003 서경벤처히트상품 선정
★ 스포츠 굿데이 2003 굿브랜드 대상 선정

※주의 : 저희 수신토종오가피가 유명해지자 원료를 성광수씨로부터 구매해 만들었다고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속지마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 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토종오가피원료는 전량 수신토종오가피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5대 히트상품선정기념. 선착순 고객사은대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02)455-7555

30분 일찍 출근·점심시간 쪼개

인터넷 클릭…불심 달군다

큰스님 동영상 법문 듣고 교계소식 체크
스님 시숍 메일링서비스에 신행상담도

한국소비자보호원 인사총무팀 김종관 과장(37)은 최근 인터넷에서 불교공부를 시작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 일과에 쫓기다보니 법회 참석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그가 즐겨 찾는 곳은 '큰스님 동영상 법문 듣기(www.buddhanews.com)'. 잦은 야근에도 불구,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을 쪼개 자신의 자리에서 사이버 법문은 듣는 것은 물론 근래 돌아가는 교계 소식이며 사이버 신행상담, 스님 시숍에게서 생활법문이 담긴 메일링 서비스까지 받고 있다. 꿈을 꿔도 직장 일로 꿈을 꾼다는 직장인들. 촌각까지 아껴 쓰는 이들의 야무진 '불교공부' 세계로 들어가 본다.



그림 · 김영민

■ '회사에 앉아 불교공부한다' = 직장생활 28년차 현동관 씨(47 · 우리은행 은평구지점장). 그의 출근 시간은 30분이 빠르다. 사이버 상에서 불교를 만나기 위해서다. 그가 처음 찾는 곳은 신행원찰인 서울 화계사 홈페이지. 그날의 스님 법문을 읽고, 감명 깊은 법구를 정리한다. 즐겨찾기로 모아둔 불교계 언론사들의 뉴스를 읽고, 교계 현안도 살펴본다. 그리고는 스님 법문과 자신이 간추린 불교계 소식들을 사내 내부 전산망에 있는 우리은행 불자회(회장 정진호) 게시판에 올린다.

■ 스님 시숍에게 신행점검 받는다= 인터넷 불교 공부의 가장 큰 특징은 쌍방향성. 수십명이 앉아 있는 대중법회나 불교교양대학에서는 남의 눈치 보느라 손을 못 드는 사람도 자유롭게 질문을 게시판에 올리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스님인 시숍이 회원 네티즌에게 생활법문을 담은 메일링을 매일 보내주는 서비스까지 선보이고 있다. 지난 달 18일 사이버 절 '열린절(http://cafe.daum.net/buruna21)'에 가입한 정미자 씨(52 · 경기 양주군청)는 시숍 법현 스님(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이 보내는 메일을 받아보며 신심을 키워가고 있다. 불교에 갓 입문한 정 씨는 이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신행을 점검하고, 사이버 상에서 불교 기초 교리를 배우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풍경소리 대구지부 9월초 창립

지부장 이수찬 씨, 문서포교 효율화

문서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풍경소리가 9월초에 대구지부를 결성한다.

(사)풍경소리(대표이사 혜자)는 지역의 효율적인 문서포교 활동과 종합적인 게시판 관리를 위해 대구 지역에 지부를 창립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구지부 출범은 지난 2001년 부산지부에 이어 두 번째로, 풍경소리의 전국적인 조직망 구축에 발판이 마련된다.

현재 풍경소리는 대구 · 경북지역에 대구지하철 30곳 역사에 60개, 철도 17역사에 33개 등 총 93개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대구지부 결성을 계기로 더욱 늘릴 방침이다. 또 소형 포스터와 엽서 등도 제작, 지하철 및 철도법우회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수찬 풍경소리 대구지부 결성준비위원장(동화사 사무국장)은 "지역 특성에 걸 맞는 포교 방법과 기법을 연구 · 개발해 지역 불교문화 발전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교사불자련 여름수련회 성료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강원도 치악산 자연학습장에서 여름수련회를 열었다.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는 티베트 불교의 슬라이드 강연, 걷기명상, 선상담 연구원장 인경스님의 '청소년 상담기법'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철우 기자

우리 모임에선



봉정암 일대로 성지순례

언론사불자연합회(회장 김진평 · 사진)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간 설악산 봉정암, 오세암 등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오라선원서 정기법회 봉행

제주도지방경찰청 불교동호회(회장 오영기 · 사진)는 23일 제주시 오라동 오라선원에서 주지 재용스님에게 법문을 들었다.



생활참선법 법문 들어

춘천시청 도반회(회장 정상현 · 사진)는 25일 강원도 남산면 검봉산 강선사에서 주지 춘광 스님에게 '생활 참선법'에 대한 법문을 들었다.



9월 6일 '무사고기원법회'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의장 조진규 · 사진)는 9월 6일 서울 봉은사에서 '철도무사고 기원 및 철도사고 희생자 천도법회'를 봉행한다.



경기 자제정사서 자원봉사

서울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우철제 · 사진)는 26일 경기도 불교노인복지시설인 자제정사를 방문해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권역별로 부회장단 등 구성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조홍인 · 사진)는 17일 경북 구미불교회관에서 제5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신임 부총재단과 권역별 부회장단을 구성했다.

우리불자회는요

성북승무사무소 불교법우회



◇성북승무사무소 불교법우회원들이 올 7월 서울 북한산에서 '마음청정 국토청정'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매년 환경법회 … 참회 서원 · 실천 3단계 활동
소외된 곳 지원, 승만부인회 활동도 괄목

철도청 성북승무사무소 불교법우회는 지난 1995년 8월 사무소 개소 3개월 후인 11월 창립했습니다. 불교법우회는 창립 초기부터 활발한 활동들로 신설 사무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일조했고, 회원뿐만 아니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호평 받고 있습니다.

불교법우회는 매월 1회 정기법회에서 <선가귀감>, <초발심자경문> 등의 교재를 가지고 강의 형식의 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강좌 성격의 법회는 회원들이 불교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분기별 사찰순례법회 역시 대부분의 신행단체들이 사찰행사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성북승무사무소 불교법우회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차내에서 영상교육, 찬불가교육, 순례사찰에 대한 소개, 생태 시 낭송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다 알찬 사찰순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법우회는 특히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서 고통 받는 이웃에 대한 자비행 실천을 창립초기부터 벌여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회를 조직해 매월 6명의 소년 · 소녀가장에게 1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매년 10월 노인의 달에는 경로잔치를 열어 어르신들을 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정기적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관 봉사활동, 장애인단체 지원, 소년소녀가장 의료비 지원 등을 해오고 있으며 북한어린이 돕기 성금모금, 노숙인 돕기 성금모금 등의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환경법회는 '참회, 서원, 실천'의 3단계의 체계적인 활동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법우회 회원들의 부인과 구성된 지역 여성불자들로 승만부인회의 활동 또한 빼 놓을 수 없는 자랑입니다. 승만부인회는 <승만경>의 주인공인 승만부인의 열 가지 서원을 실천 할 것을 목표로 승만청규를 제정, 회원들의 신행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북승무사무소 불교법우회의 활동을 측면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간 벌여온 활동들을 소개하면 여러분은 놀라실 겁니다. 매년 꾸준히 열차 안전운행캠페인, 전통등 점등식, 사찰순례법회, 수련회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법우회는 올 여름 8월을 용맹정진의 달로 정하고 무더위를 정진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정진기간 중 매일 108배를 하고, 8월 11~12일에는 하안거 해제일을 맞아 3000배 철야정진을 했습니다. 회향은 8월 23~24 설악산 오세암에서 철야정진으로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정찬영 총무

이 육임서들은 「활인 전문 천역자」 용으로써 당장 활용하여 큰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 모두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

■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본 250만원 : 매 월 한 권씩 중에서 매일 한 장씩 꺼내 그날 각 시간으로 판단하는 활인천역자의 필수 도서! 비싼 만큼 비싼 값을 해내고 있습니다. 주요 인간사 20여가지를 미리 알고 먼저 말할 수 있게 써 놓았습니다.
■ 육임래정비법 휴대용 31만원 : 60갑자 각 순별 10일치 씩 6권으로 나누어 외출 이동시 언제 어디서나 즉시 판단 되도록 한 전문가용! 매우 편리합니다. 단, 선별 판매 합니다.
■ 육임신수비결(비디오 포함) 30만원 : 1년의 운세를 거침없이 밝혀놓은 책! 간단 명료하고, 1년 내내 개개인의 생활을 관장할 수 있는 기법을 비디오에 담아 놓았습니다.
■ 효사육임강의록 上 下 41만원 : 육임사에 이만한 책이 없었습니다. 쉽고, 체계적으로 육임을 완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上권은 공부, 下권은 활용서로 되어 있으며 공익법인 한국 육임학회 교재 이기도 합니다.
■ 육임 비디오 강의 비디오 CD 90만원 : 육임 기초에서 세밀정단까지 일관되게 강의 한 비디오 28개, CD 28개로 되어 편리하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육임학당 제 1기 강의를 담은 것입니다.
■ 육임래정비법 CD 200만원 :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본을 「아라21」과 제휴하여 CD에 담았습니다. 「다음」만 치면 각 시간이 자동으로 뜨게 되어 명쾌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 각일 각시 출생자 운명예언비법 - 선택분만 택일법 - 7만4천원 : 출생 月중 어느날 어느 시간이 좋은가를 60갑자 일 마다 적시해 놓았습니다. 또, 그날 그 시간에 출산하면 어떤 운명이 될 것인가를 명료히 밝혀 놓았습니다. 인연따라 크게 쓰일 것입니다. 「본문 보기」에는 출산 월로 부터 10개월 전으로 거슬러간 어느날 어느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합방」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를 밝혀 놓았습니다.
■ 육임운명판단법 13만원 : 사주가 아닌 육임법으로 일생 운명을 예지 하는 비서입니다.
■ 육임형이상법 15만원 : 방문, 또는 전화한 사람의 시간을 보아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부정 빌미가 들어왔는지, 누구 산소에서 산소탈이 났는지를 알 수 있게 하고, 그 해소법을 밝혀 놓은 기서!
■ 육임세밀정단법 10만원 : 방문시간에 의해 정해지는 천기 응집의 각 국수를 어떻게 이해 하고 판단할것이 나에 대해 설명한 책입니다.
■ 효사육임강의 150만원 :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부설 육임학당 효사숙 강주 효사선생께서 직접 육임 각 법을 강의 합니다. 교재는 「효사육임강의록 上 · 下」권을 드립니다.
■ 육임래정비법 일어판 272円

현재 제6기가 진행중이고, 제7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기운을 따져 결실 유무를 보아 공부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www.한국육임학회.net

▶ 주문전화 02-993-8680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

■ 위 책들은 입금하신 다음날 도착시켜 드립니다. 신뢰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리장엄구 55점 소재 확인

국감자료 소재지 파악 12, 재봉안 7, 도굴 19건 등

학술서 등의 기록은 남아있으나 소재가 분명치 않은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는 55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문헌 기록만 남은 3점, 전란으로 유실된 19점을 제외한 14점의 사리장엄구는 아직 소장처가 확인되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표)소재가 확인된 사리장엄구 목록

문헌기록만 존재 (3건)
제석사지 목탑지 사리구, 대화사탑, 통도사 금강계단사리구

소재확인(12건)
감은사지동삼층석탑 사리구, 광주 동오층석탑내 발견유물, 창녕 술정리 동삼층석탑, 제천 장악리 칠층모전석탑, 대흥사 북미륵암 삼층석탑, 보천사지 삼층석탑, 신천리 삼층석탑, 만복사지 오층석탑, 연곡사 삼층석탑, 삼천사 대지국사탑, 영원사지 부도 및 석실,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생상 복장유물중 사리

재봉안(7건)
동화사 금당암 동탑 사리구, 상원사석탑, 고성 건봉사 사리탑, 금곡사 삼층석탑, 송광사 고봉화상사리탑, 해인사 적광전 앞 삼층석탑, 문경 대승사 사리장치

도굴 유실(19건)
영양 삼지동 모전석탑 사리구, 창림사지 석탑 사리구, 선방사 탑지석, 향성사지 삼층석탑, 정산 서정리 칠층석탑, 성주사지 오층석탑, 성주사지 동삼층석탑, 성주사지 서삼층석탑 사리구, 양산 서록목탑지, 칠곡 기성동 삼층석탑(전법성사), 선산 낙산동 삼층석탑, 예천 삼층석탑, 통도사 남방파탑, 마곡사 오층석탑, 가야산 백암골 고려사지 삼층석탑, 감곡리 오층석탑, 범방리 삼층석탑, 남산동 국사사지기삼탑, 금심사 오층석탑

미확인(14건)
명장리 삼층석탑, 대흥사 응진전 앞 삼층석탑, 경주 남산리 삼층석탑, 거창 모계리 삼층석탑, 부석사 삼층석탑, 의성 관덕동 삼층석탑, 중원 탑평리 칠층석탑, 화장사 지공정혜영조탑, 칠장사 부도, 동악사 석탑재, 여주 창리 삼층석탑, 금장암지 사사자석탑, 전내장사 산내암자 동제사리함, 이이사지 삼층석탑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은 2003년도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소재가 명확치 않았던 사리용구 55점 가운데 대다수 사리장엄구 소장처를 확인했다고 8월 19일 밝혔다. 정 의원의 요청에 따른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사리목록 조사 결과 소재불명의 사리용구 55점은 △문헌기록 등에만 사리구의 존재가 알려지고 실물자료는 전해지지 않는 '익산 제석사지 목탑 사리기' 등 3점 △소장처를 확인한 '연곡사 삼층석탑 사리기' 등 12점과 재봉안 한 것으로 확인된 '상원사 석탑 사리기' 등 7점 △발견당시 유물이 전란 등으로 도난되어 전해지지 않는 '마곡사 오층석탑 사리기' 등 19점 △현재까지 소장처가 확인되지 않는 '의성 관덕동 석탑 사리기' 등 14점으로 파악됐다. (표 참조)



◇건봉사사리탑에서 나온 부처님 진신치아 사리 12과중 종무소에 소장중인 5과.

'관덕동 석탑 사리기' 등 14점은 소장처 파악중

문화재硏 "상당수 일제때 도굴 추정"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현재까지 소장처가 확인되지 않은 14점 가운데 상당수는 일제강점기 도굴된 것으로 추정, 추적이 곤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목재나 사리공(舍利孔) 뚜껑과 같은 발견품의 특징상 복원 시 재사용되었거나 시료 등으로 취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소장처 미확인 사리장엄구 14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재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소재불명 사리장엄구를 찾아야 한다고 문제제기했던 황평우 소장(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은 이번 결과에 대해 "소재가 확인된 19점의 소장처를 밝히고, 미확인 사리장엄구 14점의 소장처를 확인 못한 사유와 조사 과정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화재 조사를 통해 각 기관의 업무 협조와 학술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문화재 조사 · 관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리장엄구는 사리를 담는 사리구와 이를 탑 속에 봉안하는 사리장치를 통틀어 일컫는다. 사리구는 불교 상징물로서 가치있는 문화재다.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기술과 재료로 제작되기 때문에 당시의 공예수준을 보여주며, 명문(銘文)이 있는 경우 연대 고증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불 상(5)

고귀한 단순성

일본 교토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사찰은 고류지(廣隆寺)이다. 조그만 사찰이지만 옛 정취가 그윽한 곳이다. 이 사찰은 신라인으로 일본에 건너간 진씨(秦氏)가 세운 절로서, 일본 국보로 지정된 미륵보살반가상이 유명하다. 이 불상은 우리의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과 쌍둥이처럼 빼어 닮아 항상 우리의 관심사이다. 특히, 이 불상은 핵심적인 요소임을 깨닫게 된다. 단순함은 조금도 가감이 필요 없는 형상과 비례의 완벽함과 관련된다. 머리 위에 간략하게 꾸며진 삼산관(三山冠)은 단순함에서 피어난 고귀한 꽃에 다름이 아니다. 단순함이 아름다움의 차원을 넘어 숭고함에 이르고 있다. 사유는 단순해야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고귀해 보인다는 메시지를 이 불상은 넌지시 알려주고 있다. 독일의 미술사학자 빙켈만(J.J.Winckelmann, 1717-1768)이 그리스 조각의 특징으로 평가한 "고귀한 단순성과 정숙한 위대함"이란 말은 오히려 이 불상을 보면서 떠올려 보았다. '아름답다', '멋있다'라는 찬사가 매우 인간적인 것이라면, '숭고하다', '고귀하다'라는 찬사는 보다 종교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의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는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 불상을 보고 다음과 같은 감상을 남겼다. 그 일부를 옮겨 본다.



◇국보 제83호 금동반가사유상(오른쪽)과 고류지 목조반가사유상(왼쪽) "이 불상은 우리들 인간이 지닌 마음의 영원한 평화의 이상을 진실로 남김없이 최고도로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야스퍼스)

"그것은 지상에 있

日 국보 미륵보살반가상 신라인의 솜씨

칼야스퍼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

학계에서 신라인의 솜씨인지 아니면 백제인의 솜씨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와세다대학에서 이 불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임남수 박사는 사찰 기록과 양식적 분석을 통해 신라인의 조각으로 밝혔다.

수학여행 온 여학생이 이 불상에 반해 감정을 억제지 못하고 그만 껴안다가 손가락을 부러트린 일이 있다. 그 다음날 신문에 크게 소개되어 일본에서 유명해진 일화가 전한다. 필자도 1998년 가을 아침부터 낮까지 이 불상 앞에 놓여 있는 평상에 앉아 넋을 잃고 바라본 경험이 있다. 참으로 매력적인 불상이다.

이 불상을 처음 본 순간 아름다운 미소와 손의 표정에 시선이 간다. 그러나 좀더 오래 보게 되면, 주름진 옷 가운데 피어나는 몸체의 단순함이 그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모든 시간적인 것, 속박을 초월해서 도달한 인간 존재의 가장 청정한, 가장 원만한, 가장 영원한 모습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몇십 년 동안의 철학자로서의 생애 가운데 이만큼 진정으로 인간 실존의 평화스러운 모습을 구현한 예술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불상은 우리들 인간이 지닌 마음의 영원한 평화의 이상을 진실로 남김없이 최고도로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스퍼스는 이 불상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을 발견하였다. 평화로움 속에서 작가의 숭고한 이념을 찾은 것이다. 이를 두고 어찌 명품과 혜안의 만남이라 하지 않겠는가?

■경주대 문화재학부

고려시대 새 '각필구결' 발견

서술어에 토 달은것이 특징

남풍현 교수 발표



◇고려시대 새로운 각필구결 양식을 보여주는 법화경 수덕사본. 점선 안에 보이는 점과 선이 각필구결이다.

예산 수덕사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법화경 권7 제24장 묘음보살품에서 13세기 초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새로운 각필구결을 발견했다. 남풍현(단국대) 명예교수는 제28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수덕사본 법화경의 각필석독구결에 대하여'라는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발견된 각필구결은 구절의 끝 한자에 점이나 선으로 토를 붙였지만, 이번에 발견된 법화경은 문장 중간에 나오는 서술어에 각필로 토를 붙인 것이 특징이다.

각필은 뾰족한 도구를 사용해 한자 옆에 점이나 선 · 글자를 새겨 넣어 한자의 발음이나 문법적 관계 이해에 도움을 주는 양식이다. 이는 한문 원전을 읽을 때 해석의 편의를 위해 단어나 구절 사이에 한국어를 집어넣은 '구결'의 일종이다. 눌린 흔적만 있을 뿐 뚜렷한 색이 없어 평상시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아, 이번에 발견된 <법화경> 역시 특수 조명기구를 비춰봐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오유진 기자

석조문화재 훼손 산성비가 원인

김선태 교수 주장

불교 석조문화재 훼손의 원인이 산성비 때문이라는 증거가 제시됐다.

김선태(대전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1993년부터 대구, 대전을 포함한 한 · 중 · 일 18개 도시에서 석조문화재와 건축물의 재료를 이용한 대기 중 재료부식 시험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시험결과 대구에서 산성비에 노출된 철판은 49㎛(㎛=0.001㎜), 대리석은 6.79㎛ 씩 부식됐다. 대전에서도 철판은 26.4㎛, 대리석은 4.27㎛ 씩 녹아내렸다.

한 · 중 · 일 삼국 가운데 부식 정도가 가장 심한 지역은 단연 중국으로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철판의 경우 상하이는 63.6㎛, 퀴양은 254㎛로 대전의 부식정도와 비교해 최고 2.5배~10배에 이른다.

수백 년의 자연 풍화도 견뎌온 석가탑은 석재 표면이 벗겨지고 감은사지 동탑도 옥계석의 일부가 부서지는 등 훼손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최근 이들 석조문화재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높았으나 균열과 강도 약화의 원인을 정확히 밝힌 연구는 거의 없었다.

오유진 기자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 위치 : 부산 ● 위치 : 전남 순천
● 법당 : 33평(목조) ● 법당 : 36평 ● 법당 : 20평
● 요사 : 90평 ● 요사 : 130평 ● 요사 : 45평
● 부지 : 2100평 ● 부지 : 755평 ● 부지 : 1000평
● 가액 : 10억 ● 가액 : 25억 ● 가액 : 3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천도재, 점안식,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읍내
● 평수 : 대지 88평 등기, 실사용 200평 이상
● 법당 : 목조기와 10평
● 방2개, 입식부엌, 욕실
● 특징 : 교통, 주차 편리 포교당으로 적합
● 가액 : 9천만원
011)879-4791
055)852-4130

사찰 (급) 안 내
● 위치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월출산 국립공원문화재보호구역내 소재 웅장한 미륵바위와 빼어난 산세,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매
● 평수 : 총면적 3천평(허가필,등기필), 종교용지 1600평, 임야 1400평, 법당 30여평, 요사채 40평, 기타 10여평
● 교구본사,사찰,연수원,수련원,기도터,기타종교시설.
● 주차장완비. 시내와 5분거리
● 가액 : 4억 5천만원(절충 가능)
011)613-1775 / 016)838-9394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칠곡3지구 대단위 아파트 단지 소재 조계종포교원
● 4층 신축 건물의 4층(100평)
● 법당1 : 40평. ● 승방2 : 총 12평
● 후원채 수각장 : 총 12평. ● 해우소 기타..
● 보증금 6천만원(월세50만원),시설비 2천만원
053)326-4317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 위치 : 전남. 고찰
● 대지 : 1000평 ● 부지 : 2000평
● 법당 : 30평 ● 법당 : 주3포 20평
● 요사 : 35평 ● 요사 : 2동 65평
● 가액 : 8억 ● 가액 : 2억 3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절터 안내
● 위치 : 안동시청서 5분거리 2차선 도로접. 버스정류소 앞
● 평수 : 임야 약 3천평
● 시가3억, 급해서 2억2천만원.
● 현재토목공사 완료
011)9677-2411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황등면
● 법당 : 25평(주지실)
● 요사 : 50평
● 약사여래입불(조선시대 조성)
● 등기 필 300여평, 시유지 1천평
● 시내 인접
● 양도 : 1억3천만원, 전세 8천만원
019)673-8525
011)677-8525

토굴 별장 안내
● 위치 : 남 덕유산 자락
● 부지 : 1,631평
● 가옥 : 신축 황토 기와집
● 가액 : 6억원(대출 가능)
● 특징 : 맑은 개울과 집뒤의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 주인 직접 살고 관리해 옴
016)367-2112

사찰 안내
● 위치 : 제주도 성산일출봉에서 5분
● 대지 370평, 법당 목조단청
● 종각 산신당 모두 단청
● 석조약사불, 칠층석탑, 요사채 2동 40평
● 반지하 150평, 법당40평, 방10개
● 가액 : 평당 백만원
※제주시내 중심가 포교원 40평 급액 3500만원
016)9676-0408

사찰 양도 안내
● 위치 : 경기 이천 장호원 소재 5분거리
● 대지 : 약 530평
● 건평 : 113평, 법당 (27평)
● 법전 요사(거실1, 방3), 식당, 주방, 요사 고시원(방 18개)운영
● 교통 · 전망있는 지정시가지의 산세좋은곳
● 가액 : 답사후 결정
031)643-9051
019)375-9051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강북지역 ● 위치 : 서울 근교
● 대지 : 160평 ● 대지 : 7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30평(목조)
● 요사 : 200평 ● 요사 : 200평(3동)
● 양도가 : 10억 ● 양도가 : 12억
※ 불교어린이집 운영중 유서깊은 도심 사찰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 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의정부시내 전철역앞
● 평수 : 65평. 최상층
● 법당, 주방, 사무실, 방, 화장실
● 전철역 앞. 옥상 사용 가능
● 매월 정기법회 즉시 사용
● 전세 2천만원, 월 50만원(전세 가능)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31)872-8227

사찰 안내
● 노원구 수락산 부근
● 당고개역 3분거리
● 부지 : 약 340평
● 건물 : 40평
● 법당 따로
● 가액 : 3억 2천만원
016)274-3338

포교원 안내
● 일산신도시, 주엽전철역 150m
● 25평. 방1. 3층건물에 3층
● 시설 A급.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 바닥은 전기온돌판넬
● 철학관으로 적합
● 2천, 70만원. 시설비 : 2천만원
031)907-0603

토굴수련원터 안내
● 위치 : 함양 백운산 자락
● 부지 : 대지 200평 포함 합 10,500평
● 가옥 있음
● 가액 : 평당 2만원
● 특징 : 토굴과 수련원 터로서 적합한 650고지의 전망 좋은 곳
016)367-2112

포교당 안내
● 부산 금정구 장전2동 588-19(식물원 앞)
● 평수 : 40평
● 법당, 방2, 주방, 욕실,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2700만원
051)516-3374/011)598-8673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증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구인 구직

49재, 천도재, 생전 예수재, 천수, 바라, 오공양, 작법 등 각종 행사에 임시로 염불 스님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주십시오
011-9209-5691
범음범패, 제의식, 염불, 바라춤, 나비춤 배우실 스님 연락주십시오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55세미만)
▷ 고양시 덕양구
019-211-8533

같이살아갈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41-554-7986
011-568-4417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경북 칠곡군
016-521-0003
054-975-0003

함께 수행하실 노스님과 행자님,공양주 보살님을 찾습니다
▷ 65세이상
041-546-8346
011-9803-6301

부전 스님 모 십 니 다
▷ 경기 곤지암
011-844-4341

주지소임을 원합니다
제방에서 40년간 수행했습니다
011-9211-5299

부전스님 모십니다
▷ 대한불교 조계종
송 림 사
054-976-811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359-7766
02)353-3004

비구니사찰에 평생 사실 스님과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11-783-6970
041-544-6619

암자토굴에서 공부하며 기도하실 비구니스님이나 보살님 구함
(현재불사중)
3년뒤맡아서 운영하실 분 및 기치료에 관심있는분
017-409-9599

공양주 구함
▷ 신심있는 40~60세 보살님
조계종 사찰
054-636-0229

가족처럼 지낼 50세이상 부전스님과 고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1-641-6311

부전스님 구함
총무구함(김해거주자)
공양주 보살님도 구함
(경남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불 조 사
019-521-1547

사찰에서 노스님 모십니다
(세수 60세이상)
창건사찰에서 기도정진하실 유명한 스님 찾습니다
011-259-5989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불심이 출중하신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55세~60세 되신분을 찾습니다
심 복 사
02-577-0007
031-673-5502
011-9864-1095

위장약을 불자님들께 원가에 드립니다
소화,복만,위장, 설사, 하복통, 구역질, 소화 계통 일절, 오래된 위장병 자신 있음
1개월분 5만원 대도한의원
011-392-4984

불치병 치료
30년간 명산을 다니며 생식, 단식 기도수행 정진하여 약사부처님의 위신의 가피에 힘을 입어 정신병, 난치병을 만져서 고침
사업실패, 가정문제 해탈로 제도합니다
약 산 암
031-746-6795
017-257-6795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수자령 영가천도재는 9月예정
▷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회주님이나 투자가 모심!
내용 : 소승은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와 마음법의 도리를 통달한바 없이 통달한 자로서 기본 불사후 포교에 어려움이 있는 사찰이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할 불국정토 실현에 동참할 투자가를 찾고 있습니다.
도안 광명.

불사포교:여력:마음법통달, 한의학전공, 외공내공무술전공, 역학달통등모든 정법으로서 또는 방편으로서 불국토 건설 준비가 끝난 스님입니다 신심이 돈독한 회주님이나 투자가 분들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도안 광명.
016-726-0830

성수철학원(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 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시장 네거리 (명당약국 3층)
053)472-4784. 018-531-2237

지종산삼
약 100년 추정
감정가 9천만원
강원도채취
019-299-2243
(원 일 스 님)

범 패 모 집
초급반 : 이침셋송,이침도량,상단, 종단예불
중급반 : 관음의식, 짓는소리, 거불 유치
상급반 : 천수바라, 태징 치는법, 복청게, 도량게
031-865-4893 / 011-661-9119
장소 : 동두천 대원사

자연 친화적인 토탈 장례 시스템
(주)자유로 청아공원
017-239-8488

전통 의식 행사에 스님 필요하신 곳
- 전통의식 각종 행사
- 천도재, 시식, 다비의식
- 기타 불공 등
02-939-3327
범음,범패, 제의식, 바라춤, 나비춤, 염불 배우실 스님 모집中
대광명사 탄우 합장

운세(20초내) 바로 맞추면 보세요
02-826-5067(명리학 전문)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감정실습반(보고 듣고 질문으로 시작)
교재 사주첩경(이석영 저) 실력테스트 해보세요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영 남 불 교 대 학 수 강 생 모 집
▶ 신입생모집
-정규반, 통신반(TAPE), 인터넷반
누구나, 선착순1차명
토요반 - 10월 4일 개강, 주 1회 강의
(053-474-8228)
▶ 행자 모집
1. 행자 교육 전문도량 - 행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시내 또는 감포분원의 산중 사찰에서 수행할 수 있음
2. 엘리트 스님 양성 목표 - 현재 30명 배출, 수행 중
3. 민주적 교육 - 개인방 지급
4. 수계후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 행자원 문의 : 011-9852-0075(총무스님)
▶ 백옥 부처님 불사
"참 좋은 유치원" 5층 법당에 1인1불 백옥 부처님을 모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시 053-474-8228 TVbuddha.co.kr

명당
탐지기 관룡자
월 간 역 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함
www.kbs.cc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눈
• 안구건조, 눈물, 충혈, 피로, 눈꼽, 눈부심, 희미함
• 이물감, 시력저하, 시신경 개선, 활성산소 제거
• 다른질병으로 눈이 나빠진분, 눈 수술전후 회복
• 물자, 학생, 직장인, 운동선수 등 눈을 많이 쓰는 분
일본특허: 2790212 식약청HSK: 2106909099
미국특허: 5382714 상표출원: 2002-5278069-80
주문상담 : 눈밝은 세상 (02) 2237 - 8804
인터넷 주소 : 눈밝은 세상(한글로 5자만 치세요
제조원 : 日本 (주)MERCURY-MK(완제품수입)
전국 지사 대리점 모집

다 슬 기
지방간 · 간경화 · 눈의출혈 · 신장

<항아리에서 직접내린 다슬기>
● 특징
강원도 동강인근의 맑은 물에서 채취한 다슬기만 선별하였습니다.
전통적 항아리 제조법으로 다슬기 자체의 냄새를 최소화하여 다슬기 자체의 성분을 유지
※ 직접 방문 환영합니다.
033)747-4830 치악산 유정암

- 난 치 병 치 료 -
몸도 마음도 너무 아프다
디스크,관절염,당뇨,간질환, 두통,우울증,화병, 불면증,신(神)병,원인모를병 기타 불치병
사업실패, 가정불화등으로 마음의 병을 얻으신 분 상담합니다
천지사포교원 02)2051-5549

수인작법 사주팔자
강의와 교육으로만 성취되었던 수인작법이 수수리 수인작법 책으로 발간되어 나왔습니다
■ 자신과 인연된 모든 수치에 대해 여러분들은 이 책 한권으로 인해 눈밝은 이로 다시 성장될 것입니다
■ 우주의 조화를 품고 있는 천리도수
■ 천기로만 묻혀있던 신비의 수치세계를 열어보입니다
※공부를 원하거나 책을 구입하실 분은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조계사 가까운 곳 [책방 여시아문]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금주: 이광래 (국민 093-21-0592-051)
031)633-1517. 016-213-5451

2002년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02)737-0090,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2002년 이전 합본집은 50,000원(발송비무료) 한정 특가 판매

불자정보

강직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진구 5거리 코너
● 평수 : 75평. 3층
● 보증금 2천5백만원, 월 120만원
보증금 +시설비 : 6천만원
※ 삼존불+약사여래+지장보살. 10년이상 포교지
● 법당 요사채 분리형. 도시가스 시설완비
02)444-3957

사찰 · 수련원 안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청운면 (서울에서 1시간 10분소요)
• 전 3,351평→통나무 청기와주택 25평1채
• 가용면적 2천평추가(총 5500평)
• 배산임수(국유림과 밤나무숲 그리고 개울)
• 4차선에서 계곡물따라 5km (아스팔트 포장도로)
• 가액 : 4억5천만원(급매)
031)771-7110 / 011)531-5562

토굴 암자 안내
● 충남 공주
● 대지 : 500평
● 신축건물(임법당)30평
● 가액 : 2천만원(임대도 가능)
● 특징: 뒷산 2천평 사용가능 샘물약수
016)9295-5377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부항면
● 대지 : 300평, 건물 40평 목조 인법당. 마을종점
● 가액 : 9천만원
054)437-1857

사찰 안내
●위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 내106번종점바닷가옆
●대지 : 507평, 법당 (2층), 28평(1층), 방 2개
●요사채 36평, 공양간 및 방
●가액 : 1억8천만원(조정가능)
●전, 월세가능
011)609-1106
011)9611-2717
야간 : 062)529-2717

포교당(급)안내
●위치 : 인천 계산동
●신축빌라 24평
●내집마련 겸 포교당 적합
●가액 : 융자안고 2300만원
● 권리금 200만원(집기일체 포함) 몸만 오시면 됨
032)541-9428
011)9642-1202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상가 4층건물 3층
● 법당 35평(방2, 화장실,공양간)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절충 가능)
● 특징 : 입주 즉시 법회 가능
011)9534-2848

어린이집 임대안내

새로운 현대식 건물준공과 함께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 육아사업인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실 분을 모십니다.

● 위 치 : 서울 성북구 정릉 4동 서경대 입구
● 건물개요 : 현대식 신축건물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
대지(300여평),
임대평수(1층,2층:약150평)
● 준공일자 : 2003년 11월 중
● 임대가격 : 협의 후 결정

(사)대한불교삼보회
02)913-2859,943-2858
www.sambobuddha.org

현대설법

설법이 살면 법회가 살고, 법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 초하루, 보름, 지장, 관음, 명절, 백중 49일 기도, 방생, 영가천도, 일요법회, 수련 법회, 특별행사, 교도소, 경찰서, 거사림회, 보살회 법문, 가족법회

있으신가요! 신도 조직에 활력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포교 활동이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수행 · 정진만 있고 법회가 없습니까? 법회는 있는데 설법이 없습니까?

• 붓다차리타 설법집(6권) • 다르마 설법집(6권) • 칸치푸람 설법집(6권) • 아쉬바지트 설법집(6권) • 특별설법집(2권)

■ 반드시 경전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 자유자재로 응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 같은 내용이 겹치지 않습니다
■ 누구나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활자 크기
■ 1편의 분량은 약 25분 소요
■ 1편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섯 가지 이상 수록
■ 1편씩 따로 떼어낼 수 있음

설법은 딱딱한 지식 전달이나 가벼운 재담이 아닙니다. 경험담이나 개인 생각도 아닙니다.
설법은 재미없는 사설이나 논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설법은 헌공과 찬탄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획된 감동입니다.
눈물바다 웃음꽃을 펼치는 감동의 잔치! 만다라의 꽃비처럼 쏟아지는 찬탄!

★ 설법준비 염려없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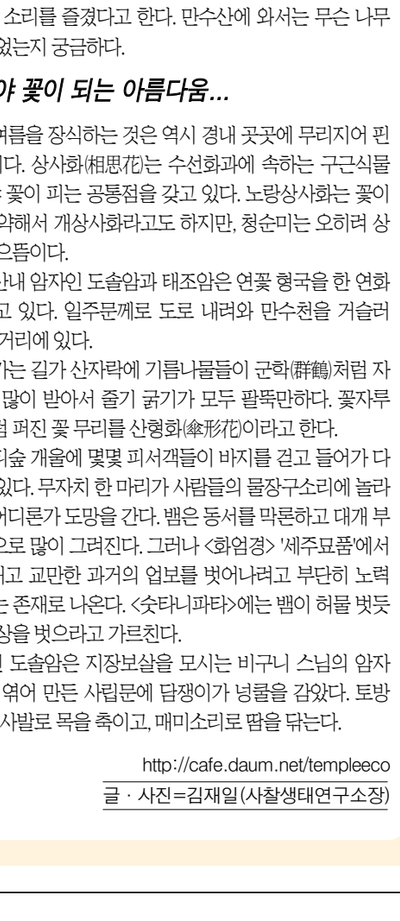
현 대 설 법 연 구 소
(031) 968-6663
경기도 고양시 화정달빛 401
안내책자 발송중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15) 만수산 무량사

금북정맥이 보듬은 '만수무량'



◇만수산 무량사 경내,만수산 능선(배경사진)



◇사진 위로 부터 관목처럼 자란 느티나무,노랑상사화,무자치

만수산 무량사가 앉은 부여 외산면은 부여군내에서 가장 외지고 산이 많은 지역이다. 금북정맥이 내달리는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산을 에워싸고 있는 성태산, 만수산, 문봉산, 감봉산, 월명산, 월하산, 성주산 등이 모두 금북의 산들이다. 무량사는 그 산들이 보듬은 자리에 앉아있다.

외산 삼거리에 이르면 무량사에서 만수천이 내려온다. 만수천은 웅천천의 상류이다. 웅천천은 충남에서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하천이다. 특히 감돌고기는 전 세계에서 이곳과 금강의 몇 군데 지천에서만 발견되는 환경부 지정 특정야생어류다. 인근지역의 탄광들이 속속 폐광되면서 수질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0년대 자취를 감춘 감돌고기는 여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절과 마을을 잇는 상생의 길 '만수천'

무량사까지는 만수천을 거슬러 2㎞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촌락들은 물길을 따라 형성되었다. 물길 따라 논밭이 펼쳐지고, 사람도 이 물길 따라 나다녔다. 물길은 단순한 물의 길(水路)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다. 이 물길은 상계의 무량사와 하계의 마을을 이어주는 상생의 길이기도 하다. 무량사가 만수천을 살려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만수천 위에 무진암으로 건너가는 극락교가 걸려 있다. 만수천은 물빛이 검다. 폐광하수 때문이 아니라 바닥의 자갈과 돌이 시커먼 오석(烏石)이기 때문이다. 만수산을 비롯해 이웃한 보령 일대는 오석 산지이다. 능선 너머 성주사 터에 있는 낭혜화상의 탑비도 이 오석으로 세운 것이다.

검은 물 속에서 버들치와 피라미들이 노닐고 있다. 버들치는 산간사찰 계곡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1급수 어종이다. 이곳 사람들은 버들치를 '중태기' 또는 '중택이'라고 한다.

매월당 부도전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무진암은 비구니 절집이다. 무진암 뒷길로 만수산 산행로가 나있다. 산을 타는 이들은 이 골짜기를 부도골이라고 부른다. 부도골을 비롯해 만수산 일대는 다양한 여름나비들이 관찰된다. 청띠신선나비, 표범나비,

다양한 여름나비, 활엽수 군락 형성



세줄나비, 왕세줄나비, 제일줄나비, 대만흰나비, 산제비나비, 홍점알락나비, 호랑나비, 네발나비, 작은멋쟁이나비, 뱀눈그늘나비, 부전나비…그리고 다양한 나방들이다.

만수산은 굴참과 졸참을 비롯한 참나무류와 느티나무, 때죽나무, 고로쇠나무, 서어나무 등의 활엽수 세력이 막강하다. 급경사가 이따금 나타나는 산길을 30여분 오르면 만수산-문봉산-성태산을 잇는 길고 느린 능선을 만난다. 능선도 온통 참나무류로 뒤덮여 있다. 자연천이도 한 요인이 되겠지만, 소나무와 참나무의 싸움을 보면, 소나무는 바위가 많은 골산(骨山)에 강하고, 참나무류는 육산(肉山)에 강하다. 만수산은 바위가 거의 드러나 있지 않은 부드러운 육산이다.

만수산은 대산(大山), 한산(翰山), 홍산(鴻山) 등으로 불려지다가 조선시대에 선찰인 무량사가 미타사찰로 사격이 바뀌면서 만수산으로 불려졌다고 한다. 일찍이 '만수무량(萬壽無量)'이라고 했다. 만수는 곧 극락의 다른 이름이니, 그 산에 무량수불인 아미타불이 상주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단청을 하지 않아 더욱 고색이 느껴지는 일주문을 지나 개울을 건너면 제법 그윽한 숲이다. 숲의 좌장은 참나무류와 늙은 소나무들이다. 그 주변으로 서어나무, 단풍나무, 왕버들, 층층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전나무 등이 협시보살로 서 있다. 그 숲 바닥에 맥문동 군락이 보라색 꽃을 피우며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사람손이 아닌 저들 스스로 자생하여 저렇게 꽃융단을 이루었다니 더욱 대견스럽다.

천왕문에 이르면 무량사 경내가 그림 좋게 펼쳐진다. 자연과 인공이 한데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이다. 넓지도 좁지도 않은 공간에,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 사물들이 제 자리에 앉아있다. 눈 맛이 편하고 즐겁다.

그림같은 경내 자연과 인공의 합집합

사찰 탐방하면 대개 인공 조형물만을 돌아보고 나오지만, 사찰에는 그런 인위적 조형물보다 더 오랜 세월로 존재해온 자연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사찰은 주위의 자연과 함께 사찰이다. 사찰하면 이미 자연과의 합집합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사찰 주변의 자연은 단지 사찰의 조경적 가치만을 위한 부수적 존재가 아니라 저마다 독립된 가치를 갖고 존재하는 것이다.

임진왜란 후 진묵대사의 손길로 새로 다듬어진 무량사의 전각들은 천왕문-석등-오층석탑-극락전 순으로 일직선상에 놓여있다. 무량사의 본전인 극락전은 중층 다락건물이다. 언젠가 조사에서 극락전 기둥의 재질이 느티나무와 상수리나무로 밝혀졌다. 두 나무 모두 만수산 문도(門徒) 나무들이다. 절집은 제 산의 나무로 세워야 제격이다.

산신각의 매월당 초상화는 어딜 가고 가고 보이질 않는다. 매월당은 절을 옮겨 다닐 때마다 그 산에서 나는 나무로 악기(琴)를 만들어 그 산의 소리를 즐겼다고 한다. 만수산에 와서는 무슨 나무로 소리를 얻었는지 궁금하다.

잎이 져야 꽃이 되는 아름다움…

무량사의 여름을 장식하는 것은 역시 경내 곳곳에 무리지어 핀 노랑상사화이다. 상사화(相思花)는 수선화과에 속하는 구근식물로, 잎이 져야 꽃이 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노랑상사화는 꽃이 작고 꽃대가 약해서 개상사화라고도 하지만, 청순미는 오히려 상사화 가운데 으뜸이다.

무량사의 산내 암자인 도솔암과 태조암은 연꽃 형국을 한 연화골에 자리하고 있다. 일주문께로 도로 내려와 만수천을 거슬러 10분과 30분 거리에 있다.

연화골로 가는 길가 산자락에 기름나물들이 군학(群鶴)처럼 자랐다. 햇볕을 많이 받아서 줄기 굵기가 모두 팔뚝만하다. 꽃자루가 우산살처럼 퍼진 꽃 무리를 산형화(傘形花)이라고 한다.

연화골 느티숲 개울에 몇몇 피서객들이 바지를 걷고 들어가 다슬기를 잡고 있다. 무자치 한 마리가 사람들의 물장구소리에 놀라 스멀거리며 어디론가 도망을 간다. 뱀은 동서를 막론하고 대개 부정적인 생명으로 많이 그려진다. 그러나 <화엄경> '세주묘품'에서는 화를 잘 내고 교만한 과거의 업보를 벗어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정진하는 존재로 나온다. <숫타니파타>에는 뱀이 허물 벗듯이 애착과 망상을 벗으라고 가르친다.

산내암자인 도솔암은 지장보살을 모시는 비구니 스님의 암자이다. 싸리를 엮어 만든 사립문에 담쟁이가 넝쿨을 감았다. 토방에 앉아 물 한사발로 목을 축이고, 매미소리로 땀을 닦는다.

http://cafe.daum.net/templeeco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사찰(토굴)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 부지 : 2100평
- 법당 : 35평
- 요사 : 150평
- 가액 : 8억2천

- 위치 : 대구광역시
- 부지 : 20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4억3천

※ 사찰(토굴)양도 · 양수 상담 환영
서방불사 011)9851-5952

암자 안내
- 태백산 아래 제일 시원한 암자
- 산신각,약사전,용왕각,지장전
- 별도로 되어있음
- 대지 83평
- 가액 : 답사후 결정

054)672-6872
011)368-7653
011)9780-5515

토굴 안내
- 경북 봉화군 소천면 근교
- 건평 : 지상 25평
- 산세수려함
- 최고의 약수물 나옴
- 가액 : 3천5백만원

054)672-6872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서산시 가야산(해미IC 5분)
- 산세 수려, 전망 좋음
- 부지 1500평중 600평 사찰허가 토목공사 완료. 조경, 전기, 자연수, 자연석 큰돌 많음
- 가액 : 2억원

017)341-9967
017)341-6969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마암면
- 건물 : 25평, 삼존불 모셔져 있음
- 주방, 샤워장 완비
- 모든 시설 갖춰져 있음
- 가액 : 상담후 절충

055)672-9399
017)233-770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빙계1리 390번지
- 절터 250평, 밭 700평, 임야 5000평
- 가액 : 6천만원

055)366-1619
안내 054)833-4789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가평
- 부지 : 100평
- 법당 : 30평(임)
- 요사 : 49평
- 가액 : 2억5천만원
- 산세좋고 교통편리

- 위치 : 공주
- 부지 : 1만8천평
- 법당 : 20평(임)
- 요사 : 20평
- 가액 : 2억원
- 진입로 노송 울창

※ "급" 구함
- 위치 : 서울 및 근교
- 가액 : 4억~10억 가량
의토굴 및 사찰 전화상담 환영

◈전국소재 사찰 · 암자 · 포교당 양도,양수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참 인연됩시다 -
정인불사 서 울 ☎ 02)722-8968 대 구 ☎ 053)782-5504 휴대폰 011-707-8204
-(조계사앞 도장전각전문점 02)735-0750 정인사)-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완산동 명상수련원 적지
- 시내 10분, 금호강앞,농사가능
- 대지 : 1400평
- 가격: 보신후 절충,전세도가능
- 법당 : 30평, 방3칸, 공양간
- 가액 : 1억5천만원(절충 가능)

011)430-0655
011)718-3524

사찰 안내
- 위치 : 중구신당동 대로변역 1분
- 중앙시장입구 요지
- 3층중 3층. 25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700만원
- ※ 포교에 따른 비법 전수

02)2235-2219
011)9150-2284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경기도 승마공원 입구
- 부지 : 1,293평
- 건물 : 53평, 25평, 17평 3동
- 서울에서 50분거리
- 특징 : 산세수려, 전망좋음
- 가액 : 3억 8천만원

031)533-242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동호동 남방산 부근
- 평수 : 85평
- 가액 : 2억원(절충 가능)

055)645-326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600평
- 가액 : 6억원

011)9851-7263

사찰 안내
- 위 치 : 청송보현산
- 부 지 : 1,900평
- 법 당 : 25평
- 요사채 : 30평
- 가 액 : 2억
- ※계곡과 산세좋은 암자

- 위 치 : 함안
- 부 지 : 330평
- 법 당 : 25평
- 요사채 : 50평
- 가 액 : 2억8천
- ※ 유명관광지 옆 도량

- 위 치 : 부산
- 부 지 : 93평
- 법 당 : 20평
- 요사채 : 30평
- 가 액 : 2억5천
- ※ 주택지 도심 사찰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400평
- 임야 : 2000평
- 가액 : 9억원

※ 소개업자 일체 사절
011)9338-2993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인근(섬)
- 대지 : 100평
- 법당 : 30평(한옥기와)
- 요사채 : 17평
- 가액 : 1억8천만원
- ※ 불심 깊은 곳(운영 잘됨)

011)9677-2724

사찰(급)안내
- 60평
- 시내 한복판. 시장 입구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 목동사거리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2)2645-2445
011)9947-4458

임야 안내
-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산수가 수려함
- 위치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갈애바위 하단에 위치하고 국도 1호선 4차선 도로에서 500m지점 호남고속도로 옆
- 면적 : 25,195평
- 용도 : 사찰, 납골당, 종중납골당, 가족묘지, 사회복지법인, 실버타운, 정신요양병원, 연수원으로 적합
- 특징 : ① 계곡이 흐름 ② 전설에 나오는 갈애바위 하단에 위치 ③ 전면에 저수지가 있음 ④ 정남향
- 가액 : 평당 11,000원

011)647-3500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부지 : 사용평수 2백평 중 100평 등기.
- 법당 목조 22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동, 방3개, 주방1개, 5층석탑
- 바위불상, 다수 민속품으로 경내조성
- 환산의 지기가 집중된 명당터로 270여호마을소재. 옥천 톨게이트 및 대전 국도접 2~3분
- 가액 : 1억 3천만원

043)733-8186/011)9405-8186

목어

8·15와 일본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
본지 논설위원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일본 수상 고이즈미와의 회담에서 납치 일본인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5명의 일본인을 돌려보냈다. 외교 사상 유례없는 너무나 순진한 태도였다. 김 위원장은 일본이 한반도에 행한 36년간의 흉악한 범죄역사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해방이 된지 거의 6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도 강제로 끌고 간 수십만 노동자나 위안부 문제를 사과는 커녕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천황이 "과거의 불행한 일에 대해서 심히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고작이었고, 일본 당국은 '잘 조사해보겠다', '증거서류가 없다'며 얼버무려 왔다. 특히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은 지금도 일본 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벌이며 그 죄의 정식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일절 무시하고 있다.

김정일의 납치고백은 일본에게 과거의 면죄부 이상으로, 피해국과 가해국의 위치를 뒤바뀌게 하고 말았다. 일본의 언론매체는 매일처럼 북한을 악마의 나라로 몰아붙이며 반북감정을 부추기고, 일부 정치인은 또다시 식민지통치가 옳았다고 소리높이 외치기 시작했으며, 모든 한국인에 대한 모멸감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일본과의 우호증진은 필요하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이 "일본은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오만하다"라고 평가한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방일시 가장 좋아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했는데, 남북 두 지도자가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이리저리 일본에게 얕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걱정이다.

암투병 불구 전시회 연 스님

프랑스 등지를 오가며 서양화를 그리다 불가에 귀의한 무애 스님(양산 죽림선원)이 암투병에도 불구하고 작가생활 40년을 결산하는 전시회를 8월 23~27일 부산 국제신문사 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97년 "군더더기 없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며 출가한 무애스님은 한·중·일 3국의 달마도를 연구하며 '그림의 원칙과 기예가 담긴' 달마도를 그려왔다. 이번 전시회에는 출가 전에 그린 서양화와 출가 후 작업한 불화가 함께 선보인다.

장군죽비

시주함 턴 50대, 붙잡히자 폭력

사찰의 법당 안에 있는 불자들의 불전함을 털다 사찰 관계자에게 들키자 폭력을 행사한 정모(53)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정 씨는 8월 17일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모사찰 법당에서 불전함 열쇠를 부수고 시주금을 훔치다 신도 박모 보살(43)에게 들키자 주먹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천경찰서는 정씨를 폭력 및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불자 세상보기

구승회
동국대 교수 · 윤리학

'짬밥문화'의 문명화를 위하여

모든 집단은 자신에게 알맞은 문화를 만든다. 집단은 일차적으로 문화를 생산하지만 결코 창조적인 생산 활동은 아니다. 문화는 몸에 맞는 옷과 같아서 타문화를 수용 · 소비하면서 집단의 규모나 특징에 맞게 수정되고, 맞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것이 문화 재생산이다.

우리 군의 짬밥문화는 반세기 이상 청년 남성 집단의 대표적인 문화가 되었다. 사전에도 없는 '짬밥'이라는 말은 밥찌꺼기라는 말의 변형으로 초기에는 어려운 군대생활을 일컫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관록이나 경륜에 기초한 위계 · 서열을 표현하는 말로 군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사용된다.

이번에 육군은 매우 파격적인 병영내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다양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금지항목들을 나열하고 있다. 특히 사병간의 명령, 지시, 간섭 금지가 주목할 만하다. 이제 고참은 신참에게 구타나 얼차려는 물론이고, 식기 닦기나 심부름도 시키지 못하게 됐다. 실제로 병사의 계급은 상명하복의 위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무기간과 역할을 나타내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등병과 병장은 수평적 동반자 관계이다. 육군의 '사고예방 종합대책'은 이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다.

세상이 변했고, 사람 또한 많이 변했다. 오늘날 군인은 장교, 사병 할 것 없이 신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지구촌, 세계화 그리고 현대의 기술이 일구어 낸 다원적인 문화에 익숙해 있다.

일부에서는 '군대는 유희집단도 아니고, 보이스카우트도 아니다. 군대는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책임지는 전위집단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강과 규율을 해체하면 어떻게 훈련을 하고, 전쟁을 하겠느냐'는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바로 1년전 서해교전에서 목숨을 바쳐 용감하게 싸운 우리 해군 장병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전투에 임했다. 우리 신세대 장병들은 우리 퇴역들의 염려와는 달리, 충성심, 인내심, 단결력에서 추호의 빈틈도 없었다. 그러므로 이런 우려가 오히려 야만의 군사문화에 익숙한 우리 퇴역들이 종종 범하는 과장된 짬밥문화일지도 모른다. 이번 행동강령은 '짬밥문화를 문명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명화(be civilized)란 '시민이 되게하다'라는 말이다. 군인의 역할과 임무의 특성상 군대는 전체주의적 통합공동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문화는 거의 모든 남성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매우 큰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서 군대는 분명 소수문화집단이다. 이런 소수집단의 병영문화를 시민사회의 문화에 개방함으로써, 병영내 인권과 평등을 신장하고 군사문화를 건강한 시민문화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지휘관들은 군기감찰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짬밥문화의 자기재생산 권리를 박탈하는 이번 조치가 지나친 국가개입으로 다시금 전체주의로 되어서는 안된다. 민족, 역사, 언어, 문화에 있어서 강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유교문화에 토대한 우리 사회에서 제도의 지나친 개입은 또 다른 짬밥문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강령을 악용하여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로 흘러 전투훈련에서 필수적인 인간애, 즉 전우애를 버리고 불관용을 저지르거나, 상대주의로 무장하고 "소대장, 혹은 내무반장, 당신이 먼저 해봐라!"라고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군기문란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포교원 별원화 이후의 성과와 과제

포교원은 8월 18일 '포교원 별원화 이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했다. 포교부장 일관 스님의 발제에 이어 열린 토론에서 지홍(조계사 주지) · 계성(전등사 주지) · 퇴휴(법장사 주지) · 지종(범어사 포교국장) 스님과 임동현 중앙신도회 기획실장 등 참석자들은 신도교육 체계화 방안과 관련 '품계'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리=권형진 기자〉



◇18일 열린 포교종책연찬회에서 참가자들이 포교원 별원화 이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포교체계 정립, 시스템 정착 과제

▧ 발제-일관 스님(포교부장)

94년 종단 개혁이후 포교원이 3원(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체제로 분리된 것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 맞게 포교 영역을 전문화하고, 삶의 질 변화에 따른 종교 환경의 변화에 따라 포교 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포교원 별원화 이후의 성과는 크게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종단의 포교 전담 부서로서 자리매김했다는 점과 포교인력의 개발, 양성,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는 꼽을 수 있겠다. 조계종 신도에 대한 종단 책임 강화와 조계종 신도에 대한 입교 · 교육 · 수계 · 등록 · 조직 · 신행 · 포교의 체제를 수립했다는 것도 성과다.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긴 하지만 적극적인 포교전략 수립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반면 3원 분립에 따른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시스템 정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포교자원의 결집과 포교역량의 극대화, 수행 중심의 포교시스템 정비, 조계종 신도의 수행과 교화를 통한 가치 실현 시스템 개발, 신도기본교육을 중심으로 한 신도의 육성과 조직화, 포교 및 신도 종책의 중앙 · 교구 · 사찰에서의 일관된 집행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 지홍 스님(조계사 주지, 전 포교부장)

파라미타 설립 가장 큰 성과

가장 큰 성과는 청소년 포교단체(파라미타)를 하나 만들었다는 것이다. 신도단체를 종단 내에 귀속시키고 소속감을 갖도록 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신도 교육 체계화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다. 과제가 있다면,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므로 수행체계를 정리해서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포교원이 추진하고 있는 '입교→기본교육→수계→등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많다. 품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것이다. 또 주지가 바뀌면 교육 체계와 내용, 목표가 바뀌고 심하면 없어지기도 하는데, 신도 교육 부문만은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

▧ 퇴휴 스님(서울 법장사 주지)

신도들에 품계줘 사명감 부여

포교원 별원화 이후 성과가 꽤 많았지만 하나 경계할 부분이 있다. 개혁 종단 초기의 생동감이 떨어지고 관료조직화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그것이다.

포교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교육 체계화의 경우 조계종의 영역을 스스로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 기본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하나, 무조건 교육하고 수계 받고 등록해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 집사나 장로는 자부심이 대단하고 엄청난 사명감을 갖고 있다. 불교는 기껏해야 '보살' '거사' 밖에 없다. 신도회 임원을 하다 그만두면 역시 '보살' '거사'다 보니 임원 때는 열심이다가도 그만 두면 절에 안 나와 버리기도 한다. 품계를 둬서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종 스님(범어사 포교국장)

교육에 따른 '자격' 부여

일선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으려고 했는가 묻고 싶다. 7~8년째 포교국장을 하면서 느낀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한 소리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신도 교육 체계화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포교원에서 체계화시킨다고 해도 신도들이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7~8년 공부한 사람이나 갓 들어온 사람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 집사처럼 '연수'나 '교육'에 따라 자격이나 품계를 주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어 신도회장의 경우 교육은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도 있겠다.

▧ 임동현(중앙신도회 기획실장)

열심히 뛸수 있는 배경 마련

해마다 '○○의 해'를 정해 역점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작 신도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종책이 없다. 그러다 보니 교양대학의 커리큘럼도 불교 교리에 대한 지식 습득과 예절에 치중하고 있다. 먼저 신도교육의 목표가 세워져야 하고, 조계종에서는 어떤 신도를 왜 원하는지, 신도상이 제시돼야 한다. 그에 따라 교육 체계와 내용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불교의 폭, 종단의 폭을 넓히고 심화시키는 것이 포교라고 한다면 스스로 열심히 뛸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그런 방식의 개발보다는 직접 종단에 관계 되고 연결된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만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종단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 법당 20평. 산신각, 용왕각
- 요사 20평. 승방 1, 약수물 풍부
- 가액 : 1억 5천만원

018)555-5733

사찰(급)안내
- 대구시내 위치좋음
- 2층건물중 2층. 현대식건물
- 법당(2층), 산신각 총 28평
- 요사채(1층) 총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 시설 일체
- 가액 : 3억 5천만원

011)226-288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명륜동 전철역 롯데백화점 5분거리
- 평수 50평, 5층건물에 4층 현대식 건물. 주차장 완비. A급시설.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000만원(절충 가능)

051)556-3312
016)549-835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효목동
- 법당 : 4층 건물 3층(30평)
- 시설 : 주불 석가모니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 법회가능. 집기일절
- 전세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1천 5백만원

016)9393-505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943. 준 유원지
- 대지 200평, 전 500평. 산장(돌과 나무집 30평)방 3개, 거실, 다락, 모두 완비
- 가액 : 1억 5천만원

054)262-6673

사찰 안내
- 서울 북가좌동
- 대지 : 43평
- 1,2층 합 43평
- 평당 600만원 (땅값만 내시면 됨)
- 시설 그대로 인수해드림 (시설비 없음)

02)374-9723
011)380-9723

포교당 안내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 4층건물중 3층 30평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 방 1, 주방, 샤워실, 화장실, 사무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지금 법회중,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 집기포함 2천 5백만원

011)9852-8386 / 051)782-9386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사동 산2
- 대지 100평, 건평 35평
- 가액 : 5800만원

011)9848-6298
031)642-3368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이천 대포동
- 대지 : 188평
- 법당 23평, 요사 37평
- 시내에서 5km, 자가용 6분거리
- 전세 5500만원, 법당시설물 포함
- 꼭 필요한분만 전화요망
- 법당 시설물 일체

011)9142-3737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노원구시장내
- 평수 : 30평. 2층
- 법당, 방2, 주방, 종무소, 집기일체
- 조계종 스님이 직접 운영함
- 불사관계로 인계를 원함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2)938-3567
011)9889-3544

포교당 안내
- 위치 : 마산시 합성동 124-4
-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 법당, 종무소, 친견실, 공양간
- 삼존불, 탱화 3점
- 시설 완비(에어컨, 정수기 등)
- 시설비 1천만원, 전세 1천만원

055)251-663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인천시 최고 요지
- 4층 건물 중 3층. 80평
- 법당 30평, 방4, 공양방1, 목욕탕, 실내화장실
- 보증금포함 5천만원, 월 80만원
- 스님 직접 통화함

※ 스님사정으로 인계함

011)9354-9119

사찰부지 안내
- 서울 근교(강남 45분거리)
- 부지 : 1500평 (1000평 종교부지 허가)
- 산세수려, 수목울창
- 양쪽에 계곡을 끼고 있음
- 교통편리, 도로 인접
- 서울 근교중 최고의 명당터
- 가액 : 5억5천

017)438-3377

사찰 안내
- 위치 : 거창
- 대웅전 20평, 요사채 30평
- 대지 300여평 외에 2천평 사용가능함
- 가액 : 1억 5천만원

011)595-9973

태백산 명당자리
- 터 정리되어 있음
- 전 175평
- 대불지 300평
- 차 진입로 있음
- 차도에서 300m 거리
- 가액 : 절 9천만원, 땅 3천만원

033)553-6860
011)368-7653
011)9790-5515

양도및 교환안내
- 불교용품 백화점과 교환하실 분
- 암자, 사찰, 대지, 기도터
- 현재까지 15년 독점
- 내부방4개-주방, 욕실
- 법당 조성 및 살림 가능

02)478-4334
011)9410-0031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 부천시 원미동
- 도로4거리 시장입구 상가 2층
- 법당, 방, 주방, 욕실, 살림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800만원

032)612-6917
016)368-6917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내. 2층건물
- 대지 50평, 건평 50평, 법당 50평
- 후불, 칠성, 신중, 천수천안, 산신, 용궁, 문수범불 탱화
- 지장보살 동불, 천수천안관자재 동불, 삼존불 모심
- 보증금 2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3700만원

052)232-5939
011)824-5939

사찰(급)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 부지 : 260평
- 대웅전 24평, 지장전 5평, 산신각 2평, 용왕전 0.5평
- 주지방 2, 종무실 1, 공양실 大 1, 小 1, 기도방 1
- 가액 : 4억 5천만원(절충 가능)

011)9124-8489

가족묘지터 안내
- 위치 :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 면적 : 3,300평(국도변 인접)
- 지목 : 임야(산소용지로 최적)
- 특징 : 팔당호반의 최고의 명당, 정남향
- 가액 : 평당 30만원(가격 협의 가능)

016)235-7373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 대지 200평이상
- 법당 30여평, 요사채 20평
- 차 진입가능. 포교지 적합함
- 가액 : 4억7천만원
- 주인직접. 소개인 사절

011)883-7856

대구U대회 화려한 개막 팡파르

불교활동 "눈에 띄네"

8월 21일 세계 청년들의 체육축제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가 31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된 가운데 대구불교계가 불교관 개관,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서포터즈 운영 등 한국불교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태고종은 17일 대구 월드컵 경기장 서편광장 특설무대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기원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법타스님(가운데줄 왼쪽에서 여섯번째) 등 불교계 북한 서포터즈 회원 50여명이 21일 북한-덴마크 배구 경기에서 응원을 하고 있다.

불교관 14일 개관, 외국선수 200여명 방문… 다도실도 운영

문화행사 달마도展 · 성공기원 영산대재 · 불상조각 시연

서포터즈 동화사-몽골, 평불협-북한, 진각종-아랍권 지원

선수촌 불교관

선수촌 불교관은 개막 10여일 전인 14일 대구유니버시아드 선수촌 내 동변중학교 5층에 문을 열었다. 대구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성)가 운영하는 불교관에 21일 현재 태국, 이탈리아, 중국,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등 200여명의 외국선수들이 다녀갔다. 21일에는 천태종 주관으로 대회개막과 더불어 개막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당 내부에는 참가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만국기와 연등이 걸려 있으며, 20여명의 통역사 및 자원봉사자들이 상주하며 한국불교를 소개한다. 특히 한국의 다도를 직접 접해볼 수 있는 다도실은 외국인은 물론 유니버시아드대회 운영요원들도 찾아올 만큼 인기가 높다.

또 북한선수단의 환영행사가 열린 20일에는 불교관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이 거리로 나와 직접 만든 연등을 북한 선수들에게 건네주며 악수를 하는 등 한민족의 동포애를 나눴다.

문화행사

7월 31일 대구국채보상공원에서는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년도(2003년)와 참가국(170개국) 수를 합한 2,173점의 달마도 전시회가 열렸다. 또한 8월 17일에는 대구월드컵경기장 서편광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2003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기원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21일부터는 불교조각가 박찬수(목아박물관장) 씨의 불상 조각 시연 등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97명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우리전통 작품 200여 점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선보였다.

서포터즈

현재 대구불교계 3곳이 서포터즈를 구성했다. 13일 한 · 몽불교교류협의회를 창립한 대구 동화사는 몽골서포터즈를 결성, 몽골선수단에 운동복 등을 지원하며 응원을 펼치고 있다. 경기 후에는 경주 불국사 등지의 사찰을 순례할 계획이다.

북한서포터즈를 구성한 조국평화통일불협회 경북대구본부는 20일 북한 선수단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21일에는 북한선수단의 첫 경기인 북한-덴마크 배구경기에서 북한응원단과 함께 열띤 응원을 펼쳤다. 27일에는 금호강 생태공원에서 열리는 팔공고려문화제전에서 통일희망관을 운영,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에 편지 쓰기 행사를 통해 모아진 편지를 북한 측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진각종 희락심인당은 아랍에미레이트, 시리아, 몰디브 등의 아랍권 국가 서포터즈를 구성했다. 진각종 서포터즈는 한국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 선물과 경주 엑스포 관광을 계획하고 있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단군신화의 홍익사상은 불교자비정신 격상시킨것

불교문인협 심포지엄

한국불교문인협회는 8월 15일 팔공산 동화사에서 '제15회 불교문학 발전을 위한 한국 불교문학 심포지엄'을 열었다.

동화사 설법전에서 한국불교문인협회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삼국유사와 한국문학'을 주제로 지역의 한문학자 지준모씨가 주제발표를, 경산대 조춘호 교수와 한국불교문인협회 구상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주제발표에서 지준모씨는 "삼국유사는 원시적인 내용의 단군신화를 홍익인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제도중생과 동일한 내용으로 채색했다"며 "이것은 단군신화를 단순한 신화에서 불교의 자비 · 원만 사상 정신으로 한 층 격상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준모씨는 또 "삼국유사의 문학적인 부분의 공적은 신라 향가를 원형에 가까운 향찰로 14수나 기록하였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박원구 기자

기도성지 연화도에 10월부터 유람선 뜬다

연화사, 천불사 등의 기도도량이 있고 통영 8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연화도에 유람선이 취항한다.

충무유람선협회는 8월 17일 산양읍 달아마을~연화도 노선에 정원 160명 규모의 유람선 2척을 취항키로 결정, 오는 10월부터 터미널 신축에 나선다. 이로써 연화도에 있는 연화사 해수관음보살상, 촛대바위, 거북바위, 용머리바위 등 불교 성지를 찾는 불자들의 방문이 늘어날 전망이다.

천미희 기자

원산 스님 전강법회

제자 선행 스님 강맥이어

대강백 원산스님 전강법회(사진)가 8월 16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렸다. 전강법사인 원산스님은 전강제자 선행스님에게 법광(法光)이라는 법호를 내리고 그 증표로 밀봉한 불조원류(강맥이 이어진 경로)를 전하며 전강게를 내렸다. 원산스님은 금강산 유점사 강백 설호스님을 시작으로 직지사 강백 관응 스님의 법맥을 이었다.

천미희 기자



황룡사탑 이미지 조형물 경주엑스포 상징탑 불투명

당초 신라 황룡사 9층탑을 모형으로 제작될 것으로 알려져 불교계의 기대를 모았던 경주엑스포 상징탑이 결국 공모를 통해 결정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엑스포 조직위 측은 2006년까지 총사업비 300여 억 원을 들여 엑스포공원 내에 건립하게 될 상징조형물(랜드마크) 건립에 대한 각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주엑스포는 오는 8월말까지 세부방침을 정해 늦어도 9월까지는 엑스포 상징탑 건립을 위한 공모를 국내외에 진행시켜 올해 안으로 설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엑스포 상징탑 건립문제는 최근까지 황룡사 9층탑을 복원하는 형태, 황룡사탑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형태, 현대식 감각에 맞게 전혀 새로운 상징조형물로 건축하는 형태 등 세 가지 안에서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해왔다.

박원구 기자

'장례식장 건립' 선암사 승소판결

부산지법, "설계변경 불허 효력 없다"

장례예식장 건립을 놓고 부산진구청과 행정소송을 벌여왔던 부산 선암사가 8월 14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설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건에 대해 "기존의 건립 중에 있는 문화집회시설을 장례식장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한데 대해 주민들의 민원 소지가 있다고 하여 허가를 거부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선암사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 선암사가 냈던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어 이번 승소로 장례식장 건립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문화집회시설로 허가를 받아 건립 중이던 시설물을 2002년 12월 장례식장으로 설계 변경 허가신청을 내면서 시작된 부산진구청과의 악연은 부산진구청이 혐오시설로 극심한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계 변경을 불허하면서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2003년 1월 8일 진구청이 허가변경 불허 결정을 내렸고 선암사는 1월 15일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승소판결에 대해 선암사 주지 정야스님은 "장례예식장 건립은 계속 추진할 것이지만 승소판결과 상관없이 당분간은 설계 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문화집회시설로 공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항소를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변경을 신청하면 산림법이나 전통사찰보존법 등에 의거 다시 반려할 것"이라며 설계 변경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파동명상 수련 후 스님. 법사님들이 경험하신 이야기를 싣고있습니다
여기에는 허락을 하신 분의 사례만 싣고 있습니다.

◎ 2003년 7월말에 **파동수련**을 하신 자광스님(마산시, ☎017-316-6221)은 수련이 끝난 뒤, 수험준비를 하고 있는 고3 여학생을 명상상태로 인도하게 되었는데, 이 여학생은 1년 전부터 주위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져 수험준비에 곤란을 겪고 있었다. 명상상태에 들자 여학생은 전생에 거부(巨富)로 살았던 당시의 아버지를 보게 되는데, 정이 워낙 돈독한 부자지간이었던지라, 전생의 아버지를 보자마자 여학생은 '아버지'를 부르며, 부둥켜안는 시늉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전생의 아버지는 현실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였다. 생전에도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이 여학생을 주위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아꼈었고, 여학생도 할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생부터의 인연이 집착이 되어 할아버지는 죽은 뒤에도 영계로 가지 않고 이 여학생 주위를 맴돌며 계속 할아버지 생각을 나게 했고, 소녀는 항상 할아버지 생각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스님이 인연법을 정리하여 천도하고 난 몇 일 뒤, 그 여학생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장시간(4시간)을 집중했는데도 전혀 시간이 지난 지 모를 정도로 집중력이 좋아졌고 주의력이 향상되었다고했다.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일시 :** 9월 첫째주, 셋째주 (본원사정에 따라 변경 可)
◈ **수련과정**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연천 심원사지 발굴

3,600여평 대규모 사찰 확인



◇연천 심원사지 천불전 건물지 노출상태.

경기도 연천 보개산 심원사지 사역이 동서 140m 남북 80m 등 약 3,600여평의 규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천군 심원사지 발굴조사단(단장 홍선,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장)은 전체사역 중 주요 전각이 위치하는 상단(1단공지)을 조사한 결과 총 5동의 건물지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단은 문헌에 누락된 명부전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하고, 조선시대 토불좌상(사진)과 입상, 후령통(복장을 넣는 통), 동경 등 7개의 유물을 발굴했다.

토불, 동경 등 7개 유물 출토
23억 투입 복원불사 전개중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가 5월 8일부터 발굴조사에 들어간 연천 심원사지는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 폐사되기 전까지 천불전을 중심으로 동편에 ㄱ자 부속건물, 서편에 봉향각 등 주요 전각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결과 조선중기에는 천불전이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또 목불의 흔적과 하층의 대좌적심, 연화대좌 등이 발견돼 최후 폐사시기의 천불전 자리는 원래 대웅전 건물이 위치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건물의 정면 배치에 있어서도 현재 중심건물과 동편건물은 남쪽을 정면으로 하고, 봉향각인 서편건물은 동쪽을 정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중기 때의 모습은 서편의 건물 역시 남쪽을 정면으로 하고 있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조사단 최태선 교수(중앙승가대, 고고학)는 "출토된 토불과, 복장유물 및 불교의례 유물들은 소외시되어 온 조선시대 불교미술사에 중요한 자료"이라며 "1600년대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석탑부재가 산재하는 만큼 앞으로 2단의 조사시 대웅전과 관련된 탑지의 위치를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647년 영원조사가 창건한 연천 보개산 심원사는



12개의 산내암자와 32위의 탱화, 1,609위의 불상, 탑 2기, 250간의 당우를 갖춘 대 사찰이었으나 6·25 전쟁당시 소실, 현재 천불전 건물 1동, 지장보살석상 1위, 공적비 2위, 지장보살 불상 영험비 1위, 부도 11기만 남아있다. 이중 천불전 건물과 지장보살상은 6·25 이후 이전한 철원군 동송읍 상노1리 현재의 심원사로 옮겨졌다.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정부가 편입시킨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일대 심원사지 소유토지 250만평을 되찾은 심원사 주지 도후 스님은 2002년 4월 군부대로부터 사지복원 허가를 받았다. 23억원이 투입되는 심원사지 복원불사는 2005년까지 진행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우리 절 우리 신도

서울 구로동 관법사
젊은보살들·노보살들

"성실한 신앙생활 모범"



◇기도중인 관법사 노보살들.

▧ 노보살들

'성실한 신행생활로 아랫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겠다.'

법상 법사(46), 김순례(75), 현금자(75), 오화석(70), 염연섭(70), 임혜자(69), 김영자(56), 한영숙(53) 보살(사진 왼쪽부터 시계반대방향). 60~70대가 주축을 이루는 노보살들로 구성된 일명 기도부대다.

지휘관은 오랜 수행 경험을 통해 노보살들의 기도정진을 이끌고 있는 법상 법사. 교리지도는 물론 기도법과 신행상담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도부대원들의 기도 경력들이 평균 15년 이상으로 만만치 않아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3~4시간씩 열중한다. 특히 1주일에 한번씩 관법사의 자랑인 1만8백 염주를 나누어 돌리며 지장 정근을 하며 틈나는 대로 모여 앉아 사경을 하기도 한다.

김순례 보살은 "인생을 회향하는 나이에 이렇게 기도환경이 잘 갖추어진 관법사에서 매일 도반들과 기도할 수 있어 좋다"고 즐거움을 토로한다. (02)2636-6378

▧ 젊은 보살들

'관법사의 울력은 모두 우리가 책임진다.'

김현아 총무보살(43), 민은숙 법당보살(36), 박현수 거사(37), 이미희 연꽃보살(22)<사진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30~40대의 젊은 나이로 이른바 관법사의 행동대원(?)들이다. 소임을 맡고 있는 김현아 보살은 장보기를 비롯해 재정 및 신도관리 등 모든 절살림을 진두 지휘하는 야전 사령관이다. 그 곁에 법당청소와 법기 관리 등을 하는 참모 민은숙 보살이 버티고 있다. 나이는 어리지만 틈날때마다 신도들에게 연꽃 그리기를 지도하고 있는 이미희 보살도 절의 큰 대소사가 있을때마다 한몫을 단단히 한다. 절일을 하다보면 힘쓰는 일도 필요한 법. 이럴때마다 이구동성으로 부르는 이름이 바로 박현수 거사. 행동대원들이 찾으면 언제든지 한걸음에 관법사로 달려오는 믿음직한 신도다. 김현아 보살은 "가능하면 노보살님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와서 절일에 신경쓰지 않고 기도정진에만 몰두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일기자



◇관법사의 행동대원들인 젊은 보살들.

"절집일 걱정 마세요"



추천의 말

체인 스님 관법사 주지

우리 절에서는 주로 30~40대가 주를 이루는 젊은 보살님들이 중심이 돼 법당청소와 신도 관리, 공양짓기 등 울력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 보살님들은 절에 나와 기도정진만 하지요. 똑같은 신도지만 집에서 부모님을 공양하듯 힘든일을 마다하지 않는 젊은 보살님들과 어른으로서 묵묵히 수행과 신행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모범을 보이는 노보살님들 모두 관법사의 소중한 보배들입니다.

울력, 기도 서로에게 본보기

호국의 간성 배출하는 도량으로…



◇육군 부사관학교 법당 기공식이 18일 개최됐다.

9월1일 토목공사…12월 준공
육군부사관학교 충국사 법당기공

불자 부사관 양성의 요람 호국 충국사가 새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조계종 군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는 8월 18일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 충국사(주지 정행) 법당 기공법회를 봉행했다. 불사추진위원장 도영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의 인사말과 육군부사관학교장 이병길 준장의 감사말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군불교위원회 성광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 스님 등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장 스님은 법문을 통해 "법당기공식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은 육군부사관학교장 이병길 장군의 노고에 찬탄과 경의를 표한다"며 "주지 정행법사와 신도회, 부대 장병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밝혔다.

법장 스님은 또 "육군부사관학교가 호국의 간성을 배출하는 진정한 요람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새로 지어진 법당이 금강석과 같은 신심과 불퇴전의 용기 그리고 새로운 원력을 십분 발현할 수 있는 도량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총 8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충국사 신축 법당은 350여평의 부지에 조성되며 한번에 1천명이 동시에 법회를 봉행할 수 있는 대규모 건물이다.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번 불사는 9월 1일 토목공사를 시작한다.

충국사 주지 정행 법사는 "2004년부터 부사관학교 교육인원이 연간 9천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신축 법당을 통해 3천여명의 불자 부사관을 양성할 계획"이라며 "충국사는 부사관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 함께 할 수 있는 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1백여평의 대지에 조성돼 있는 충국사 법당은 1980년 사병식당으로 건축된 건물을 1999년 개보수를 통해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천시 지붕 누수와 요사체 오수관 역류문제로 법회 봉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동혁기자

강화 선원사 무술수련생 입단식

중국 숭산 소림사 무술수련생 입단식이 8월 28일 오전 11시 강화 선원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이날 무술수련생 입단식은 선발된 초등학교 남학생 8명을 삭발하는 의식으로 치러진다.

강화선원사는 지난해 9월 중국 소림사와 무술교류 협약을 맺고, 올해 7월15일부터 향영 스님(소림사 무승)을 초청, 무술수련원을 개설했다. 김원우 기자

원흥사터 추후발굴필요 결론

직지보다 72년 앞서 고려시대 목판본을 인쇄한 원흥사터로 추정됐던 청주 산남3지구 택지개발지역 시굴조사결과 사지와 관련된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후 발굴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7월 1일부터 원흥이 방죽 일대를 시굴조사한 중앙문화재연구원은 8월 18일 원흥리 유물산포지에서 시굴조사 보고회를 갖고, 건축물 석렬이 발견됐지만 주건물지는 사업구역 밖에 있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확인된 건축물 석렬 보존상태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어서 성급한 기대를 걸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조상기 책임연구원은 "원흥사와 관련한 유물이 나오지 않았다"며 "건물지가 확인됐지만 절터인지 집터인지도 모르며 추가 발굴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했다.

한편 원흥사는 고려 충렬왕 31년(1305) 목판본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찍어낸 사찰로, 산남동 일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제18회 자원봉사 시민대학
무료수강생 모집

강 좌 명	과 정	강 의 일 시
수지침	초급	매주 토 09:30~11:30 2003. 9.20 개강
수지침	중급	매주 토 13:00~15:00 2003. 9.20 개강
원왕생	초급	매주 금 14:00~16:00 2003. 9.19 개강
불교호스피스	초급	매주 목 14:00~16:00 2003. 9.18 개강
파스요법		매주 화 14:00~16:00 2003. 9.16 개강
환경	초급	매주 화 10:00~12:00 2003. 9.18 개강

▶ 교육비 무료 ▶ 수료후 상담을 통해 희망 봉사영역 배치
▶ 봉사활동 인증제(보건복지부)실시로 각종 혜택부여

▶ 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8월 20일 ~ 9월 14일
▶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접수

■ 접수처 : 본회중앙사무국 (☎02-723-6258~9 / FAX 723-6257)
■ E-Mail : buvolcen@chollian.net

자원봉사 전문교육기관
불교자원봉사연합회
Buddhist Volunteer Association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58-1 청양빌딩[시사저널] 9층
☎ 02)723-6258~9

이세상 햇빛을 못본채 어둠속으로 스러져간 아기 넋들을 위한
제8회 타태아기령 천도사경 연합법회

이제 세상에 막 태어나려는 한 생명체가 빛도 보지 못한 채 어둠속으로 사라져 가면서 받는 살상의 충격은 아기영가에게는 큰 영적장애가 되며, 모친에게는 큰 악업이 되므로 반드시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참 평안을 위해서 천도재를 지내주어야 합니다.

기 도 일	양 월 일(음 력)	요 일	기도정전 준비물
입 제 일	양 9월3일(음 8월7일)	수 요 일	1. 장수멸죄경사경 2. 지장님 사불 3. 나무아미타불 사경 4. 광명진언(지의) 5. 신행노트 6. 극락세계유람기
1재	양 9월9일(음 8월13일)	화 요 일	
2재	양 9월16일(음 8월20일)	화 요 일	
3재	양 9월23일(음 8월27일)	화 요 일	
4재	양 9월30일(음 9월5일)	화 요 일	
5재	양 10월7일(음 9월12일)	화 요 일	
6재	양 10월14일(음 9월19일)	화 요 일	아미타경 사경 혹은 독경
49재	양 10월21일(음 9월26일)	화 요 일	
관욕준비물	비누, 수건, 아기영가옷(처음하시는 분) · 광명진언 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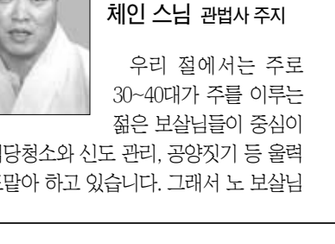
▶ 입 재 일 시 : 2003년 양 9월 3일(음 8월 7일) 오전 10시
▶ 회 향 일 시 : 2003년 양 10월 21일(음 9월 26일)
▶ 입 재 장 소 : 자원봉사자 기도도량 사천왕사 (☎02-939-3900)

■ 불교자원봉사연합회(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58-1 청양빌딩[시사저널] 9층)
■ 자원봉사자 기도도량 사천왕사(서울시 노원구 상계 6동 737 일신프라자 4층)

불교자원봉사연합회
☎ 02)723-6258, 939-3900 FAX : 723-6257, 930-0108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추석맞이 기획 선물 특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선물이기에 한번 더 생각하고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행사기간 : 2003년 8월 25일 ~ 9월 30일까지

명품 정보 마당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의 강력한 氣기 발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氣가 발산되며 정진 발원시 일념무아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 하실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 195.000원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상쾌한 숙면 건강한 하루 신비의 은행석편지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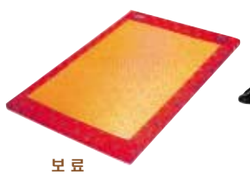
저는 북한에서온 은행석입니다. 구조상 특성과 화학적 조성과 강한 흡착 및 살균작용으로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를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약 20분이면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10분 내로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이외도 고급 난초 및 나무등도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베게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증,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 등이 예방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거와 같이 깊게 숙면을 하며 꿈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몸이 찌뿌둥하고 목이 뻐근하며 어깨가 뭉쳐있는 것도 없어지고 몸이 개운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또한 천식등 기침을 하는 분은 베게속에 은행석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멈춥니다.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희귀 광석으로 일부 고위층 인사들만 사용을 하고 있으며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며 건강하고 장수하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수험생, 수술을 받으신분, 불면증, 두통으로 고생 하시는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노약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물론 누구든지 베게속에 넣고 사용하시면 뇌에 관한 병은 걱정 없이 몸과 마음이 편안해 지며 10년운 더 건강하게 사세요.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 명화

무명장수의 베개와 방석, 온열보료의 약재는 재료배합이 각각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안마온열보료

▼ 홍화, 황정, 황백, 감초, 건강, 두충, 건지황, 인삼, 황연, 황금, 황기, 솔잎, 삼칠근, 백출, 창출 외 기타등등의 순수 한약재로 만들었습니다.



보 료



방 석

▲ 향과 약성으로 자연의 생기가 발산됨으로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 하시는 분에게 건강을 보양합니다.



◀자연의 생기가 발산됨으로 뇌를 맑게 해주고 수면중 숨속의 새벽같은 맑은 기운을 감돌게 하여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약재의 성분 효능

(태평어람, 신농본초,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등)

- 향약 성분이 인체에 흡수되어 자연 치유력을 고조시켜 주며
- 전신에 은은한 향약 향과 함께 지압효과를 주며
- 온몸 구석구석의 뭉친곳, 결린곳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며 피순환 및 기순환을 원활히 도와 줍니다.
- 잔병이 많은 어린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며
- 병든 세포가 싱싱한 세포로, 난치병의 치유기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 편안한 수면과 수면 시간이 짧더라도 충분한 피로회복 효과
- 고혈압, 중풍관리, 치매 예방

건 강 향



울향, 침향, 단향, 유향, 감송향, 사향, 육계, 안식향, 용뇌, 목향, 뢰향 외 기타등등의 최고급 순수 향약재만을 사용합니다.

약재의 성분 효능

(태평어람, 신농본초,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등)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눈이 맵거나 목이 아프지 않으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으며
- 건강에 도움을 주며
- 불쾌한 냄새제거
- 흡연실 담배 냄새제거
- 수험생들의 머리를 맑게 해 많은 도움을 줍니다.

※대리점 모집 • 영업사원 모집

문의전화 02)3210-0880

건강을 잡아라 장수 호두약돌 生命의 氣



부드러운지압용 장수호두약돌(小)



강한 지압용 장수호두약돌(大)

황토생명공학 센타에서 황토와 , 음이온, 원적외선, 氣(기)를 이온 결합시킨 장수 호두약돌을 개발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호두는 오랜 옛날부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주 절친한 손놀이 지압용으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손운동, 지압을 많이 하면 대뇌를 활성화 시켜 머리를 좋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며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손예술을 창조한다. 장수호두 약돌은 자연산 호두와 모양이 같으며 常溫(상온)에서 강력한 氣를 발산하고 건강증진과 활력 증가에 도움을 주는 음이온은 초당 2100까지 발산되며 원적외선은 0.93% 발산되며 해독성이 강한 황토가 다량 들어있는 신기한 호두석으로 손에서 놀이삼아 돌리면 손이 따뜻해지며 온몸에 생명의氣를 체험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분, 항상 피로감을 느끼는 분, 수술을 받으신 분, 연세가 많으신분 등은 휴대가 간편하므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손 운동을 하면 좋다.

가격:(소) 33.000원 (대) 38.000 문의전화: (02)3210-3179 ※목걸이와 팔찌도 판매예정임

추석맞이 기념(8월 25일 ~ 9월30일 기간동안 지니컴, 금강염주 구입시 호두 한세트를 증정합니다.

무조건 잘 되는 사업 02)3210-0880

▲ 승합 및 봉고 소유하신분 ▲ 투자금 5백만원
▲ 월수 3백만원 보장 ▲ 특수 사찰불교용품 취급사업

연꽃축제기념 행사기간 동안 전화 주시면 3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핫~이슈! 세계최초 24시간 대화하는 영어선생

영어로 말하는 로봇

뉴~ 지니컴





한번 말하는 영어가 백번 듣는 영어보다 낫다 !

스님, 불자님 영어회화 이제 걱정 끝!

로봇이 사찰에서 스님과 대화하는 뉴 지니컴

스님, 불자님께서 영어를 배우고자 해도 지리적, 환경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영어를 배우기란 참으로 어렵다. 또한 학원에서는 직접 말해볼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외국인들은 우리 불교문화를 보고 배우려고 몰려오고 있으며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사찰내 스님은 물론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필수어다. 위더스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로봇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음성 인식 기술을 응용한 말하는 영어로봇의 인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영어는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빠르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사찰에서 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는 거의 듣기위주 혹은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 위주의 CD, 테이프 등 모든 것을 동원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가장 중요한 "말하기"를 하지 못하면서 반쪽 공부에 만족해야 했는데 영어로봇 뉴지니컴의 보급으로 1:1쌍방향 대화 학습이 가능해졌다. 영어 학습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청취력" 훈련이다. 청취력을 위해서 라도 가장 중요한 영어학습 법으로 로봇 뉴지니컴이 영어로 한마디 하면 스님께서 영어로 대답해야 하고 스님께서 발음이 틀리고 화법이 틀리면 뉴지니컴은 말을 안 하든가 수정해준다. 영어에 기초가 전혀 없어도 뉴지니컴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칩만 바꾸면 누구라도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귀부터 트이지 않고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들어도 자기만의 데이터로 전환시키지 못한다. 영어로 대화하는 로봇 이름이 뉴지니컴으로 뉴지니컴은 스님께서 1:1로 재미있게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미국 친구와 같다. 영어로 말하는 뉴지니컴은 전면에 LCD창을 통해 에니메이션 동영상 영어 한글자막을 자세히 보여줘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도우며 언어 감각과 함께 문자 감각까지 동시에 키울 수 있다. 사찰에 하나만 있으면 모든 스님께서 재미있게 영어를 마스터 할 수 있다. 이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의 출시로 누구나 3개월이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 할 것이다. 신청하면 전국 어디든 받으실 수 있으며 카드분할도 할 수 있다.

"가격대비 뛰어난 학습효과"

어학연수다 조기유학이다 영어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 비싼 비용을 치르는 게 다반사인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강사가 있는 학원만 가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 그러나 지니컴만 있으면 영어공부에 돈 쓸 필요가 없다. 시간적으로도 타 방법에 비해 18배의 능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조카만도 못할 순 없지!

"Main Study Menu"에서만 30분 씨름해서 간신히 통과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쉬워 보이는 "Good morning" 발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짜리 조카가 한 번에 나이쑤 하게 넘기는 겁니다. 쇼크를 먹은 저, 그 날 이후로 좋아하는 술자리를 마다하고 하루 30분은 되든지 안 되든지 붙잡고 앉아 지니컴과 씨름했습니다. 후후 이젠 Unit. 11을 공부하고 있고 곧 윗 단계를 신청할까 합니다. - ojw

◆ 발음교정에도 그만이에요!

"hello"를 전 그냥 헬로우라고 했거든요 30분 동안 해도 지니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군요 그런데 지니가 하는 발음을 다시 자세하게 들어보니 "헤"발음을 약간 "허"처럼 하는 거 같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헐로우"라고 했더니 만세를 불러면서 다음 단계가 나오더군요 이 짜릿함! -nms

◆ 지니컴으로 콩글리쉬를 벗어났어요

저희 학교의 원어민 선생님은 지니컴을 모두 잘 넘기더군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발음을 녹음해서 집에서 그 발음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2주정도 반복 연습을 하다보니 원하는 메뉴로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니컴을 한달 사용했지만 학교의 영어회화 교수님께 발음이 꽤 좋아졌다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토종된장 발음이었거든요. - yhs

영어대화로 입을 트여줍니다

로봇과 하는 영어! "학습효과 무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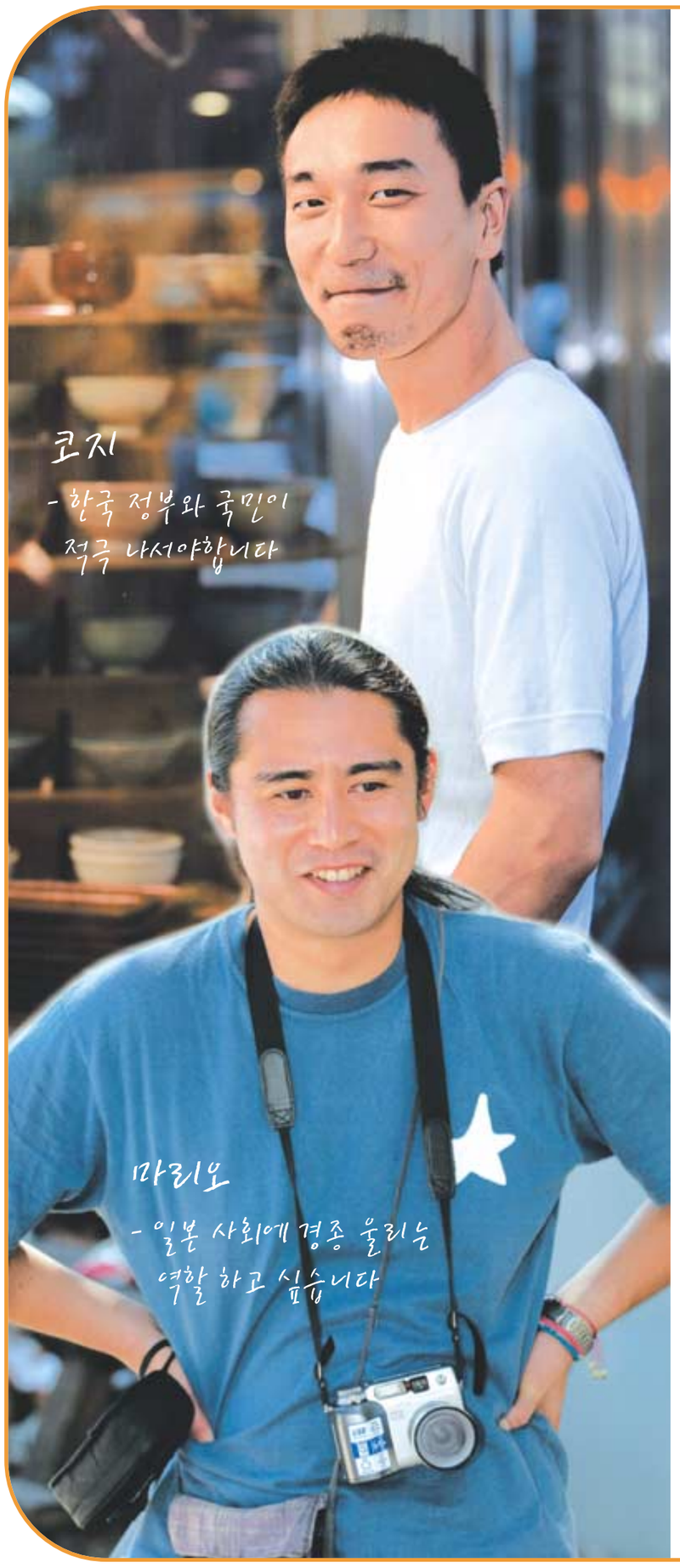
대부분 영어 학습자들은 회화학원에서 10명 가량이 함께 외국인 강사에게 하루에 1시간의 수업을 받는다. 그러나 그 60분 중에서 학습자가 실제로 '말'을 하게 되는 시간은 길어야 5분이 채 안 된다. 물론 각 개인과 방법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 5분을 기준으로 환산한다면 주 5일 수업인 경우 일주일에 25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입으로 직접 영어를 하게 된다.그런데 학습자가 '지니컴'을 이용하게 되면 상황은 뒤바뀐다.

LCD형 영어로봇 '지니컴' 몸체 전면에 설치된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한글 자막을 자세히 보여주어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돕는다.

학습 문의 전화

(02)3210~3178,9

만다라 문화원
진품 만다라 천견 · 감상
매일 오전 10시~오후 9시
02)3673-3881



"역사·국적 초월해

'나눔의 행복' 배웁니다"

(마리오&코지)



나눔의 집의 두 일본인 마리오/코지 씨

한국, 그리고 나눔의집과의 인연

인연(因緣). 사람이나 사물이 서로 맺어지는 관계.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안식처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에는 '귀한 인연'이라는 말이 제대로 어울릴법한 두 사람이 있다. 한국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일본인 '마리오'와 '코지'는 나눔의집에서 한국과 일본의 우호적인 미래를 위해 아무도 강요하지 않은 봉사를 하고 있다.

◆ "마리오라고 불러주세요"

나눔의집 식구들 사이에서 야지마 쯔카사(32) 씨는 본명이 아닌 '마리오'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예전에 유행했던 비디오게임 슈퍼마리오의 주인공을 닮은데다 두 마리오 모두 '메이드 인 저팬(made in Japan)'이기 때문이란다. 게다가 그는 나눔의집에서 슈퍼마리오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해내고 있다. 올 1월부터 나눔의집 내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본방문객 통역, 일본 시민단체와의 연계활동, 수요집회 등 나눔의집 할머니들의 활동과 일상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일까지 일인 다(多)역을 맡고 있다.

와세다대 재학시절, 그는 인도사를 전공하면서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분쟁 등 국가간 분쟁이나 갈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그에게 한국 유학생 친구들은 일본이 청산해야할 과거를 말해줬다. 졸업 후 2년 동안 아사히신문사의 사진기자로 재직하기도 했던 그는, 꾸준히 한국과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키워오다 나눔의집 연구원으로 한국을 찾게 됐다.

"나눔의집은 훌륭한 견학 교육현장입니다. 단순히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증언의 현장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 평화의 메시지 등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생생한 교육 장소입니다. 저는 나눔의집과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일본사회에 끊임없이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일본어보다 한국어가 더 익숙하다는 코지(29)씨는 한국에 온지 3년째 되던 해, 평소 좋아하던 일본인 포토 저널리스트의 통역 차 나눔의집을 처음 방문하게 됐다. 이후 1년이 넘게 "일주일의 반 이상 살다시피" 나눔의집에서 번역, 통역 일을 도와왔다.

필요한 자금을 현지에서 조달해가며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꿈이었던 그는 전문대를 졸업하자마자 호주로 향한다. 호주 멜버른에서 10개월을 체류하는 동안 야지마씨처럼 그도 주변 한국인 친구들을 통해 한·일 양국의 비극적인 역사를 처음 알게 됐다. 한국인 친구가 열을 내가며 일본을 비판할 때 아는 것이 없어 대꾸할 수 없는 게 화가 나 역사책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았던 역사를 스스로 배워가다, 98년 한국에 왔다.

코지씨는 나눔의집 할머니들을 '특별하게' 대해 본적이 한번도 없단다. 위안부의 아픈 기억을 안고 있는 할머니들을 대하기란 같은 한국 사람에게조차 조심스러운데 그는 "할머니들이 마냥 편안하고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좋아 나눔의집을 찾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나눔의집에서 하는 일들이 '자원봉사'라고 생각해 본적이 한번도 없다며 쑥스러워했다.

"이곳 할머니들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병상에 계신 친할머니께 소홀했던 것, 부모님께 잘 하지 못한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됐죠. 지난 6월 친할머니 상으로 일본에 잠시 돌아갔을 때 태어나서 처음 부모님의 어깨를 주물러 봤습니다."

나눔의집을 찾게 된 배경이나 계기가 다른 그들이지만 "할머니들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이라고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모은다. 최근 나눔의집 할머니들을 포함한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들의 국적포기 문제로 떠들썩한 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두 사람은 "한국정부의 관심과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 서로에게 훌륭한 선생님

코지씨는 야지마씨를 사진 스승으로, 야지마씨는 코지씨를 한국어 스승으로 부른다. 야지마씨는 코지씨를 "통·번역 실력을 두루 갖춘 나의 한국어 선생님"이라며 "나눔의집을 오랫동안 꾸준히 방문해 봉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했다.

코지씨는 사진에 관심 있는 자신에게 "사진기자 출신인 야지마씨는 훌륭한 선생님"이라 부르며 "위안부 문제 뿐 아니라 갈등해소나 평화 등에 대해 뚜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국이라는 가깝고도 낯선 땅에서 나눔의집 사람들과 서로를 인연 맺게 된 야지마씨와 코지씨는 "언제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인연이 닿는 데까지, 할머니가 한분이라도 살아계시는 날까지 나눔의집과 함께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광주=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신개발 玉 佛 (옥불)

천연 옥을 이용, 압축 성형하는 최첨단 공법으로 기존 옥불 보다 더욱 정교하고 정밀하며 가격 면에서도 월등히 저렴합니다.

옥 불상 조성 불사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 종류 : 석가, 관세음, 지장, 약사불 외 각종 옥불 가능 ■ 크기 : 7인치, 9인치 ■ 108불, 500불, 1,000불, 3,000불, 10,000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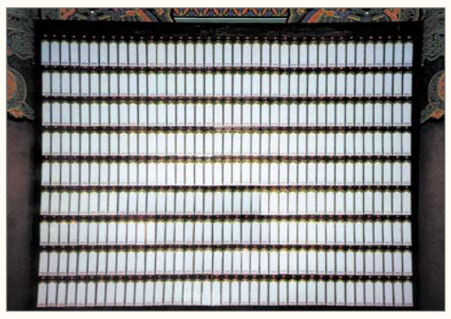
정심원 옥불의 좋은점
1. 변색이 전혀 없어 장기간 깨끗하고 미려합니다.
2. 옥에서 기(氣)가 발생하여 건강에 좋습니다.
3. 개금할 필요가 없어 차후 금전 부담이 없습니다.
4. 금이 가거나 깨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5. 법당 내부나 외부에도 모실 수 있습니다.
6. 동불이나 특수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합니다.
7. 화재시 타거나 변색이 전혀 없습니다.

영가위패단



孝·정성·사랑을 담은 간절한 서원을 올립니다.

의 장 등 록 제 20819호
실용신안출원 제 15466호



영가위패의 좋은 점
1. 혁신적인 기술로 최첨단 직류전원장치를 사용하여 화재 및 감전의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2. 자석과 특수가공 철판을 사용하여 탈,부착이 용이하며 수정아크릴을 사용하여 장기간 사용하여도 변색되지 않고 깨끗합니다.
3. 위패 한위 한위마다 연화문양을 조각하였고, 상단에는 닫집 문양을 넣어 현대감각과 불교미술적 조화로콤팩트하고 장엄합니다.
4. 장소를 적게 차지하여 같은 장소에 많은 영가를 모실 수 있습니다.
5. 특수 반도체 전구를 사용하여 반영구적이며 전기료도 거의 들어가지 않아 경제적입니다.
6. 위패 한위 한위마다 인등처럼 불을 밝혀 미려하고 장엄합니다.

인 등



안전하며, 편리하고, 디자인까지 완벽한 정심원 인등

- 일반 인등 - 석가, 관세음, 지장, 연꽃, 산신, 호롱
- 호박 인등 - 산신, 연꽃
- 크리스탈 - 연꽃
- 특수인등 - 삼존불, 주존불
- 특수 반도체 전구 인등 - 지장, 관세음, 석가

저희 정심원 제품은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는 불필요한 유통을 줄이고자 불교용품점에 일체 납품하지 않고 사찰에 직접 보급합니다.

영가위패 · 인등 · 옥불 전문
正 心 院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21번지
전화 031)916-0310 핸드폰 011-724-0455

바라밀현장 '금강메아리' 대부도 '둥지 청소년의 집' 봉사

행복의 울림 전하고 싶어요



◇대청소를 끝낸 한강메아리 회원들이 빨래를 널고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서원가로 부처님 마음 내세요

탑주심인당 중창단 매달 음성공양



◇경찰 불자들이 법회전 종암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서원가를 배우고 있다.

메아리는 산과 사람이 교감을 이루는 소리다. 산을 통해 사람을 배우고, 사람을 통해 산을 배우는 서울불교산악회 회원들은 그 아름다운 울림을 기억하며 산다. 또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드는 소리이기에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금강 메아리가 되기로 했다.

서울불교산악회 '금강 메아리'(회장 공형수)가 그 단단한 울림을 세상 곳곳에 전하기 위해 나섰다. 8월 17일~8월 17일 오전 8시. 서울 동대문 옆에 대기하고 있는 관광버스 앞으로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든다. 무슨 큰일을 하겠다는 건지, 색색의 양말박스서부터 멸치 박스에 이르기까지 양손에 쥐고 오는 짐도 다양하다.

"둥지집으로 출발해요. 갈 길이 바쁘니 어서 올라타요."

격주로 전국의 명산을 찾는 금강메아리 회원들이 이날 찾아간 곳은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 있는 자현사 내 '둥지 청소년의 집'. 오갈 데 없는 아이들 60여명이 크는 부처님의 둥지다. 금강메아리는 2년 전 불교환경연대와 함께 이곳을 다녀갔다. 그러나 이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다가, 십시일반으로 거둔 성금 100만원과 뜻대로

60여명 '둥지가족' 위해 성금, 생활용품 십시일반 준비 산 오르며 키운 팀웍으로 일 척척

준비한 생활용품을 들고 다시 찾게 됐다. 휴일 하루를 '둥지 점검'에 온전히 반납하려는 서원도 세웠다.

마침 아이들이 놀이동산으로 소풍을 떠나고 없어 대청소를 하기로 했다. 숨은 봉사는 그들에게 이미 익숙한 일. 산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삼림훼손사업에 반대했으며, 틈날 때마다 환경과 관련된 언론 모니터링 봉사를 한 그들이다.

그렇게 자연을 보살피는 것이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아끼는 길이고 그게 바로 불법실천임을 새삼 깨닫게 됐다. 부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마다 환희심이 일었다. 그렇게 넉넉해진 마음으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떠날 수 있었다.

"거사님들은 20개 방청소와 화장실 소독을 담당하고, 보살님들은 빨래 세탁과 불편한 아기들 목욕을 맡아줘요."

김대원 사무총장(60)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원들이 곳곳으로 흩어진다. 마침 동산불교대학 청년회 회원들이 봉사를 나와 대규모 봉사단이 결성됐다. 일사불란한 움직임속에서 척척 맞아떨어지는 호흡. 험한 산을 오르며 키운 팀웍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려움이 없다고 공형수 회장(60)이 귀띔한다.

"귀감이 되는 신행단체가 되고 싶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났다 흩어지는 친목단체에 머무르지 않고,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금강메아리가 되려고 합니다."

김대원 씨의 말이 빈말처럼 들리지 않는다. 산과 들을 진정으로 대하는 마음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또한 음지의 식구들을 보듬어 온 그들이기 때문이다.

봉사를 끝내고 둥지를 떠나는 회원들을 뒤로 하고 작은 차 한대가 그곳에 도착했다. 오늘부터 이곳에 둥지를 틀 갓난아기인 모양이다. 포대기에 싸인 아기를 대하는 회원들은 한동안 말이 없다. 이름모를 들풀이 피워올린 들꽃들을 바라볼 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봉사하며 살아야해."

김경철 회원의 한 마디에 모두들 새로운 다짐을 한다.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다. 할 수 없을 지라도 해야할 것이 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옴마니반메훔을 백 번 천 번 외는 것보다 서원가(찬불가)를 한 번 부르는 것이 부처님 마음을 내는 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월 18일 오후 6시 종암경찰서 법우회 법회 현장. 매달 한 번 종암경찰서 법회 진행을 돕고 있는 진각종 탑주심인당 신도 신은희 보살(41)은 음성공양의 의미를 특별히 강조했다.

3년째 서울 종암경찰서 법회도우미

이날도 신은희보살은 법회가 시작되기 전에 키보드 및 음향장비를 설치하고 서원가 책자를 법우 수에 맞게 준비했다. 노래를 부르는 것과 염불을 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신씨는 "가사를 생각하며 일념으로 노래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했다.

진각종의 '탑주심인당 중창단'을 이끌던 신씨가 종암경찰서에서 서원가를 가르친 것은 벌써 3년째. 대학에서 기악을 전공한 이점을 살려 "배운 만큼 베풀겠다"는 서원을 세웠고, 우연한 기회에 종암경찰서 법회 진행을 맡아 뜻을 이루게 됐다.

종암경찰서 법우회 이재탑 회장(41)은 "한 마음으로 법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서원가 교육이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며 "가끔은 클라리넷, 바이올린 등의 연주도 곁들이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준다"고 말했다.

종암경찰서 법우회는 10여년의 전통을 이어온 불자신행모임으로, 매달 셋째주 월요일 6시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정기법회를 연다. 이와 함께 매년 추계 등산대회를 기획해 친목을 도모하기도 한다. 오는 9월 26일에는 '탑주심인당 중창단' 회원들과 함께 설악산 봉정암 등반에 나설 계획이다. 강신재 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툽텐 최된 (下)

여성 불자들 권익 옹호에 앞장

10여년 전부터 아시아와 서구의 비구니 스님들은 승단에서 비구니들의 위상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모임을 갖곤 했다. 1996년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열린 '서구 비구니의 삶(Life As a Westem Buddhist Nun)' 회의에서, 달라이 라마는 비구니계 수계(비구니 계맥이 있는 곳은 한국과 대만이 유일하다) 등 계율 및 의식 문제, 투표권, 수행처 확보 및 교육 문제 등 비구니들의 이러한 노력을 지지했다. 비구니 스님들은 달라이 라마로부터 비구니 계율에 대한 집중적인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수행과 삶에 대해 토론했으며, 불교국가별로 계율과 전통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달라이라마의 제자인 툽텐 최된 스님.

툽텐 최된(Thubten chodron, 미국명 Cherry Green) 스님의 저서 <진리의 꽃들-비구니의 삶(Blossoms of the Dharma: Living as a Buddhist Nun)>에서는 세계 비구니 승단의 현황과 과제, 비구니들의 일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

"비구니로서, 여러분들은 불교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우주의 보편적인 원리를 실현시키는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합이 증명했듯이, 불교 여성들이 낡은 구습의 속박을 벗어던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감격적입니다."

최된 스님은 티베트 불교의 겔룩파(Gelukpa)에 속하는 단체인 FPMT(Foundation for the Preservation of the Mahayana Tradition, 대승불교보전재단)의 여성 최고지도자이다. 그가 최근 몰두하고 있는 불사는 남, 여 수행자들이 티베트 불교에 대한 공부와 수행, 수계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쉬라바스티(Sravasti) 사원들을 미국 등에 건립하는 일이다. 달라이 라마는 이 불사의 모연문을 통해 친히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최근 수년간 유럽과 미국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사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니 툽텐 최된 스님은 서구의 사원들이 우리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수행하는 안정적인 여건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여러 불자들과 마찬가지로 최된 스님을 후원하고 격려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응용할 것을 강조해 온 최된 스님은 그러한 방법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법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녀의 따뜻함과 유머, 명료한 가르침은 많은 저서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열린 가슴, 맑은 마음(Open Heart, Clear Mind)> <입문자를 위한 불교(Buddhism for Beginners)> <화날 때 일하기(Working with Anger)> <원숭이 마음 길들이기(Taming the Monkey Mind)> <진리의 꽃들-비구니의 삶(Blossoms of the Dharma: Living as a Buddhist Nun)> 등이 문서포교를 통해 널리 알려진 저서들이다.

쉬라바스티 사원 건립 불사에 몰두 명료한 가르침 저서 통해 널리 알려져

최된 스님은 오늘도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의 권익 옹호에 앞장서는 한편, 자신과 제자들의 정진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기도와 수행은 모든 고통로부터 벗어나는 해탈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깨달음을 얻으려는 대신심, 사물의 진실을 알려는 지혜 등 높은 차원의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승화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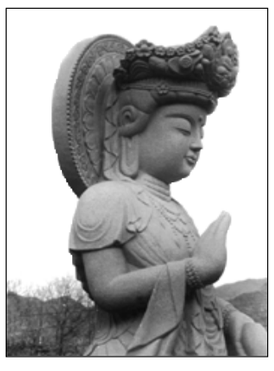
김재경 기자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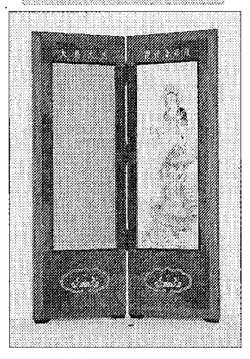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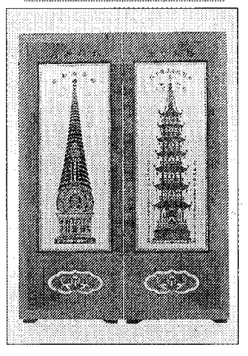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집안의 어느장소이든 펼쳐만 놓으시면 그앞이 법력(法力)과 법기(法氣)로 충만된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되는……"

관음(觀音)병풍 과 불탑(佛塔)다라니병풍

▣ 관음병풍 ▣ 불탑다라니병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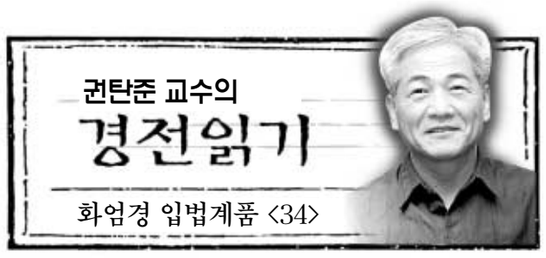



규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보급가 : ₩1,300,000(한품당)
<신용카드할부구입가능)
※카다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특 징
① 집안내의 어는 장소이든 구애 받음이 없이 펼쳐 놓을수 있으며, 어느 공간이든 본 병품을 펼쳐 놓으면, 그곳이 법력과 법기로 가득찬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됩니다.
②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 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백의관세음 보살님은 황동판위에 모시어 훼손 될 염려가 전혀 없으며, 불탑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은 황동 판위에 양각으로 새겨서 금도금을 한후 표면에 특수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등이 묻었을 때에는 고운 융걸레로 닦으시면 됩니다.
③ 불자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손손 물려주실수 있는 성품(聖品)입니다

⊙ 카다로그를 보실때보다 본 병풍을 직접보신 불자님들은 모든분이 한결같이 환희심을 내시어 집안에 모셔가겠다고 마음을 내실 정도의 성품이므로 본회에서도 직접보여드릴방법을 강구하고 있아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음병풍과 불탑다라니 병풍은 그효험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연따라 마음에 닿는 한 병풍만 택하시면 됩니다.
⊙ 현재 큰스님방에 펼쳐놓으시도록 시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집과 분가한 자녀들의 집에 한품씩 놔 주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법보계장자의 법문

10층 8문은 보살 나아갈 길 상징
흔들림없는 원력으로 중생교화

명지거사로부터 '뜻대로 복덕을 내는 광해탈문[隨意福德藏解脫門]'의 법문을 듣고 선재동자는 더욱 복덕의 바다에 헤엄치고 복덕의 광을 열어 복덕의 세력을 늘리려 노력하였다. 그러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남쪽의 사자궁성(師子宮城)으로 가서 법보계 장자를 찾아 보았다.

시장 가운데에 있는 그를 발견하고 엎드려 절하며 보살도를 설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장자는 선재동자를 자기가 거처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의 집을 가리키며 '선남자여, 내 집을 보라'고 말하였다. 그 집을 보니 청정하고 광명이 찬란하며 진금(眞金)으로 되었는데, 온갖 보배로 장엄되어 있었다. 그 집은 열 층에 여덟 문이 있었다.

선재동자는 그 집에 들어가 차례로 살펴보았다. 맨 아래층에서는 음식을 보시하고, 2층에서는 보배 옷을 보시하고, 3층에서는 모든 보배 장식물을 보시하고, 4층에서는 여러 시중드는 사람과 보물을 보시하였다. 5층에서는 제5지 보살이 법을 연설하며 세간을 이익케 하여 삼매의 행과 지혜의 광명 등을 성취하였다. 6층에서는 모든 보살이 매우 깊은 지혜를 이루어 법성(法性)을 통달해 무량한 반야바라밀다문을 분별했다. 7층에서는 보살들이 방편 지혜로써 분별 관찰하며 온갖 얽매임에서 벗어났으며, 모든 부처님의 정법을 바르게 이해하였다. 8층에서는 한량없는 보살들이 모였는데, 모두 신통을 얻어서 작용이 자재했다. 9층에는 일생보처 보살들이 모였다. 10층에는 모든 여래가 충만해 있는데, 큰 서원과 신통을 이루어 대중을 청정하게 하며 바른 법륜을 굴리어 중생을 조복시켰다. 장자는 이러한 여러 가지 광경을 모두 분명히 보게 하였다.

이와 같이 선재동자가 보살도를 설해주기를 청하였는데, 법보계장자는 아무런 설법을 하지 않고 그를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집을 보여줄 뿐이었다. 법보계장자는 자기의 집을 보여줌으로써 보살이 닦아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그 집은 온갖 보배로 이루어진 10층 8문의 집이었는데, 그 집은 여러 가지 수행 공덕의 과보로써 이루어졌다.

집이 청정한 광명이 나는 진금(眞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보살행의 본질이 청정무구하기 때문에 그 과보로 성취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집의 여러 가지 장엄도 각각 단계적으로 10바라밀을 닦아서 갖추게 된 공덕을 상징하는 것이다. 10층의 집도 또한 10바라밀을 아래로부터 위로 행하도록 배열하여 차례대로 닦아 나아감을 나타낸다. 집이 8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팔정도(八正道) 또는 사섭법 · 사무량심의 수행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하여 법보계장자는 보살도라는 것은 팔정도 또는 사섭법 · 사무량심으로써 10바라밀을 단계적으로 닦아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집의 각 층에서 보는 광경이 다른 것은 보살도가 빈궁한 사람에게 의식주를 갖추어 주는 것에서부터 정신세계와 인격 활동을 점점 향상시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보계장자가 머무르고 있는 성의 명칭이 사자궁인 것은 보살도가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거나 굴하지 않고 용맹하게 행하여짐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의 명호가 법보계인 것은 장자가 행하는 모든 수행이 어디에도 구애됨이 없이 자유자재한 선정(禪定)의 경지에서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선정이 10바라밀과 8정도 또는 사섭법 · 사무량심 등의 수행을 총괄하여 법(法)의 정상(頂上)이 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법보계장자는 이와 같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림이 없는 선정의 경지에서 살아가므로 시장 속에 몸을 담고 중생을 교화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법보계장자의 집을 보고 나서 선재동자는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청정한 대중이 모였으며 어떤 선근을 심어서 이러한 과보를 얻었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서 장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선남자여, 과거 티끌 수 겁 전에 '무변광명법계보장엄왕 여래'가 계셨는데, 그 부처님이 성에 들어오실 적에 내가 음악을 연주하고 한 개의 향을 사루어 공양하였다. 그 공덕으로 세 곳에 회향하여 모든 빈궁과 어려움을 영원히 여의고, 부처님과 선지식을 항상 뵈오며, 바른 법을 들었으므로 이 과보를 얻었다."

여기에서 법보계장자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선재동자가 보고 있는 10층 8문의 훌륭한 집은 과거세에 여래를 공양한 선근을 세 곳에 회향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결국 모든 빈궁과 어려움을 영원히 없게 하고, 부처님과 선지식을 항상 뵈오며, 정법을 항상 듣기를 원함으로써 10바라밀을 만족하여 장자가 살고 있는 10층 8문의 장엄스러운 집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수행의 바탕이 되는 선정의 마음이 구체적으로는 세 곳으로 회향하려는 흔들림 없는 원심(願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선의 세계 ⑦

직지인심-6

부처와 중생이 '하나'인 도리는?

모든 중생이 이미 다 부처님이라는 것이 선종의 대전제라는 이야기를 했다. 중생과 부처는 원래 반대말인데 어찌하여 중생과 부처가 같다는 걸까? 중생이 곧 부처요 윤회가 곧 열반이라는 이야기는 대승불교에서 오래 전부터 해왔다. 모든 것의 본래 정체는 다 텅 비었다고 하는 공도리(空道理)를 바탕으로 한 이른바 불이(不二) 법문에서는 모든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실상은 다 같다고 말한다. 더 온전하게 말하자면, 불일불이(不一不二) 또는 불일불이(不一不異), 즉 하나(같지)도 아니요 둘(다르지)도 아니라고 한다. 같지 않다는 쪽은 일단 너무나 당연하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같지 않다는 쪽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니, 불일(不一) 쪽은 언급조차 별로 하지 않는다. '불일불이법문'이라 하지 않고 '불이법문'라 일컫는 것도 아마도 그래서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불이법문에 관해서는 다음 회의 글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모든 중생이 이미 다 부처'라는 선종의 대전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성(佛性)이라는 교리 개념과 연관시키는 것이 편리하다. 불성은 원래 붓다다투(Buddha-dhatu)라는 인도 말을 번역한 것인데, '다투'라는 말은 대개 계(界)라고 번역되곤 했으니, '붓다다투'는 불계(佛界)라고 번역할 만도 한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불성이라고 번역되었다. 복잡한 사정과 뜻이 있겠지만, 다 젖혀두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끌어가자. 교리 개념 하나 하나의 복잡한 사정을 샅샅이 파헤치는 데 전념하는 전문학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단순화시켜 이야기하는 것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아무튼, 불성이라고 해놓고 보니 부처의 성품이라는 뜻이 되었고 우리도 이해할 만한 개념이 되었다. 그러니까 〈열반경〉에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이라 한 것은 모든 생명체에게는 부처의 성품, 부처로서의 성질이 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었다. 그렇지 않겠는가? 중생과 부처라는 말의 용법을 보자면 부처가 아닌 뭇 생명을 중생이라 하고 중생 중에서 진리를 깨쳐 해탈한 이를 부처라고 한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함은 곧 누구나 부처가 될 소양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순조롭다.

이른바 여래장(如來藏)이라는 개념도 이와 관련이 있다. 중생에게는 여래, 즉 부처로서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가려지고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장(藏)이라는 말이 감추어져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무엇이 그것을 가리고 있는가? 무명(無明), 즉 중생의 어리석음이 자신의 불성을 가려서 그것이 드러나고 발휘되지 못하게 한다. 그 대신에 이를테면 중생성만 발휘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좀 달리 말하자면 모든 중생이 다 부처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어리석음 때문에 부처로서 살지 못하고 중생으로 살고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니까 어리석음만 뺀다면 모든 중생이 이미 다 부처라는 것도 말이 된다.

그러나 선종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모든 중생이 더도 덜도 없이 이미 다 부처라고 선언한다. 어리석음을 쓸어내야만 부처가 된다고 보는 것이, 즉 불성을 부처가 될 가능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순조로울 텐데, 어째서 어리석음이라는 요소는 무시해버리는 것일까? 다음 회에서는 위에 잠깐 언급한 불이법문, 또한 본각(本覺)이라는 개념과 연관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로 한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10〉



샴 쌍둥이

요즈음 샴쌍둥이에 대한 이야기가 일희일비(一喜一悲)하며 뉴스를 타고 있다. 일란성 쌍생아로 태어나는 과정 중에 완전한 분리가 되지 않아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러한 형태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서도 발견된다.

생물계는 수학이나 물리적 반응과 같이 명확하게 정오(正誤)나 흑백으로 나뉘지 않는다. 생물에서 최종 결과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치밀한 반응이 실수 없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중간에 잘못될 확률이 비교적 높다. 또한 몸 안의 항체(抗體) 형성 과정에서 관찰되듯이 그 과정이 오히려 정확하지 않고 유동성(flexibility)이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완전분리 안된 일란성 쌍생아 추정
과학,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수단이어야

이렇듯 생물 반응에서 예상하지 못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여유를 지닌 유동성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생물체의 다양성을 이루는데 기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다양한 항체를 형성해 수많은 외래 침입자에 대하여 특이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기에 우리 주위에는 많은 분들이 일반적이지 못한 모양으로 태어나게 되는 경우가 보이고, 샴쌍생아의 경우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특히 이는 생명의 발현이란 개체성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임에 반해 그러한 개체성이 완전하지 못한 채 태어났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끌게 된다.

과거로부터 이들을 한사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둘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이번 이란 샴쌍둥이의 경우 그들은 스스로 각각의 독립된 개체이기를 원했다. 또 과거 영국의 경우에서는 한쪽을 살리기 위한 분리 수술을 거부하고 이미 숨진 다른 한쪽을 따라 남은 한쪽이 숨을 거둔 예도 있다. 물론 이란의 샴쌍생아의 경우 수술 중 숨을 거두었지만, 이러한 모습을 통해 샴쌍둥이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혹은 수술을 해야 하느냐 안해야 되느냐 등의 논란은 그다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모양새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당당하게 삶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주인 됨을 의미한다. 이란의 샴쌍둥이의 경우에서처럼 외형적인 모습이 어떠하건 생사를 눈앞에 두고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들의 모습에 경건함마저 느끼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무릇 형상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것에 집착 말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기를 말씀하신다. 이번의 이란 샴쌍둥이야말로 그들이 받은 형상을 통해 스스로 주인 됨을 금생에 공부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이 과정에서 의학이 비록 실패는 하였지만 그들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활용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다시 한번 모든 상황의 주인은 사람이며, 과학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 2003년도 2학기(10기생)

종무행정 고위자 과정생 모집

1. **수업시간** : 불기 2547년(2003년) 9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2. **강의요일 및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 5시까지 (3시간 30분)
3. **모집인원** : 30명 4. **수 강 료** : 40만원(입금계좌 : 국민은행 016-24-0629-134 이우범)
5. **접수기간** : 9월 8일까지 ※ 전화접수 가능
6. **문 의 처** : 서울 성북구 삼선동 2가 389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과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하차 마을버스 5분 간격 정문도착)
교학과 전화 : 02-760-4401. 4003 / FAX : 02-760-4002

※ **2년 전과정 수료생에게는 한성대학교 총장, 1학기 과정 수료생에게는 사회교육원 원장 명의의 종무행정 고위자 과정 수료증을 드립니다.**

– 종무행정 고위자 과정 개설과목 –

교 육 내 용	요일 및 시간	교육기간	교 수 진
컴퓨터 교육 · 문서작성 기초부터 문서작성과 인터넷 활용법까지 (컴퓨터 1인 1대 실기위주)	매주 목요일 1교시 오후 1시 30분 ~ 3시	2학기 15주 30시간	한완상 총장 이우범 원장 황진수 교수 최용식 교수 김의식 교수 김세종 교수 이용윤 강사 이천복 강사 최미순 강사 강희종 강사 채지원 강사 우순희 강사 (※ 과정에 따라 강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명학(작명법) · 명리학 · 풍수지리학 · 불교미술 불교와 사회와의 연관성 강의, 승려복지, 불교미술, 임상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향기치료 성명학 · 명리학 · 풍수지리학 등 사회계층관련 심층강의	매주 목요일 2교시(A) 오후 3시 20분 ~ 4시 50분	2학기 15주 15시간	
종무행정과 정보 · 재산관리 종무행정의 이론과 실제, 부동산관련법 해설, 금융자산의 활용, 정보관리 등 심층강의	매주 목요일 2교시(B) 오후 3시 20분 ~ 4시 50분	2학기 15주 15시간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

현정 스님의 우리말 염불참선

그리움의 노래

그리움의 노래 3,692글자 + 선근인연연가 824글자 + 부모은중가 996글자 + 불전참회가 623글자 + 회향산회가 752글자를 모두 합해 6,887글자로 한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분당 125글자를 염불했습니다. 55분 동안 장엄하고 아름다운 염불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한권의 책 6,887글자는 모두 염불테이프에 녹음되었습니다. 그리움의 노래는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법문! 이와 같이 신명나는 염불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이 법을 전하세요 /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

- **앞면 : 그리움의 노래 –**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처의 세계가 어떤곳인가를 알게하고 염불참선의 진미를 들려줍니다.
- **뒷면 : (1)선근인연가 –** 민족과 국가의 인연에서부터 고향. 이웃 가족의 인연이 맺어지기까지 인연의 고리를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2)부모은중가 – 부모! 오늘의 우리들은 그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식이면 눈물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절절한 은혜의 노래
(3)불전참회가 – 참회.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노래합니다.
(4)회향산회가 – 참아라! 참아라! 그리고 또 참아라! 부처님은 왜 우리들에게 그토록 인욕을 당부하셨을까요? 들어보면 알게됩니다.
- **책+테이프 = 5천원 / 입금온라인 : 우체국 501023-01-000379(금산정사)**

※ 단체주문환영. 법보시 하실 분은 주소 알려주시면 직접 우송

신청전화 (061)843-8822 **금 산 정 사**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34화)

"있는 그대로 봐라"

〈출전 : 장아함경 제8;중집경;1-50중〉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영생과 살인

거짓된 가르침 따르지 말라

또 종교 이야기가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다. 21세기는 정말 종교의 시대인가 보다.

'세계연합 승리제단'이라는 이름의 종교단체의 교주가 사람을 죽이도록 시키고 암매장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영생교'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이들은 '감로이슬성신'이라는 현상을 자신들의 합리화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사람을 잘 살게 하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텐데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들을 종교인이라고 해야 할지 선재는 당혹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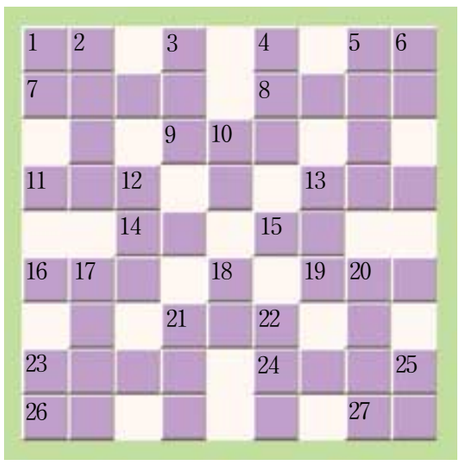
선재는 무엇이 바른 믿음이고 무엇이 미신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경전에서는 다섯 가지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며 바른 믿음을 가질 것을 당부한다. '자아에 집착하는 견해', '극단적인 것을 고집하는 견해', '인과의 도리를 부정하는 견해', '잘못된 것을 진실이라고 여기는 견해', '잘못된 계율을 바른 것으로 집착하는 견해'에 빠지면 길을 잃고 헤매는 꼴이다. 미혹(迷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다.

〈숫타니파타〉에서도 "상서로운 점이나 천변지이(天變地異)의 점이나 꿈 점이나 관상을 잘 본다 해도 안된다. 길흉의 판단을 버린 수행자만이 세상에서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실체도 알 수 없는 '이슬 사진'을 보고 교주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었을까? 그의 말을 따라 자신들은 영생을 얻을지 몰라도 죽어간 사람들은 이생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했다.

온갖 종교들이 넘쳐나는 시대, 선재는 〈출요경〉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 "수많은 외도들이 거짓된 진리를 닦으면서 한적한 곳을 택하여 밤낮으로 고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까마귀나 솔개 같은 새들을 섬기기도 하고 노루나 사슴, 뱀 따위를 섬기면서 진실한 도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한 도가 아니며 세상에 필요한 도도 아니다. 진리는 바로 사성제이며 이를 통해 열반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사성제가 제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상식퍼즐



〈435호 「교리퍼즐」 정답〉

운	문		수		대		제	기
무	명	세	계		장	좌	불	와
	비		식	후	경		여	
태	평	가		생		서	래	의
		호	명		장	편		
흡	인	력		더		제	과	점
	과		무	위	사		거	
대	응	방	안		오	욕	칠	정
오	보		인		정		불	성

가로

1. 가지런히 바로잡음 5. 바다에서 자라는 풀의 총칭 7. 크게 깨달아 잘못을 뉘우침 8. 모든 법의 본질과 작용을 상대시키는 것 9. 온갖 번뇌를 참아서 흔들림이 없는 경지 11. 식수 등으로 쓰기위해 수도관 등으로 급수하는 시설 13. 환송을 위한 모임 14. 약재로 쓰이는 풀 15. 다른 사람이 행한 선을 좇아 함께 기뻐하는 것 16. 정상이 아님 19. 일시에 함께 생기는 것 21. 관리의 이동 임명 등에 관한 세간의 평가 23. 관여해야 할 일을 그대로 버려 둠 24. 조실 방장 등 선원의 어른이 법당강단에 올라가 설하는 법문 26. 의식 행사 등을 미리 해 보는 것 27. 한 해를 날씨에 따라 나눈 그 한철.

세로

1. 바르고 옳아서 사사로움이 없음 2. 몰록 깨닫고 점차 닦아 나감 3. 지성을 갖춘 사람 4. 일체의 것을 아는 지혜 5. 해상에서 배로 하는 운송 6. 남을 청하여 대접함 10. 탐내는 마음 12. 진보 발전의 단계로 접어든 상황 13. 부처님이 기뻐하는 날 곧 7월 15일 안거를 마치는 날 17. 정각을 이루기 위해 정진하고 수행하는 것 18. 잘 달리는 좋은 말 20. 시방의 모든 세계 21. 관을 무덤의 구덩이에 내려놓을 때 네 귀에 거는 베 22. 평소 있는 그대로의 마음 23. 손으로 하는 기예 25. 뜻을 지닌 최소 단위로 문장을 나눈 것.

SALE

여시아문 개점 9주년!

※ 행사기간 : 2003년 8월 10일 ~ 9월 7일까지 ※ 한정수량이므로 조기에 품절 될 수도 있습니다.
※ 도서할인판매 10~30% ※ 우리출판사, 고요아침출판사 도서는 ON-LINE 에서만 할인가능.

	도 서 명	저 자	정 가	할인가
	민족사			
1	중국선종의성립사연구	정성본	30,000	21,000
2	한국승전문학의연구	김승호	8,500	6,800
3	인도의이원론과불교	정승석	8,000	6,400
4	무아,윤회문제연구(1)	윤호진	9,000	7,200
5	신라초기불교사연구	신종원	15,000	10,500
6	의상화엄사상사연구	전해주	8,500	6,800
7	불교사상사론	김영태	25,000	17,500
8	대승기신론사상연구	박태원	8,500	6,800
9	한국불교고전명저의세계	김영태	14,000	9,800
10	신라불교사상사연구	김영미	14,000	9,800
11	진정국사화호산록	허홍식	15,000	10,500
12	삼국사기전거론	이강림	15,000	10,500
13	신라불교여래장사상연구	이평래	15,000	10,500
14	한국근대불교사연구	김광식	19,000	13,300
15	원효의화쟁논리	사토시게키	23,000	16,100
16	고려사원의구조와기능	한기문	27,000	18,900
17	한국불교사상의전개	한종만	18,000	12,600
18	화엄경사상연구	이도업	28,000	19,600
19	한국근대불교의현실인식	김광식	15,000	10,500
20	도선연구	김지관	18,000	12,600
21	고려말나옹의선사상연구	김효환	12,000	8,400
22	신라보살계사상사연구	최원식	13,000	9,100
23	원효연구	김상현	17,000	11,900
24	중론연구	박인성	18,000	12,600
25	근현대불교의재조명	김광식	25,000	17,500
26	주자의선불교비판연구	윤혜정	20,000	14,000
27	신라표원의화엄학	황규찬	20,000	14,000
28	인도철학과불교의실천사상	정태혁	35,000	24,500
29	불전해설사전	정승석	17,000	11,900
30	산스끄리트기기초와실천	스가누마아키라	7,500	6,000
31	티베트어의기초와실천	허일범	4,500	3,600
32	금강경전서	무비스님	25,000	17,500
33	일본불교사	이영자	6,500	5,200
34	티베트불교사	안영길	5,500	4,400
35	중국불교사상사	카무라키요타카	6,000	4,800
36	초기부파불교의역사	허일범	6,000	4,800
37	선의사상과역사	무비스님	6,000	4,800
38	천태법화의사상	이영자	5,500	4,400
39	인도불교철학	안영길	5,000	4,000
40	중국불교의사상	카무라키요타카	5,500	4,400
41	초기대승불교의종교생활	히라가와이키라	6,500	5,200
42	인식과초월(유식의철학)	핫토리마사아키	5,500	4,400
43	중국불교(상)	KS.케네스첸	5,500	4,400
44	중국불교(하)	KS.케네스첸	6,000	4,800
45	밀교의역사와문화	요리토미토히	5,500	4,400
46	소승불교와대승불교	히로사치야	6,000	4,800
47	딴뜨라불교입문	S.B다스굽따	5,000	4,000
48	불교철학개론	광리티엔	5,500	4,400
49	불교사상과서양철학	에드워드콘즈	6,500	5,200
50	달마	야나기다세이잔	5,500	4,400
51	붓다와그가르침	B.R 암베드카르	7,000	5,600
52	한국불교인물사상사	불교신문사	9,500	7,600
53	중국불교학강의	여정	8,500	6,800
54	붓다마르크스그리고하느님	트레버링	5,000	4,000
55	중국문학과선	진충길	6,000	4,800
56	불교의서구적모색	유다유타카	4,000	3,200
57	인도의선중국의선	아베쵸이치외	6,000	4,800
58	유식삼십송	박인성	20,000	14,000
59	인도불교사상사	에드워드콘즈	5,500	4,400
	장경각			
60	선림보전	백련선서간행회	5,500	4,400
61	산방야화	백련선서간행회	4,500	3,600
62	동어서화	백련선서간행회	3,500	2,800
63	치문숭행록	백련선서간행회	3,500	2,800
64	선림보훈	백련선서간행회	6,000	4,800
65	임간록 상	백련선서간행회	4,000	3,200
66	임간록 하	백련선서간행회	5,500	4,400
67	오가정종찬 상	백련선서간행회	6,500	5,200
68	오가정종찬 하	백련선서간행회	6,500	5,200
69	마조록.백장록	백련선서간행회	5,000	4,000
70	위앙록	백련선서간행회	4,500	3,600
71	조동록	백련선서간행회	4,500	3,600
72	운문록(상)	백련선서간행회	4,500	3,600
73	운문록(하)	백련선서간행회	5,000	4,000
74	양기록.황룡록	백련선서간행회	4,500	3,600
75	설봉록	백련선서간행회	7,000	5,600
76	현사록	백련선서간행회	7,000	5,600
77	태고록	백련선서간행회	5,500	4,400
78	나옹록	백련선서간행회	7,000	5,600
79	인천보감	백련선서간행회	5,500	4,400
80	나호야록	백련선서간행회	5,500	4,400
81	종문무고	백련선서간행회	4,000	3,200
82	총림성사	백련선서간행회	5,500	4,400
83	운와기담	백련선서간행회	5,500	4,400
84	고애만록	백련선서간행회	5,000	4,000
85	산암잡록	백련선서간행회	5,000	4,000
86	원오심요(상)	백련선서간행회	5,000	4,000
87	원오심요(하)	백련선서간행회	5,000	4,000
88	종용록(상)	백련선서간행회	6,000	4,800
89	종용록(중)	백련선서간행회	6,000	4,800
90	종용록(하)	백련선서간행회	6,000	4,800
91	벽암록(상)	백련선서간행회	6,500	5,200
92	벽암록(중)	백련선서간행회	6,500	5,200
93	벽암록(하)	백련선서간행회	6,500	5,200
94	백일법문(상)	백련선서간행회	6,500	5,500
95	백일법문(하)	백련선서간행회	5,500	4,400
96	선문정로평석	성철스님	6,000	4,800
97	돈오입도요문론강설	백련선서간행회	7,000	5,600
98	신심명증도가강설	백련선서간행회	7,000	5,600
99	영원한자유	백련선서간행회	6,000	4,800
100	자기를바로봅시다	여무의	8,000	6,400
101	돈황본육조단경	성철스님	6,000	4,800
102	선문정로	성철스님	4,000	3,200
103	본지풍광	성철스님	7,000	5,600
104	한국불교의법맥	성철스님	5,500	4,400
105	선과문학	신규탁	4,500	3,600
106	나가르주나	깔루빠하나	10,000	7,000
107	간화선	원융스님	6,000	4,800
108	마음을바로봅시다	원순스님	20,000	14,000
109	선림승보전(상)	원철스님	18,000	12,600
110	선림승보전(하)	원철스님	18,000	12,600
111	일본의한국불교연구동향	불교학연구회	16,000	11,200
112	조사선의실천과사상	김태완	18,000	12,600
113	산하대지가참빛이다	양형진	8,000	6,400
114	한국유식사상사	이만식	25,000	17,500
	불광출판사			
115	무소의뿔처럼(상)	김재영	6,500	5,200
116	무소의뿔처럼(하)	김재영	6,500	5,200
117	광덕스님명상언어집(봄여름가을겨울)	광덕	20,000	14,000
118	달을보는섬	정운	3,500	2,450
119	그대그대 자신으로	정운	4,500	3,150
120	건강을이야기합시다	홍문화	5,000	3,500
121	홍문화박사의 간강장수법	홍문화	5,000	3,500
122	백사백경	박희건	7,500	5,250
123	내아픔의 연꽃이되어	김재영	3,500	2,450
124	하산 그다음이야기	권경숙	5,000	3,500
125	걸망도 내려놓고 마음도 내려놓고	지원	3,500	2,450
126	또다른 이름이 되어	정운	3,500	2,450
127	친구여,우리붓다가되자	김호철	6,500	5,200
128	광덕스님의생애와불광운동	김재영	12,000	8,400
129	고통을모으려다니는나그네	법장스님	8,000	6,400
130	화엄경백일법문	장산	20,000	14,000
131	보살사상성립사연구	이봉순	15,000	10,500
132	여든살의연꽃한송이	이남덕	8,000	6,400
133	사막을건너는사람은별을사랑해야한다	이재운	4,000	3,200
134	목불을태워사리나얻어볼까	이재운	4,500	3,600
	우리출판사			
135	아도화상 향은제몸을태워온세상향기롭네	윤청광	10,000	9,000
136	겸익스님 버리고사는마음그마음이부처일세	윤청광	10,000	9,000
137	원광법사 인생은한토막꿈이로다	윤청광	10,000	9,000
138	자장율사 백년도못사는데무엇그리탐내는가	윤청광	10,000	9,000
139	원효대사 걸림없이살게나물처럼바람처럼	윤청광	10,000	9,000
140	의상대사 마음을비우시게온갖근심사라지네	윤청광	10,000	9,000
141	보덕스님 지혜의눈뜨면행복이열리거늘	윤청광	10,000	9,000
142	진각국사 부처되기쉽다네자비롭게살게나	윤청광	10,000	9,000
143	일현큰스님 그대몸안에있는여섯도둑부터잡으시게	윤청광	10,000	9,000
144	원감국사 극락도지옥도마음속에있다네	윤청광	10,000	9,000
145	경허큰스님 착한일많이하게그대가부처일세	윤청광	10,000	9,000
146	용성큰스님 작은솔씨가루른소나무되네	윤청광	10,000	9,000
147	영호큰스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네	윤청광	10,000	9,000
148	만공큰스님 사랑하는사람못만나괴롭네	윤청광	10,000	9,000
149	한암큰스님 바구니에물을담고달려가누나	윤청광	10,000	9,000
150	만암큰스님 마지막입는옷에주머니가없네	윤청광	10,000	9,000
151	효봉큰스님 그대어디서왔다가어디로가는가	윤청광	10,000	9,000
152	동산큰스님 벼슬도재물도돌일에이슬일세	윤청광	10,000	9,000
153	운허큰스님 영원한내것이란아무것도없다네	윤청광	10,000	9,000
154	경봉큰스님 돌장승이허허롭게웃느나	윤청광	10,000	9,000
155	금오큰스님 한생각돌리면천하가다내것일세	윤청광	10,000	9,000
156	전강큰스님 촛불을밝히면어둠이사라진다	윤청광	10,000	9,000
157	고암큰스님 도물을것없네복밭이나가꾸게	윤청광	10,000	9,000
158	청담큰스님 마음에타는불부엇으로끄려는고	윤청광	10,000	9,000
	고요아침			
159	편지	명정,정성욱	9,500	8,550
160	마음꽃	명정,정성욱	11,000	9,900
151	바닷가에절이있었네	박원식	9,500	8,550
162	얼굴	이지엽,정성욱	9,900	8,550
163	절간이야기	조오현	9,000	8,100
164	무심	경허스님	8,500	7,650
	지혜의나무			
165	이른아침나들기억하라	틱낫한	7,000	5,600
	여시아문			
166	선방일기	지허	5,000	3,000
167	참선요지	허운스님	5,500	3,300
168	보르헤스불교강의	보르헤스외	5,500	3,300
169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펠	4,500	2,700
170	방편개시	허운스님	6,000	3,600

http://www.yosiamun.com

http://www.yosiamun.com Tel : 02-737-0695 / Fax : 02-737-0696

“불교용어 이제 쉽게 쓰세요”

실용·창의성 중점 … 1만5천여 용어 7년 작업
‘지대방’ ‘마지’ 등 흔히 사용하는 단어 추가

그 나라의 문화척도로도 평가되는 사전의 편찬은 우수한 인력과 오랜 시간,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현 시대’에 쓰이는 가장 새로운 말의 뜻풀이와 지식정보를 담아야 살아 숨쉬는 사전의 몫을 다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좁은 시장과 인력부족 등 이러저러한 한계로 인해 사전 편찬은 다른 출판물 발행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계도 예외일 수가 없다.

불자들에게 있어 불교사전은 수행의 지침서이자 신행의 도반이며, ‘불교학의 최종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불자들의 욕구를 100% 만족시킨 사전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편찬된 불교사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은 실용성과 창의성 부족이다. 사전을 읽기 위해 또 다른 사전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용어들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일본 사전의 체계를 그대로 본 딴 구성과 번역문투가 빈번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 사전이나 기존에 편찬된 사전을 답습하는 차원을 뛰어넘겠다”는 취지로 간행된 곽철환(前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 사진) 씨의 <시공 불교사전> 역시 모든 불자들의 요구에 부응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지적돼 왔던 ‘실용성과 창의성 부족’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부분이 많다.

<시공 불교사전>은 콘사이스(휴대용) 사전으로 들고 다니기 쉬우며 값도 기존의 사전에 비해 저렴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구성이다. 지은이는 “사전의 체계를 구성하는 일은 ‘버리기’로부터 출발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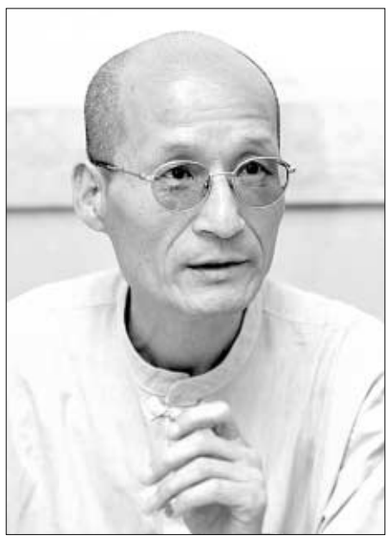
“사전의 부피만 늘일 뿐 독자들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관념적인 언어나 흔히 쓰지 않는 단어들은 과감히 뺐습니다. 그리고 기존 불교 사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사찰이나 불교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처사’나 ‘지대방’, ‘부목’, ‘마지’ 등의 단어들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는 약 1만 5천여 단어가 담겼다.

여기에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이 묻어난다. ‘설명을 최대한 쉽게’ 쓴 것이다. “불교 용어의 모호함과 혼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지은이가 “불교 사전보다 국어사전을 더 많이 봤다”고 말할 만큼 ‘쉽고 정확하게’ 우리말로 옮기는데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단어의 설명을 돕기 위해 사진과 그림, 도표 등도 덧붙였다. ‘구산선문 계보도’와 ‘금강계 만다라 구조도’, ‘화엄일승법계도’ 등은 지은이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만하다.

책의 세 번째 특징으로는 단어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들 수 있다. “‘ㄱ, ㄴ, ㄷ’ 순으로 사전을 만들겠다는 것은 미련한 생각”이라는 지은이는 하나의 상위 개념 밑에서 파생하는 단어들을 한 번에 묶어 뜻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집필했다고 한다. “전체를 아우르는 이해와 설명 없이 단어 풀이만 한다면 사전을 몇 번이고 뒤적일 독자들 역시 개념의 유기성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전을 공부하다가, 혹은 법문집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그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전이 되기를 바란다”는 지은이의 바람은 7년 동안 한 권의 책에 몰입했던 사람의 출판 소감이라기에는 소박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이 소박한 바람이야말로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불교전문사전의 출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감. 바로 <시공 불교사전>의 힘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시공 불교사전’

곽철환 지음

시공사 / 3만8천원



새로나온 책



<대승기신론>(석법성 편역, 운주사)= 불교 논서의 백미로 평가받는 <대승기신론>을 전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을 역임한 법성 스님이 쉽고 정확하게 풀어썼다. 1만원.

<마음을 밝혀주는 60가지 이야기>(방경일 글, 김장열 그림, 솔바람)= ‘스님은 왜 머리를 깎을까?’ ‘삼장법사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의 해답을 간결하게 풀어 놓은 글과 만화를 만날 수 있다. 1만원.



<물 한모금><지금 이 순간>(진형종 엮음, 최병용 그림, 바움)= 불교저술가 진현종 씨가 부처님 가르침이 담겨 있는 <팔만대장경>에 숨겨진 우화들을 읽기 쉽게 재구성했다. 각 9천원.

<꽃 한다발>(보현 스님 글/그림, 찬섬)= <타래>의 저자 보현 스님이 말하는 ‘부처님 마을’ 이야기. 폐교된 학교건물을 임대, 개조해 정신지체아 및 영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보현 스님의 글과 그림을 담았다. 9천원.



<빨리 가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거야>(이종서 외 지음, 조계종출판사)=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글대장경에서 ‘대승’을 주제로 한 글 100여 편을 간추려내 담았다. 7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 자	출 판 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 공 사
2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	비티 메킨지	김 영 사
3	내 사주 내가 푼다	임 태 근	여시아문
4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스님	다 라 니
5	천수경과 기도법	윤 영 해	불교시대사
6	영원한 대자유인	강 정 진	궁 리
7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	우 승 택	장 승
8	사람	서옹 스님	고요아침
9	파드마삼바바	백 이 제	민 음 사
10	티베트 금강경	까말라쉴라	도피안사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지묵강설 육조단경>의 저본인 ‘돈황본 육조단경’ 필사본의 첫머리 부분.

“선종의 으뜸가는 어록”

‘지묵강설 육조단경’

지묵 지음

우리출판사 / 1만원

예로부터 불가에서 “<육조단경>을 스승으로, <서장>을 도반으로 삼는다”는 말이 전해올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온 육조 혜능 스님의 <육조단경>. 선종에서 선사의 법어집에 ‘경(經)’이라는 제목을 붙인 예는 <육조단경>이 유일하다. 그만큼 이 책은 돈오와 견성을 근본으로 하는 남종선의 종지를 잘 설하고 있으며 혜능 스님의 선사상을 알 수 있는 근본 자료다.

덕이본, 흥성사본, 종보본, 돈황본 등 여러 가지 본이 전해지고 있으나, 지묵 스님이 펴낸 <육조단경>은 돈황박물관 소장 ‘돈황본 육조단경’을 대본으로 번역한 것이다.

책은 모두 50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과마다 원문과 한글 뜻풀이를 싣고 어려운 용어는 해설을 덧붙였다. 또한 책 중간에는 선사들의 일화를, 책의 끝 부분에는 판본에 따른 달리 쓰인 글자를 바로 잡는 양정문 씨의 교정표와 원문 전체를 담았다.

책을 옮긴 지묵 스님은 “선종의 으뜸가는 어록이라고 할 수 있는 <육조단경>을 통해 삶의 굳건한 지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미륵의 역사 · 설화 묶어

‘재미있는 미륵이야기 상 · 하’

강형구 지음

대광문화사 / 각 9천5백원



불교의 수용단계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전래된 미륵신앙은 특히 신라와 백제의 국가통치 이념으로서 응용되었다. 백제의 무왕은 익산 미륵사의 창건으로 왕권 강화를 도모했으며 후삼국시대 궁예의 경우는 말세적인 민심을 이용하여 자신이 미륵이라 하여 일시적인 대중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재미있는 미륵이야기> 상 · 하권은 소설가 강형구 씨가 미륵에 얽힌 역사와 설화를 묶어 펴낸 책이다.

상권 ‘역사 속의 미륵’은 전남 나주 미륵사 미륵입상과 칠불석상에 얽힌 비밀을 비롯해, 전북 고창 선운산에 얽힌 진흥왕의 창건설화, 어린아이의 지혜로 세운 충남 논산 반야산 관촉사, 용화세계의 꿈을 실현하고자 했던 백제 무왕에 얽힌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권 ‘삶 속의 미륵’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 속에 전해오는 열 세 편의 미륵설화를 들려준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위를 얻고 싶은 두더지와 미륵에 얽힌 이야기부터 산토끼가 잡아준 명당, 포대화상에 얽힌 이야기 등이 펼쳐진다. 지은이는 각 이야기마다 나름의 해설을 붙여 놓아 이해를 돕고 있다.

9월7일(양력) 태아영가 엄마 · 아빠 49일 참회기도 입재

귀의삼보 하옵고
무더운 날씨도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는 문턱, 기도의 계절, 불자님 가정에 항상 부처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구담사에서는 매년 양력 3월, 6월, 9월(첫째 일요일)에 태아영가를 위한 엄마 · 아빠 참회기도 49일 천도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불사인연 동참하시어 기도도량으로 자리매김하여 원만히 불사를 마쳤습니다. 양력 9월 7일 국내최초의 애자모 탱화, 애자모 지장보살, 108동자를 조성하여 점안식을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성은에 감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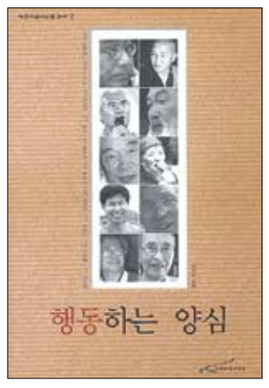
증명법사 봉선사 조실 월운 큰스님. 도선사 회주 혜성 큰스님.
일 시 2003년 9월 7일(일) 오전 10시 30분
장 소 구담사 대웅전

애자모 지장보살, 애자모탱화 및 108동자 점안식을 함께 봉행합니다.

◈ 기도 입재일 : 양력 9월 7일(첫째 일요일)
◈ 기도 회향일 : 양력 10월 26일
◈ 기도 동참금 : 49일(7회) 3년 회향까지 30만원 (단, 완불하신 분은 동자 봉안해 드림)
49일 1회는 10만원 (위패비는 기도 때마다 별도로 받음)
◈ 위패비 : 1위당 - 5천원, 영가 옷 : 1천원
◈ 준비물 : 분유(우유), 사탕, 과자, 쵸코파이 등....
◈ 구담사 교통안내 : 강변역과 도봉산역에서 구담사행 버스가 08:00에 출발합니다.
(강변역 테크노 마트 주차장 입구 / 1. 7호선 도봉산역 도봉산 방향 입구)
◈ 대중교통 안내 : ●강변역 동서울 터미널 - 일동행, 수유리 전철역 터미널 - 일동행,
●상봉동 상봉 터미널 - 일동행 - 연곡4리 (제비울 하차)
●운행은 입재, 3재, 5재, 7재만 운행
◈ 계좌번호 : 국민은행 : 217-01-0339-914 / 농 협 : 225050-56-033370
※ 특히 대학 수능, 입시, 취업, 사업하시는 분은 꼭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위패 봉안하는 관계로 미리 동참하여 접수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구 담 사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 4리 595번지 ☎ 031) 533-2855 팩스 532-2441 홈페이지 : www.gudamsa.org

민중의 아픔 대변한 '저항의 삶'



'행동하는 양심'

안영민 지음

아름다운 사람들 / 1만3천원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 등 10명의 활동 평전형식 정리

"비가오나 눈이오나 삼복 땡볕 아래서나 혹한 겨울 바람 앞에서나 늘 검은 장삼 휘날리며 시위현장을 활보하는 춤추는 목탁꾼." 불교 사회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진관 스님을 두고 경찰과 시위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스님을 표현한 말이다.

"현장에 남는 사람이란 곧 현장을 지키는 사람이다. 현장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민중을 지키는 사람, 역사를 지키는 사람인 것이다." 재야운동의 현장이면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문정현 신부를 두고 한 말이다.

<민족 21> 기자로 활동중인 저자 안영민씨가 그동안 인터뷰한 것을 짧은 평전 형식으로 정리한 이 책에는 재독 철학자 송두율, '통일목사' 홍근수, 여성신학자 박순경, 해외동포 운동가 곽동의, 비전향 장기수 박종린, 임기란 민가협 前 상임의장 등 10명이 등장한다.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핵심어는 다름 아닌 '자기희생'과 '실천'. 즉 어려운 시대상황속에서 자기희생을 통해 난관을 딛고 역사와 민족,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곧추 세우는 경지에 올라섰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들의 역사적이고도 때로는 도전적인 행동이 결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나 당위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와 역사가 맞물린 필연적 귀결에서 비롯됐음을 밝혀내고 있다. 즉 비극의 작은 개인사가 모여 거대한 역사의 미래를 만들어 내는 것은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시대의 부름에 등돌리지 않은 '작은 양심'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힘겹게 짊어지고 걸어온 민족과 민중의 문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옛 추억'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재진행형들이다.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만큼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분모다. 북한에서 출세길이 보장되는 만경대혁명학원을 뒤로 하고 남파되었다가 비전향장기수로 34년동안 옥고를 치른 박종린씨는 그리운 딸이 기다리고 있는 북녘으로 송환되지 못한 채 외로운 만년을 보내고 있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역시 해방직후 건국위원회 간부였던 부친에 이어 그의 아들까지 3대가 수감생활을 해야 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이런 아픔을 뒤로 한 채 이들이 그토록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민족에 대한 희망도 언급되고 있다. '조국과 민족, 동포는 하나다'(곽동의), '민족은 거의 사라지지 않는다'(송두율), '불교는 민족정신의 발원지나 다름없다. 민중속에 뿌리내려온 불교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진관 스님) 등.

안영민씨는 "이 책속의 주인공들이 겪어야 했던 수난은 바로 민족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갈 대안도 민족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철저한 현장성을 띠고 있다. 이들의 삶에 주목했던 이유는 바로 이때문이었다"고 집필 의도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그것이 진실인가요? 생각을 바꿔보시죠



'네가지 질문'

바이런 케이티 · 스티븐 미첼 지음/김윤 옮김

침묵의 향기 / 1만원

행복을 찾아주는 17가지 사례 소개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거릴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왜 일까? 우리의 삶을 우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들은 많다.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미래가 불안해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건강이 안 좋아서, 직장 상사가 싫어서,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자녀가 속을 썩여서, 취직을 못해서… 등. 우리는 이런 이유들이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지은이인 바이런 케이티 역시 참된 현실로 깨어나기 전까지 그렇게 믿었다고 고백한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던 케이티는 이혼을 계기로 우울증이 심해졌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됐다. 심지어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1986년 어느날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참 행복을 갖게 한 네가지 질문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책은 바로 이 네가지 질문을 이용해 자기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 17편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케이티가 이야기 하는 네가지 질문이란 '그게 진실인가요?', '그게 진실인지 당신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그 생각을 생각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뒤바꿔 보세요' 등이다. 앞의 두 질문은 자신의 생각을 의심함으로써 그 생각이 진실이 아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뒤의 두 질문은 생각이 고통을 일으키며, 그 생각이 없으면 평화롭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뒤바꿔보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결국 누구에게도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예를 들어, '나는 슬프다, 왜냐하면 남편은 내게 화가 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진술을 종이에 썼다고 가정하자. 과연 그 생각이 진실인가? 그리고 나는 그 생각이 진실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저자의 안내에 따라 꼼꼼히 따져보면 그동안 근거없는 생각을 믿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내 고통의 원인은 바로 내 생각의 끝자락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항상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는 억지로 누르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냥 이해하고 지켜보라는 것이다.

이렇듯이 저자가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가지 질문은 무엇인가를 급격히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려는 것이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삶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짓된 생각을 진실로 믿고 있어 삶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하려는 핵심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자신에게 이 네가지 질문을 하면 우리가 조금전까지도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던 고정관념에서 해방돼 훨씬 자유롭고 편안해지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다. 그저 막연한 물음으로만 보이는 이 질문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김주일 기자

전문가 서평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민화협 정책위원회 엮음

오름 / 1만5천원

남한식 思考론 북한 이해 어렵다

사회개방 '모기장론' 적용 이중적 자세

시내 큰 서점을 들어서는 여학생에게 말을 걸었다. '느낌표'를 살 거라고 했다. 순간,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는 텔레비전 프로의 힘이 '힘이 쭉 빠지게' 느껴졌다. 다른 책도 좀 사 보렴… 백 가지 책을 읽는 사회와 한 가지 독서 열풍에 휩싸인 사회를 비교해 상상해 보라고.

일류지향, 서울집중, 온갖 유행병, 이런 병폐를 그대로 드러내는 책읽기 편식에서 한숨돌려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민화협 정책위원회 편)를 펼쳐본다. 이 책을 읽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한다. 남한식에 젖은 사고로 북한을 이해할 수 없다. 북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접해 보는 정보수용의 의미가 첫째고, 다양성을 수용하고 사고할 수 있는 힘, 열린 마음과 통일지향적 심성을 기르는 것이 덤으로 얻는 두 번째 이유이다.

내가 처음 북한문학사를 읽었을 때 충격이 생각난다. 최소한 해방까지는 동일한 문학 역사를 가졌는데도, 정반대 가치로 쓴 것을 놓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느 것이 옳은지를 질문했다. 둘 다 맛보지 않고는 답할 수 없었다. 지금은 양쪽을 묶어 '민족문학사'로 말할 수 있는 가치, 또는 들을 아울러 볼 수 있는 우리 민족문화의 사고방식과 철학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를테면, 북한 춘향전, 남한 춘향전, 이 둘은 다르면서 같은 춘향이 이야기이다. 경판본, 안성체본, 완판본 등 과거 춘향전에도 원본 개념이 없이, 무수히 판이 벌어지면서 이본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 시쳇말로 버전이 다를 뿐이다. 북한 체제를 반영한 북한식 춘향전은 '다른 체험'의 산물이면서 '이본정신'으로 보면 또 하나의 자산이 된다. 물론 상호비판을 통해 '통일 춘향전'을 써야 할 책무도 있다. 이처럼 다양성의 수용은 끝없는 창조로 이어지는 근본정신이다.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거기서 만들어진 대중문화를 책을 통해 체험하는 일은 민족 역사의 이본을 이해하고, 앞으로 함께 할 역사를 쓰는 궁리를 하게 한다. 이 책은 김일성 사후 극심한 경제난 속에 주민들의 일상생활 변화, 여가생활과 체육활동, 문화예술활동, 종교생활, 병영생활, 가족생활, 대학생활과 새세대 가치관 등 일곱 가지 주제를 박형중, 오양열 등 12명의 필자가 썼다. 그 가운데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결론에서, 북한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개방을 기본 노선으로 하고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일신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사색하고 새롭게 실천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적 사상문화적 침투를 경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소위 '모기장론'을 통해 개방바람은 실리적으로 취하고, 독이 되는 자본주의 사상 모기는 차단하여 주체사상과 체제를 고수하는 정책을 편다는 말이다.

이렇게 체제 수호와 변화를 함께 끌고 가야 하는 모순적 현실의 속사정은 극심한 경제난이다.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굶주림, 생산공장을 돌릴 수 없는 에너지난, 외환부족과 국가재정의 고갈은 총체적 경제파탄 상황이다. '고난의 행군' 속에서 주민들의 자구책과 배급체계의 붕괴를 비롯한 북한 사회 제도의 변화들을 읽으면, 한반도 전체 역사가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전환기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것이다. 즉, 우리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 주민생활에서 공식 규범이 약화하고 현실대응의식이 달라지고 서서히 시장경제적 문이 열리고 있다. 가치관이 바뀌고, 장마당과 같은 '이차경제 영역'에서 살길을 뚫어낸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계층분화가 생기고 있다.

이런 변화는 외부의 근본적인 지원없이 이뤄지고 있는 '자력갱생'의 현상이다. 문제 해결은 남북관계, 국제정치 세력의 선택에 달려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할 때, 논자의 평가대로, 북한 경제난 극복에 협력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시점의 대북 경제협력과 지원은 '미래의 인간안보'에 대한 투자라는 주장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남북한 모두 인적 자원만이 자산인 조국의 장래를 생각할 때, 북한 어린이의 영양실조와 교육 방치, 가임 여성의 열악한 건강 상태는 심각한 위기를 예측하게 한다.

뻔히 알고도 우리는 현실에서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이 '대구 U대회 참가'를 번복하여 한동안 혼선을 빚었던 사건은 그냥 뉴스만 따라가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알고 보니, 취소했던 이유 그대로 '인공기 소각'에 대한 항의였다.

■노귀남 /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는 북한 사람들의 여가생활, 체육활동, 가족생활, 종교활동 등 일상문화에 대해 입체적으로 접근했다. 이 주제는 북한의 권력구조나 정치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 상태였다.

혜강스님의 지장기도 영험록

우리 곁에 지장보살 오셨네



혜강 박영옥 지음/값 9,000원/광연문화

지장기도 영험록

영가천도는 왜 해주어야 하는가?
영가의 장애를 받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장기도를 하면 어떠한 공덕이 있는가?
지장기도의 위력에 대한 능력과 인간의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원력과 능력을 되새겨 본다

부처님의 진리와 사상은 무한한 광명과 영원불멸의 실상이며 대자비 일 것입니다.
불교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높은 뜻을 지니고 어진 중생들을 번뇌망상에서 벗어나 지혜섭심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자비의 등불을 밝혀 해탈의 길에 이르게 하는 종교입니다.
현대사회는 물질문명의 만연과 인간 본연의 심신과 윤리도덕관이 상실되고 기본적인 정신사상이 해이해져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바라는 바는 정신개발입니다. 이는 불교의 진리 탐구와 수행정진과 기도뿐일 것입니다.
여기에 소직이 이 사바세계의 악업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많은 중생들과 구천에서 헤메이는 조상영가들을 지장천도재로 하여금 지장보살님의 대비원력과 위신력으로 체험한 "지금은 지장보살시대"란 영험록을 지난 2000년 1차 발행하고 다시 2002년 "오 지장보살님 나는 언제 지옥문을 두드리나이까" 제2집 영험록을 발행하여 이 세상에 발표한 바 있어 전국에 수많은 불자들과 타종교 신자들까지 많은 찬사와 감사의 서한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수행자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목탁과 같이 수행하면서 지장천도의식을 마치면서 신도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고 지장기도를 한 후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병들고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영가천도를 통하여 구제받고 깨달음을 얻은 많은 영험들을 교훈으로 삼고 다시 이 글로 옮겨 놓았다.

대한불교 관음사 관음불교 교양대학 주지 학장 혜강 박 영옥 합장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16의 1호 TEL 02)917-3854, 917-0408 / FAX 02)3675-3854

총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1가 51 타운힐빌딩 3층
TEL 02)3672-7181~5 / FAX 02)3672-7186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기도



불사음계의 문화

불사음계란 불음(不淫)계에 대비된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정당한 음행은 인정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재가자들의 5계에서는 불음계가 아니라 불사음계가 된다. 적어도 재가자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므로 교단의 역사 또한 계승될 수 있는 것이다. 불사음계는 철저한 일부일처제를 지향하고 있다.

인도 사회에는 일부일처제도 이외에 일부다처제도 내지 일처다부제도의 역사도 있다. 인도 문화의 주류인 아리안 문화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일처다부제도가 있었으며, 아리안 문화의 정착과 남성위주 사회문화의 확립은 일부다처제를 산출하게 된다. 마리노브스키라는 소련의 사회학자가 저술한 <미개인의 성생활>이라는 저서에 의하면 원시사회일 수록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왕성하며, 특히 한 여성을 중심으로 많은 남성이 관계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그는 남방제도의 여러 부족들의 삶을 다년간 관찰한 뒤에 이 책을 저술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절찬을 받았다.

모계사회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을 떠나 정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는 아리안문화가 정착되어 상층부인 바라문 종성과 크샤트리아 종성은 부계 중심의 가족문화가 확립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바이샤나 수드라 등의 하층민들에겐 아직 여성 위주의 모계 유습이 남아 있었다.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아버지의 가계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바라문종성 출신이나 크샤트리아 종성 출신들뿐이다. 목련존자로 알려진 목갈라나풋타, 사리풋타(사리불), 카챠야나풋타(가전연) 등은 부계를 알 수 없는 하층민 출신이었다. 풋타란 아들이란 의미이며, 앞에 붙은 호칭은 어머니의 이름이다. 결국 목갈라나라는 여인의 아들, 사리라는 여인의 아들, 카챠야나라는 여인의 아들이란 뜻이다. 학자들은 이에 대해 모계사회의 유습이 하층민 사회 속에는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 해석한다.

인도사회의 이상과 같은 가족문화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하층민의 여성들은 남편이 있음에도 다른 남자의 아기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동시에 상층민의 유력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여성을 소유하려고 했다. 요즘처럼 장가 못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철저

인도 남성위주 가족문화 타파겨냥
일부일처제 지향…남녀의 정숙 강조

한 일부일처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불사음계의 규범화이다. 고려 중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전쟁 미망인들이 증가하여 국가적인 문제가 되자 일부다처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개성의 여성들이 데모를 일으켜 법제화되는 것을 막는데, 이것 역시 불사음계의 영향이라 말할 수 있다. <선생경>에 의하면 남편이 지켜야 할 덕목 중에 "위엄을 지켜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항목이 있으며, 여자가 지켜야 할 덕목에는 "딴 남자를 생각지 말고 얼굴을 붉히며 다투지 말라"는 항목이 있다. 이 역시 불사음계와 직결되어 있다.

현대사회는 일부일처제도의 변형이 나타나고 있다. 동거, 자유연애 등 과거의 결혼제도 자체에 대해 불신 내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분명한 사실은 이혼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재의 결혼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혹자는 컴퓨터에 의한 중매와 결혼을 말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속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도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결혼제도가 바뀐다면 불사음계도 바꾸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24시간 모두가 禪
일행 삼매로 깨달음을…

스스로 물을 마셔봐야 찬지 더운지 알듯이 깨달음이란 완전히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모든 외재하는 사물은 우리들 참모습의 그림자이며 모든 외적인 교리는 자성(自性)의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메아리나 그림자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자성을 볼 수 있어야만 비로소 무엇이 참된 자아인지 알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스트레스'에 의해 건강이 좀먹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과잉은 몸에 큰 변조(變調)를 가져온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율신경 실조증(自律神經 失調症)'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트레스'는 대부분 근대화의 산물로서 인위적으로는 예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레 겁에 질려, 스트레스 해소를 단념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참선(參禪)이 특효



◇목우암을 배경으로 한 스님의 모습. 처마의 곡선과 스님의 온화한 미소가 닮았다.

"스트레스 해소 참선이 특효약"
유아때부터 집중방법 가르쳐야

약이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참선을 하면 우뇌를 활성화시키고 알파상태로 만듦과 동시에 도파민 등 각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뇌를 안정시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율신경도 강하게 작용해 뇌에서 분비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각종 호르몬을 대량 분비시켜 여러 가지 통증이나 성인병, 심인증(心因症)을 치료하는데 기여합니다.

선은 자기 존재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것이며 속박으로부터 자유로 향하는 길을 가리킵니다. 즉 선은 우리들 각자 속에 본래 자연적으로 구비돼 있는 모든 에너지를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모든 정신 활동은 이제 열쇠로써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이 경험한 것보다 더 만족스럽고 보다 더 평화로워져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환희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삶의 색조가 바뀔 것이다. 선 속에는 무엇인가 젊어지게 하는 것이 있어 봄날의 꽃들은 더 아름답게 보일 것이며 계곡의 시냇물은 더 신선하고 맑게 보일 것이다."

선 중에는 공안 즉 화두를 드는 선도 있고, 묵조하는 선도 있고, 염불하는 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서 자기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즉 근기에 맞는 수행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은 어느 보살님이 와서 제게, '어느 큰스님이 염불은 그저 하근기 중생이 한다'고 말했다며 이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이것은 '염불선'과 서로 진행합니다.

참선할 때는 '일상삼매(日常三昧)' '일행삼매(一行三昧)'해야 합니다. 일상삼매란 '여묘포서(如猫捕鼠)'와 같습니다. 즉 고양이는 쥐를 사냥할 때 한눈팔지 않고 사력을 다해 쥐구멍을 노립니다. 고양이가 조금만 딴 생각을 하면 쥐 사냥은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참선할 때도 '내가 부처요 천지가 부처'라는 마음을 한 순간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가 쥐를 노리듯이 거기에다 딱 마음을 안주시킨다는 것입니다.

일행삼매는 '여계포란(如鷄捕卵)'과 같습니다. 마치 어미닭이 계란을 품듯이 참선에 들라는 것입니다. 계란은 오래 품고 있어야 병아리가 됩니다. 함부로 퍼덕거리면 온도와 시간이 맞지 않아 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지 우주를 부처로 보지는 못해도, 내가 부처요 천지가 부처라는 것을 항상 느껴야 합니다. 항상 느끼고 있으면 그 때 번뇌가 녹아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삼매의 경지를 맛보지 못해 참선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본래 마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은 자고 있을 때 외에 항상 무슨 일을 향해 움직이고 있거나, 듣거나, 웃거나,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염불'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염불은 부처를 자기 밖에서 구하고 또 극락세계를 자기 밖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염불선은 '자기 마음 본바탕이 바로 부처라', '극락 또한 내 마음 속에 있다' 이렇게 알고 하는 것입니다.

참선할 때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장소는 될 수 있는 한 조용하고 홀로 있을 수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좋습니다. 시간도 자기 생활 중 한가한 시간이면 좋고 저녁때나 새벽이면 좋습니다. 다만 참선을 하려면 자세가 안정돼야 합니다. 자세가 안정되면 다음은 호흡 조절[調息], 마음 안정[調心]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참선할 때는 '일상삼매(日常三昧)' '일행삼매(一行三昧)'해야 합니다. 일상삼매란 '여묘포서(如猫捕鼠)'와 같습니다. 즉 고양이는 쥐를 사냥할 때 한눈팔지 않고 사력을 다해 쥐구멍을 노립니다. 고양이가 조금만 딴 생각을 하면 쥐 사냥은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참선할 때도 '내가 부처요 천지가 부처'라는 마음을 한 순간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가 쥐를 노리듯이 거기에다 딱 마음을 안주시킨다는 것입니다.

일행삼매는 '여계포란(如鷄捕卵)'과 같습니다. 마치 어미닭이 계란을 품듯이 참선에 들라는 것입니다. 계란은 오래 품고 있어야 병아리가 됩니다. 함부로 퍼덕거리면 온도와 시간이 맞지 않아 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지 우주를 부처로 보지는 못해도, 내가 부처요 천지가 부처라는 것을 항상 느껴야 합니다. 항상 느끼고 있으면 그 때 번뇌가 녹아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삼매의 경지를 맛보지 못해 참선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본래 마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은 자고 있을 때 외에 항상 무슨 일을 향해 움직이고 있거나, 듣거나, 웃거나,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스님은 목우암 아래 차밭을 일구며 '다선일미'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성을 자극해주는 염불선도 좋습니다. 염불선은 지(知)와 정(情)과 의(意)를 모두 조화롭게 구하는 선법입니다.

다만 재가자들이 수행할 때 '별시(別示) 수행'이 필요합니다. 별시 수행이란 대중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수행하다보면 자칫 게을러지고 외도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한달이고 두 달이고 여럿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조상신과 중음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업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빙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덕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대구 대승불교대학 · 정토사
범음·범패 수강생모집

대승 불교사상의 진수를 배울 수 있는 열린 기도전법도량 대승불교대학에서는 불교의식 전반에 걸친 강좌를 마련하고, 아래와 같이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스님 및 일반 재가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강의내용
▶ 기초과정(3개월) : 도량석, 아침종성, 예불, 상강례, 사시불공, 신중기도, 지장불공
▶ 전문과정(1년) : 관욕, 대령, 전시식, 관음시식, 시다림 의식, 구병시식, 예수재 의식
▶ 기타강좌 : 천수바라, 나비춤, 북다루기, 경쇠, 징, 목탁 치는 법 등

강의장소
▶ 대승불교대학 3층 법당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월촌지하철역 사거리)

개강일시
▶ 2003년 8월 말(수시모집)

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4시간) 전문반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3시간) 기초염불반

대승불교대학 종무소 전 화 053)622-0333
휴대폰 011-699-9120

불교, 한방, 심리학 및 대체의학
전수자 모집

현재 불교 포교사 활동 중인 분이나 스님 또는 앞으로 포교사 활동 예정인 중생구재의 대원력을 세울분들에 한함!

수행과제
1. 경락학, 기치료 원리 및 실기, 심리학, 대체의학 불가의 비전술 오행환술 신체교정운동법 목 허리 디스크 관절염 심경질환 중풍 예방법 전수 각종 난치 질환 신병 귀신병(빙의)
2. 오행기전검법 (상대의 목소리만으로도 현재 아픈 곳 진단가능) 원거리氣방사법(멀리있는 상대에게 기운 운공가능법)

수행과정
천기운행법으로 상대를 정확히 알수있는 지상 최고의 육통법(숙명통) 일반역학과는 차원이 완전히 틀림
▶ 과 정 : 3개월 (1개월 속성코스도 있음)
▶ 강의료 : 3개월 300만원

절에서 일하실 20세 ~ 25세 女구함 (0명)
보 수 : 월 60 ~ 80만원 사이
▶ 자 격 : 신심이 돈독한 불교신자에 한하고, 기수련자는 특히 환영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암
창원포교당 향 선 사 지도법사스님 도 안
TEL : 055)276-9855 / 직통 : 016-726-0830

"부처님 등불" 수공예 양초

귀의 삼보 하옵니다.
기도 도량에 수행정진하시는 스님 불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가 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화재위험 및 그을음과 미세한 먼지로 인하여 건강을 걱정 하시는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이런 점들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수공예 양초를 이용한 전기 촛불을 개발 하였습니다. 특히 조각 모양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고안 되어 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스님과 불자님 이제는 안심하시고 늘 24시간 "부처님 등불"을 밝히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등불 특징 : 안정성과 그을음이 없고 30초 간격 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입니다.
◆색 상 : 흰색, 자주, 청색, 노랑, 옥색 외 다수
※ 원하시는 모양과 규격에 맞추어 하실경우 별도 비용 추가 됩니다.



"부처님 등불"은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등(초)로써 표현한 상징물입니다.
늘 합장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들어 주십시오.
탑쌓는 정성으로 기원 드립니다.

법당 및 가정에 백일기도 일일기도 1인 인등으로 최고 전기료 저렴 한달기준 500원

● 물에 뜨는 아로마 향기 양초 - 향기로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외에도 장미, 종이배, 카라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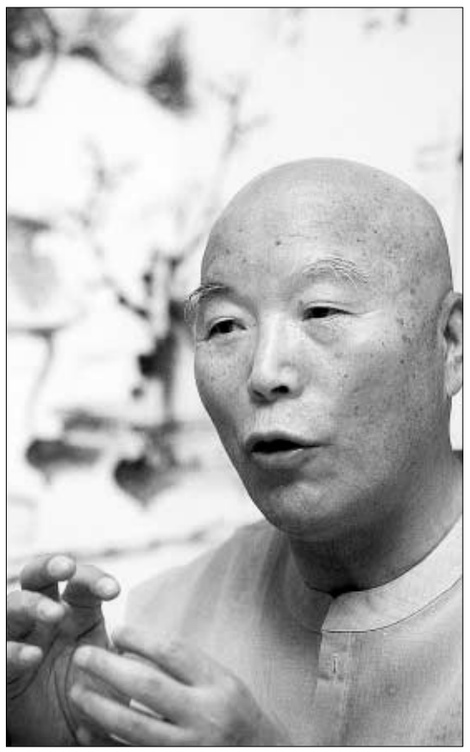


문의전화 및 취급점 상담 가나공예양초 서울시 도봉구 쌍문 2동 81-119번지
사무실 02)996-8830 / 공장 02)997-2801
전국 불교용품점에서 구입가능

지상 백고좌

금산스님

(목포 목우암 회주)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강조하시는 스님. 고양이가 쥐를 사냥하듯, 어미 닭이 알을 품듯 정진하라고 지적한다.

스스로 깨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 돌아보고 좋은 스승 가르침 받길…

이 함께 모여 수행을 해야 합니다. 대중이 곧 선지식이고 대중의 힘으로 정진하다보면 올바른 수행습관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또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줄(啐)은 병아리가 부화되려 할 때 알 속에서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탁(啄)이란 어미가 알을 깨려고 껍질을 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스스로 깨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준다 해도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정신의학과 스포츠의학의 세계적인 대가인 일본 동경대학 교수인 시로야마(白山) 박사는 고승들이 참선할 때 뇌파를 측정해 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선은 뇌 전체를 이완시킴과 동시에 오른쪽 뇌를 활용하고, 또한 유산소 운동인 점에서 볼 때 심신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바가 크다'라고 말입니다.

현대는 '아이디어'와 '감수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불가에서도 창의성이 없는 사람은 인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참선은 우리시대의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참선은 유아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교입니다.

불자는 자타일시 성불도(自他一時 成佛道)해야 합니다. 즉 자기 자신만이 불도를 이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함께 불도를 성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를 공격하기 전 유명한 목사를 백악관에 데리고 왔습니다. 개신교의 십계명 중 제일이 불살생(不殺生)이기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는 부시 대통령에게 사탄은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얻고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남을 다르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불이(不二) 사상으로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성불합시다.

정리=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주지 덕성(왼쪽)스님에게 가르침을 내리는 모습.

주지 덕성 스님이 본 금산 스님

차밭가꿔 재정자립·다선일여 몸소실천

금산 스님을 친견하던 중 한 스님이 들어왔다. 주지 덕성 스님이었다. 덕성 스님은 막 하안거를 마치고 다시 목우암으로 돌아온 것이다.

덕성 스님이 금산스님과 인연을 맺은 것은 약 14년 전. 당시만 해도 금산 스님은 공부하는 수좌들에게는 한 여름에도 서릿발이 내리는 것처럼 엄했지만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귀띔한다. 하지만 신도들에게는 늘 미소띤 얼굴로 친절하게 대한다고 한다. 금산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했더니 선배 수행자에 대한 예를 먼저 갖춘다. 금산스님이 항상 수행자로서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 젊었을 때 법학을 전공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선(禪)과 교(敎)를 겸비한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에 관한 일화를 들려준다.

비구와 대처 분규 시, 스님은 혼자 구례 화엄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화엄사에 기거하며 사하촌에 방을 마련한 뒤 대처승의 아내와 자녀들을 이주시켰다고 한다. 당시 폭력으로 점철됐던 다른 사찰과 달리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른바 정화를 했던 것이다.

금산 스님은 20대 초반에 허무주의에 깊이 빠졌다고 한다. 기독교 사상도 접해보고 여러 가지 사상을 접했지만 의심을 풀지 못했다고 한다. 깊숙한 산골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해 출가했다.

금산 스님은 목우암 아래 차밭을 마련했다. 사찰 재정 자립을 위해서다. 농촌지도소를 다니면서 거름이랑 씨를 타오고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곤 했다. 몽탄면 사람들과 함께 조합을 설립해 기계화를 할 생각도 있다. 다선일여(茶禪一如)를 몸소 보이고 있는 것이다.

1928년에 태어난 스님은 1956년 월정사에서 지암(智庵)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법명은 상지(尙志), 법호는 금산(金山). 31안거를 성만했으며 월출산 도갑사 주지, 조계종 감찰원 감찰국장, 조사국장 감찰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리산 화엄사 주지와 동리산 태안사 금강선원장, 내장산 내장사 백련선원장, 미주 삼보사 금강선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목포 목우암 회주로 주석하고 있다.



현원스님의

스님이야기

정호스님

통도사 강원에서 같이 수학했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스님이 정호 스님이다. 강원에서는 의견이 맞지 않아 코피가 터질 정도로 다툰 적도 있지만 이제는 어느정도 나이도 들었고 같이 포교하며 탁마해야 하는 공통점이 많아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 가까운 거리에 있다보니(정호스님은 오산 대각사에 주석하고 있다) 자주 만나 차도 한잔 하면서 속을 털어 놓곤 한다.

오산은 미군부대 주둔지라 교회가 많은 곳 중 하나이다 보니 교회에 나가야 천당간다는 이야기가 일상사처럼 펴져있어 불교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곳이다.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17년동안이나 꿋꿋이 정호 스님은 포교에 헌신해 왔다. 항상 웃는 얼굴로 상대방을 차근차근 이해시키며 불자로 만들곤 했다. 첫 인상부터가 자비로움을 느끼게 하는 정호 스님에게는, 만나는 사람마다 절로 귀를 열게 하고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힘이 있다. 몇 마디 나누다 보면 상대방으로



그림·문명성

하여금 불교에 호기심을 갖게 하는 탁월한 대중포교 능력이 있는 정호스님이야 말로 포교사가 천직인 것 같다. 35평 작은 포교당에서 신도가 많든 적든 흔들리지 않고, 포교하는 자체가 수행이라며 17년동안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오고 있는 스님이 바로 정호 스님이다.

대각사의 어린이 법회는 유명하다. 절에 온 아이들의 이름과 그 부모 이름을 누구보다 빨리 외워 당사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스님은 어린이 포교 비결에 대해 "그저 꾸준히, 열심히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이 절에 오는 일이 자연스럽게 여기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베풀어 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전에 법회에 다녔던 아이들이 자라 이제는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되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볼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스님은 "미래 불교를 이끌어갈 새싹포교가 중요하다"며, 각절마다 어린이포교에 관심을 가질것을 강조한다. 지금도 포교당에서 어린이들이 "저요, 저요" 손을 흔들며 "부처님은 왜 머리를 깎았어요?" 등 천진한 물음에 연신 땀을 흘리고 있을 정호스님은 지역의 환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지금이야 많은 이들이 환경보전운동에 눈을 뜨고 환경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10여년 전만 해도 환경운동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참여하기도 꺼려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스님은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역의 종교인들과 함께 환경운동에 나섰다. 뜻있는 젊은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하거나 환경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해결에 앞장서곤 했다. 지역에 미군 비행장이 있다 보니 문제가 없을 수 없었지만 스님은, 혈기가 왕성하게 넘치는 젊은이들에게 상대방을 이해시키고자 바쁘게 뛰어다니며 중재자 역할도 해 왔다. 스님은 '오산·화성 환경운동 연합'의 발기인이면서 현재 상임의장을 맡고 있다.

포교당은 포교의 최전선이니만치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다. 정말로 힘들어서 모든 것을 뿌리치고 산속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열 두번도 더 생긴다. 조용한 산사에서 화두 들며 살고 싶지만 산속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은 절대 모를 비밀이 있어서 아직은 못 간다. 다 떨치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

불모지 오산서 佛法전하기 17년

환경운동·어린이 포교도 주력

이들이 절 입구에 와서 '예수 믿고 천당가자'라고 큰 소리를 지르곤 후다닥 뛰어가는 소리에 백신주사를 맞은 듯, 그래 우리 같은 포교하는 수행자들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다 하고 힘을 내곤 한다.

얼마전 정호스님 절에 갔었다. 스님들은 아이들을 몇 명 키우고 있다. 비구절에서만 크다 보니 어머니의 손길이 그리워서 인지 아무 이유도 없이 말썽을 피우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 때문에 속상해 하는 모습에 안타까웠다. 어렸을 때 나도 당시 어른 스님들 속을 얼마나 썩혔을까 혼자 헤아리며 속으로 웃었다.

언젠가는 나도 오 갈데 없는 아이들을 키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항상 생각해 왔다.

정호스님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문서포교에도 몰두하고 있다. 스님이 쓴 <벌거벗은 주지스님>을 군법당에 보시하며 군인들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대중들과 함께 일로정진 수행하는 정호스님을 내가 이 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 곳곳에서 포교에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스님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산속에서 공부하시는 스님들도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 분당 연화사 주지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 7시~일요일 아침 7시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교육 (저녁7시 ~ 9시)
숨차지 않고 헐덕거리지 않으며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몸살나고 힘들고 졸립고 다리, 무릎,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절하는 동작에 흡흡호 호흡법을 대입하는 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누구나 완벽하게 절할 수 있습니다.
◆ 3천배정진 : 500만배 성만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마음다스리는 소참 법문을 듣고 끝내며 부처님전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한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큰 업장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 차량운행 : 2003년 8월 30일 토요일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출구 한국전력 앞 (4시 30분) 출발 → 법왕정사 도착
◆ 차량 예약 문의 : 양 헌 숙 011)222-3329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 중심 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오시는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 버스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하차 전화 요망

당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악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늦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유망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우너지 영양바란스를 조장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통무원 원장
재활의사(한약사) 박종원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류머티, 고혈압

(주)초월궤멸칼라이프 Co.
(구)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전 화 080-598-9832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먹물, 마직 적삼·바지 : 150,000 / 동방·바지 : 180,000 / 두 루 막 : 150,000
2. 무 명 수재·한국산 먹물 염색 적삼·바지 : 180,000 / 동방·바지 : 220,000 / 두 루 막 : 180,000
3. 모 시 론 (풀 안해도 됨) 적삼·바지 : 150,000 / 동방·바지 : 180,000 / 두 루 막 : 150,000
4. 면 래푸사 특 징 - 세탁시 풀 안해도 됨 적삼·바지 : 130,000 / 동방·바지 : 160,000 / 두 루 막 : 130,000
5. 장 삼 특 징 - 가볍고 통풍이 잘됨 모직 : 180,000 ~ 250,000 / 썸머울 : 200,000
6. 신 도 복 (단체주문받습니다) 조끼·바지(모직회색) : 60,000
7. 셔츠(차이나 라운드) · 걸망 · 손가방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명가의 명향 - 건 강 향

2003년 3월 5월 'MBC 6mm 세상' 방영

울향, 침향, 단향, 유향, 감송향, 사향, 육계, 안식향, 용뇌, 목향, 뢰향 외 기타 등등의 최고급 순수 향약재만을 사용합니다.

석씨향방은 최고의 제품만을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제사용 (오분향 - 각종 기도와)



生氣香 (생기향 - 건강향)

추석맞이 최고의 선물!!



무명장수 베게

박하, 곽향, 강활, 방풍, 당귀, 천궁, 석창포, 오수유, 만형자 외 기타 등등의 순수 한약재로 만들었습니다.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였으며, 화공약품은 0.1%도 안넣은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 석씨향방의 캠페인 - 건강을 위해 천연향을 애용합시다.

대리점모집중

☎ 02) 538-7161 / 3210-0880
강남대리점 02)511-4240 독립문 대리점 02)733-4440

지식 쌓고 茶香 느끼세요

국내 다도 박물관 3곳

박물관만큼 하나의 문화에 대해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곳도 없을 것이다. 요즘엔 전통적인 박물관 이외에 다양한 테마의 이색박물관이 많이 생겨 '보는 재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차 관련 박물관은 세 곳. 경기도 김포의 다도박물관과 부산여대 차 박물관, (주)태평양이 제주도 서광다원에 건립한 차 박물관 '오설록'이 바로 그곳이다. 각 박물관들이 어떤 전시물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지난 8월17일, 김포 다도박물관이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위해 마련한 '다도특강'에 3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해 강의를 듣고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김포 다도박물관

고려찻잔 등 3천점 전시

"이 그릇은 '식힘 그릇'이라고 불러요. 끓는 물을 부어 적당한 온도로 식히는 데 쓰입니다."

8월 17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 자리 잡은 다도박물관. 무료 다도교육에 참가한 초등학생 30여 명이 박물관 정원의 정자에 둘러 앉아 손민영 이사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고사리 손으로 차를 따르고 마셔보던 아이들은 어느새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전시실로 발걸음을 옮겨 다기와 전각을 구경한다.

지난 2001년 5월 문을 연 다도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개인 다도 박물관이다. (사)예명원의 손민영 이사장이 20여 년간 수집한 찻잔, 차솥 등 3000여점의 다구와 전각 50여점, 전통예절 관련 서적 500여권을 전시하기 위해 개관한 김포 다도박물관은 1만여 평의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전시장 이외에도 조각공원과 도자기공방, 투호장 등의 시설과 잔디광장을 갖추고 있어 주말 가족 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진다. 전시품 중에서는 고려 때 강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연잎찻잔과 풍로 화로 등이 눈길을 끈다.

박물관에서는 한국의 다례법과 차문화사 등의 강의로 진행되는 박물관문화대학을 3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 때는 초 · 중 · 고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다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개관은 매주 토, 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장료 3천원.(031)998-1000



◇다도박물관 전시실 내부모습.

■(주)태평양 '오설록'

역사·제조공정 한눈에

2001년 9월 개관한 '오설록'은 (주)태평양이 차 보급과 확산을 위해 마련한 문화 체험장이다. 제주 서광다원에 세워진 차 종합 전시관 '오설록'의 건물은 찻잔 모습을 형상화했고, 차의 역사와 차를 만드는 공정을 알 수 있는 전시관, 차 관련 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는 영상관, 차로 만든 아이스크림과 쿠키 등을 판매하는 휴식공간 등으로 꾸며져 있다. 상설전시관에서는 '토기사슴뿔모양잔' 등 30여점의 진귀한 모양의 찻잔도 만날 수 있다.

8월 30일까지 '다향 따라 역사기행'을 주제로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다양한 찻잔과 청동솥, 분청자완, 청자상감죽류문표형주자 등을 선보이는 특별전시가 열린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관한다. 입장료 없음.(064)794-5312

■부산여대 차박물관

외국 다구와 비교감상

부산여자대학교 차 박물관은 가야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조시대까지 사용되던 찻잔과 다구를 전시하고 있다.

제1전시실에서는 신라시대 화랑다도와 조선시대의 선비다례, 규수다례를 재현해 놓았고, 제2전시실에서는 화로와 차 주전자, 은제 다구류 등을 전시하고 있다. 또 차 자료실에서는 현대 도예가들이 제작한 다구들과 중국과 일본, 대만 등에서 쓰이는 다구를 비롯해 다양한 차 관련 자료들을 볼 수 있다.

학생과 일반인을 위한 차문화 교육의 장으로써 차문화 보급 및 다도교육, 전통다구 및 차생활 기획 전시 등도 기획한다. 개관은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장료 없음. (051)850-3112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우리차

초록차 우전

초록원에서 선보이는 '초록차 우전'은 충분한 햇빛과 맑은 바람 속에서 자라 비타민 C와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다. 풍성한 맛과 향은 지리산의 대자연을 느끼게 한다. 100g, 값 6만원.(053)745-7700

유건집씨 '차 고전 강좌' 개설

수필가이자 차고전연구가 유건집 씨의 '차 고전강좌-<다부>편'이 9월 첫째 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 정독도서관 문화교실에서 열린다. 한편, 서울 사간동 법련사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대관다론> 강좌가 열린다. (019)234-4986, (011)721-5973

차생활지도사범 연수회 개최

한국차문화협회는 8월 23~24일 '제21회 차생활 지도사범 하계연수회'를 충남 아산 한국증권연수원에서 개최한다. 연수는 박석무 교수(전남대 호남문화연구원)의 '다산학' 특강과 효월제다 이기영 대표의 떡차실습, 동계경 국제차문화연구회 고문의 중국차 특강 등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에는 사범 수료식이 개최된다. 참가비 9만원.(02)701-0475

'조주선사와 끽다거' 발간

월간 '차의 세계'가 조주선사의 다선일미 사상의 전통을 정리한 <조주선사와 끽다거>를 펴냈다. 2001년 10월 중국 하북성 백림선사에서 열린 '한 · 중우의 조주고불 선차기념비' 건립 기념으로 열린 '한 · 중 선다일미학술연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묶은 이 책에는 조주선사의 '끽다거(喫茶去)' 공안의 전승에 대한 20여 편의 글이 담겨 있다.



부록으로 조주선사의 핵심공안과 행장, '한 · 중우의 조주고불 선차기념비' 내용을 볼 수 있다.



차맥 지킴이

손민영

((사)예명원 이사장)

"예(禮)를 바탕으로 덕(德)을 구현하며, 자연을 벗삼아 이웃과 화합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차의 정신을 이 시대에 맞게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도와 전통예절 연구의 한 길을 걸어온 지 30년. 생활예절문화와 차문화를 연구 · 보급하는 교육기관인 (사)예명원의 손민영 이사장(60)에게서는 부드러움과 자신의 일에 대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

손 이사장은 유학자의 집안에서 8남매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엄격하지만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은 부모님 덕에 당시로서는 드물게 대학을 마칠 수 있었다.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을 졸업한 손 이사장은 예절과 다도를 전공한 교수 27명과 함께 76년 '전통예절 연구모임'을 발족했다.

이후 다도와 예절과 관련된 논문을 쓰는데 열중하던 손 이사장은 87년 '전통예절 연구모임'을 교육기관으로 탈바꿈시켰다. 논문보다는 실습을 통해 전통예절과 다도를 알리는 것이 신세대들에게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절과 차가 있는 집'이라는 뜻의 예명원이라는 이름도 이때 지었다.

1999년 서울 인사동으로 사무실을 옮긴 예명원은 이후 목아박물관 개관식에서 불교 헌다의식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 인사전통문화축제에서 어린이 녹차 다례법 발표, 경주문화엑스포 다례법 발표 등 차문화 알리기에 앞장섰다.

87년부터 실습 위주 교육 전념
다례법 발표등 문화 알리기 앞장

2001년 '예명 예다학회'를 설립하고 차문화 연구 및 학술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예명원은 현재 대전,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13개 지부와 부설 교육기관인 '청소년예절문화연구소', 순천과 화순, 춘천 등 7개 지부를 두고 있는 '예명 문화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손 이사장은 그의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차를 연구조제로 먼저 만났다'고 말한다. 전통 예절을 연구하던 그에게 '다도'는 중요한 우리 문화유산이자 예절교육이었던 것이다.

"차는 인성순화와 도덕성 회복, 사람 사이의 화합과 예절을 되찾게 만듭니다. 선인들이 차 생활을 통해 몸소 보여준 정신적인 예지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계승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안양교도소, 영등포교도소의 청소년 재소자들과 서울시내 보육원 등을 방문해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는 손 이사장은 산만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요즘 아이들에게 다도교육과 예절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도 교육을 통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정신을 집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올바른 예절과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차를 마시면서 깨끗한 마음씨를 기르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다도의 정신이 아닐까 합니다. 청소년들이 다도를 통해 상대에 대한 예의를 배우고 인격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 설 예정입니다."

여수령 기자





◇'소를 타고가는 달마'를 형상화한 작품 '소'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점원 교수.

옛 서민들 손때묻은 생활소품

12支 동물로 환생

이점원교수 '열세동물의 세상' 조각전 10월15일까지



◇넉넉한 어머니를 박달석으로 조각한 '기다림'.

사람 소재로한 돌조각도 함께 전시

'밥주걱이 원숭이의 혀로, 물레는 토끼의 눈으로, 다듬이는 개의 눈으로, 가래는 쥐의 농기구로 다시 태어났다.'

10월 15일까지 서울 삼청각 일화당에서 '열세 동물의 세상'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있는 이점원 동국대 교수의 눈에는 옛 서민들의 손때 묻은 생활소품들이 12지 동물들의 장기(臟器)로 보였다. 그래서 이번 작품에 등장하는 12지 동물들의 신체 주요 부위가 지게, 물레, 다듬이, 질매, 바가지, 부러진 장고, 가래 등의 오브제(물체)로 만들어졌다.

그냥 내버려두면 각자 낡고 오래돼 쓸모가 없는 물건들이지만 이 교수에 의해 하나의 또다른 의미(?)로 환생된 것이다. 전시중인 뱀(지게+철), 돼지(여물통+철), 양(바가지+부러진장고+철의자), 쥐(가래+자연목+다듬이), 토끼(물레+자연목), 용(질매+다듬이+소나무+철), 소(의자+자연목+철), 원숭이(자연목+철) 등 각각 이질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전통과 현대의 오브제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알차게 감상하려면 이들의 구조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알고 난 뒤 전시회장에 가서 비교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사전 예습을 통해 복습 감상을 하고나면 작가의 해학성과 독창성에 혀를 내두르는 감탄사를 연발할 듯 싶다. 또한 평소 무의식적으로 바라보았던 물건들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창의력을 불어 넣는다면 훌륭한 새생명으로 다시 탄생시킬 수 있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다. 그만큼 이번 작품들은 한국적인 전통의 미감과 미의식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일종의 '창의 창안 작품'인 셈이다.

12지 동물이외에도 야외전시장인 아래마당에서는 오석, 마천석, 해인석 등 순수한 국산돌로 제작한 돌조각 10여점이 전시돼 있다. '누워있는 여자', '울엄마', '가족', '한국인', '사우나' 등이다. 작품들 대부분이 섬세하고 정교하기 보다는 큼직큼직하고 선이 굵다. 하지만 강한 남성미보다는 부드러운 여성미가 느껴진다. 특히 은은한 미소와 언제 안겨도 편안할 것 같은 넉넉한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이 돌로 형상화된 '울엄마'는 고향에 두고온 어머니를 연상시킨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영화 '봄, 여름…'에서 동승과 노스님이 나룻배에서 대화하고 있다. 배경 뒤편으로 암자세트가 보인다.

동승 성장과정·업장소멸 그려

김기덕감독 신작영화 '봄·여름·가을·겨울…'

광주국제영화제 개막작품으로 첫선

김기덕 감독의 신작 '봄 여름 가을 겨 울 그 리 고 봄 (LJ필 름 , www.springagain.co.kr)'은 사계절을 배경으로 동승의 성장과정과 업장소멸을 그린 영화다.

영화의 배경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봄 여름…'에는 불교적 철학과 감독 개인의 인생성찰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엽기적 감독'으로 알려진 김기덕 감독의 이전 작품에 비해 이번 신작은 '나쁜 감독의 좋은 영화'라는 카피문구처럼 아름다운 영상과 잔잔한 배경음악이 두드러진다. 특히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4색으로 변하는 호수와 산세의 풍경은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낸다. 또 영화를 위해 주왕산국립공원 내 특별제작한 '호수 위를 부유하는 사찰'은 영상미의 완성을 더한다.

이 영화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17일, 스위스에서 열린 제56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청년비평가상' 1등상과 함께 국제시네마클럽연맹(FICC)의 '돈키호테상', '국제예술영화관연맹(CICAE/ARTE)상',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상' 등 4개상을 수상했다.

'봄 여름…'은 9월 2일 기자시사회를 거쳐 19일 개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8월 22일 제 3회 광주국제영화제의 개막작으로 관객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한상희 기자

'현실과 가상·과거와 현재의 왕래' 표현

경기광주 영은미술관 '공간의 여행展' 열려

경기도 광주 영은미술관이 10월 5일까지 기획한 '공간의 여행' 전은 공간과 시간의 이동, 나아가 현실의 시공을 뛰어넘는 사이버 세계로의 여행까지를 포함한 '총체적인 이동'을 다루고 있다.

전시는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 이동인 현실과 가상의 이동, 과거와 현재의 왕래는 물론 자아와 타자, 미술에서의 장르와 장르 간의 이동과 소통도 주제로 삼고 있다. 참여 작가들은 이 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해 작업한 김나영 김아타 김주연 김형대 방혜자 육근병 윤영석 정소연 최지만과 대만 작가 탕황첸(湯皇珍) 등 10명으로 회화 조각 설치 사진 영상 퍼포먼스 등 60여 점을 내놓았다.

김아타는 작품 '니르바나'에서 인간의 생로병사, 근원적 본능을 인체와 자연을 극도로 대비시킨 사진을 통해 드러내려 했다. 옥으로 만든 천불 부처님이 마치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웅크리고 있듯이 나체의 인간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인간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화가 방혜자는 자연과 우주, 인간의 내적 교감을 투명한 빛을 그려낸 회화로 표현했으며, 김형대는 캔버스에 색을 겹쳐 칠한 뒤 그 위에 우리의 전통 모시나 비단 같은 엷은 베일을 드리워 보는 이를 아득하고 근원적인 풍경으로 여행하게 만들고 있다.



◇김아타作, '니르바나 시리즈'.

김주연은 영은미술관 주변에 버려진 자연물에서, 김나영은 작업실에 끈끈이를 매달아 우연히 포착하게 되는 사물들에서 우연과 필연의 만남을 다루었다.

탕황첸은 실제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 발견한 오브제와의 소통을 주제로 한 비디오와 설치를 선보였다.

윤영석은 나프탈렌으로 정교하게 인체의 뇌를 조각해 시간이 흐르면서 소멸되는 기억, 후각을 통해 인지되는 기억의 이중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육근병은 인간의 눈을 모니터에 담은 비디오 설치 작업을 통해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대상으로서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는 상황을 제시했다. (031)761-0137

김주일 기자

문화소식

4집음반 기념 콘서트
풍경소리, 문화일보홀서

이종만 '좋은벗 풍경소리' 대표는 8월 27일 오후 7시30분 문화일보홀에서 4집 발매기념 콘서트 '자유의 바람'을 연다. 찬불동요 대중화에 앞장서온 이종만 씨는 이번 콘서트에서 4집 음반에 수록된 '장돌뱅이',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살아 있는 기억', '한새벽' 등 10여곡을 연주한다. 또 이별의 슬픔을 주제로 원성 스님이 작사한 '애별리고'와 '자유의 바람' 등 찬불가 3곡도 부른다. (02)723-9836.

불교문화센터 실기반생
홍익대서 첫 종합회원전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문화센터 실기반 수강생들이 '제1회 종합회원전'을 갖는다. 8월 27일까지 홍익대 대학로캠퍼스 서울국제디자인프라자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140여명의 회원들이 150여점의 개금, 불화, 단청, 서예, 민화, 사경, 서양화, 유화, 문인화, 사군자 작품을 선보인다. 한편 내년 5월에는 몽골 고려사에서 한국불화전시회도 열 계획이다. (02)703-0108.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TV <ch 32>

06:05 불교강좌
10:05 BBS신행상담실
11:05 행복스튜디오 황청원입니다
14:05 네트워크 연결, 전국은 오늘
16:45 룸비니 동산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27일 13:20 시가 있는 찻집
28일 08:30 정세채의 선식건강법
29일 17:30 정률스님의 오늘은 좋은 날
30일 09:20 설수진의 러빙유
31일 14:10 최완수의 불교문화 바로알기
1일 08:30 명상으로 하는 태교와 육아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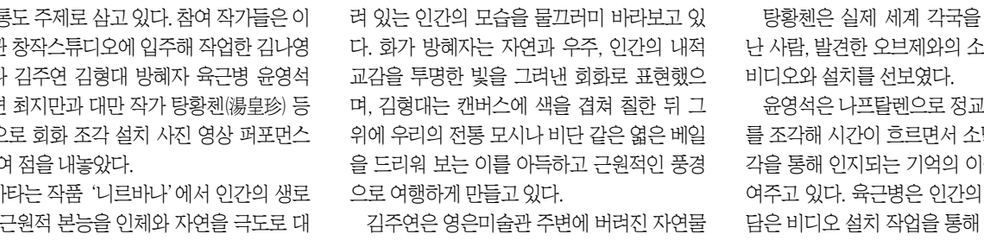
▷ 룸비니 동산(9월 1일 16:45~17:00)=월요일 시간에는 부처님 십대제자에서부터 성철스님까지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안겨준 스님들의 이야기 '스님 스님, 우리 스님'과 어린이들의 해맑은 목소리로 감상하는 불교 동시 '동시산책' 등의 코너가 마련된다.

■불교텔레비전

▷ 설수진의 러빙유(8월 30일 09:20~) 80년대 검정고무신과 단발머리로 안방극장을 장식했던 드라마 '간난이'의 주인공 김수양을 만나본다.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칠 보) | 내호함 (도자기) | 연꽃문양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화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서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램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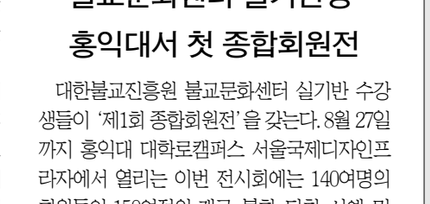
이 화 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춘추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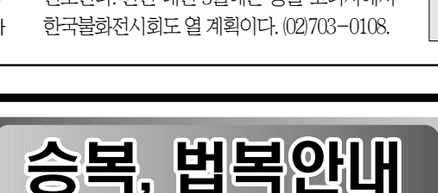


●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 동방,바지 ₩160,000 | ● 두루막 ₩140,000 | ● ₩60,000

조끼·몸배

◆ 모직(올 50%) ◆ 광목 ◆ 순면(무늬있는 먹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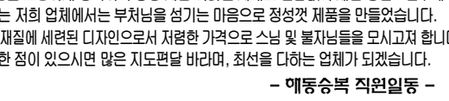
하복



적삼·조끼·바지

● 구김이 없고 세탁이 용이한 재질 A. ₩130,000 B. ₩160,000 | ● 마 ₩160,000 | ● 모직 ₩160,000

셔츠



라운드형 | 차이나형 | 칠부

● ₩20,000 ~ 35,000원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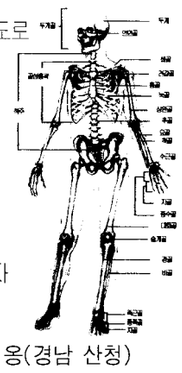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중앙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벌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25화 감동한 바라나시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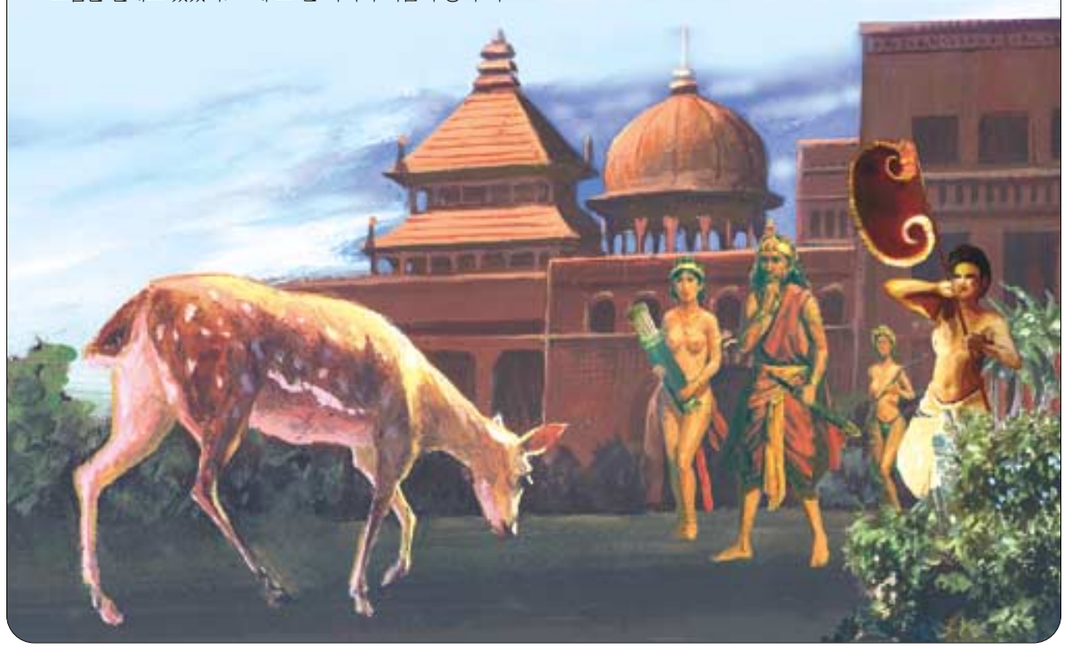


바라나시의 왕은 눈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사슴을 향하여 화살을 날렸다. 화살에 맞은 사슴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어갔고 왕의 잔인한 행동을 바라본 왕비의 마음은 슬픔에 젖었다. 왕 역시 죽으러 온 사슴을 쏘아 잡고 보니 숲속을 달리며 쫓기는 사슴을 잡을 때와는 달리 별로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다.

"아! 이게 뭐야. 아무 재미도 없잖아. 이것은 사냥이 아니고 백정처럼 그저 도살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러나 나는 이미 사슴왕과 약속을 해 버렸으니 공연히 사냥의 재미만 놓쳐 버리고 말았구나." 바라나시의 왕은 사슴 왕과의 약속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날도 할 일 없이 궁녀들을 데리고 정원을 산책하며 무료함을 달래고 있었다. 그때 또 한 마리의 사슴이 왕의 사냥감이 되기 위해 궁중의 정원으로 찾아와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사냥에 흥미를 잃어버린 왕은 얼른 화살을 쏘지 않고 그저 희생될 순번에 따라 찾아온 사슴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사슴과는 달리 이번의 사슴은 죽음을 몹시도 두려워하는 듯 얼굴을 내리고 몸을 바들바들 떨며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때 또 한 마리의 사슴이 수풀을 헤치고 달려오고 있었다. 자세히 관찰해 보니 나중에 뛰어든 사슴은 얼마 전 왕과 흥정을 성공시켰던 바로 그 사슴 왕이었다. 사슴왕은 먼저 와 있던 암사슴을 향하여 이상한 몸짓을 하며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며 먼저 와 있던 사슴은 감격에 젖은 표정으로 그 큰 눈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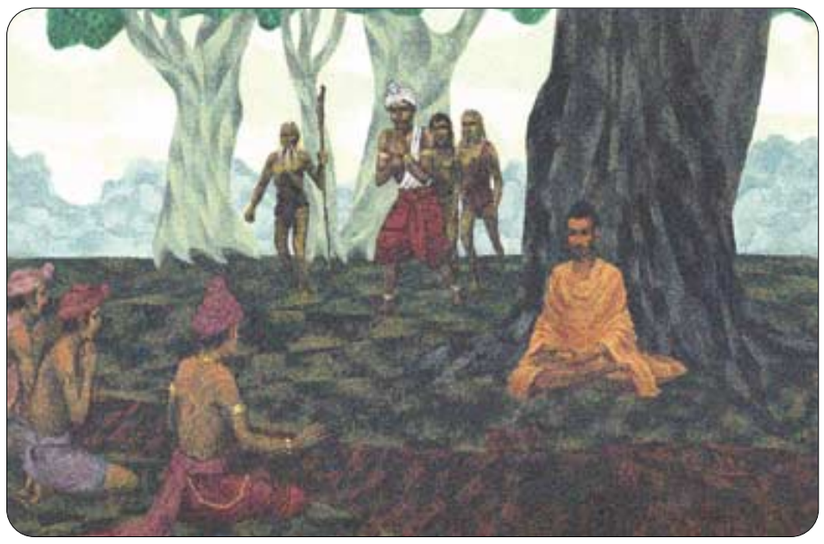
이 두 마리 사슴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있던 바라나시 왕은 자기가 알 수 없는 모종의 곡절이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바라나시의 왕은 지난번처럼 마음을 모아 그 사슴 왕에게 무슨 영문인가 물었다. 그러자 사슴왕은 역시 지난번처럼 왕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을 전해왔다.

"대왕마마, 이 암사슴은 우리가 뽑은 순번에 의하여 오늘 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슴은 지금 새끼를 배고 있으므로 지금 자기가 죽으면 몸속에 있는 죄 없는 새끼들도 같이 죽게 됨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암사슴은 데바(提婆)사슴왕의 지휘 밑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 자기의 사정을 제왕에게 호소해 보았으나 그가 순서를 지킬 것을 명령하여 할 수 없이 울면서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후에 제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아도 죄 없는 그의 새끼들을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죽어주기 위하여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슴왕의 설명을 들은 바라나시의 왕은 사슴왕의 자비심에 크게 감동하여 더이상 사슴 사냥을 못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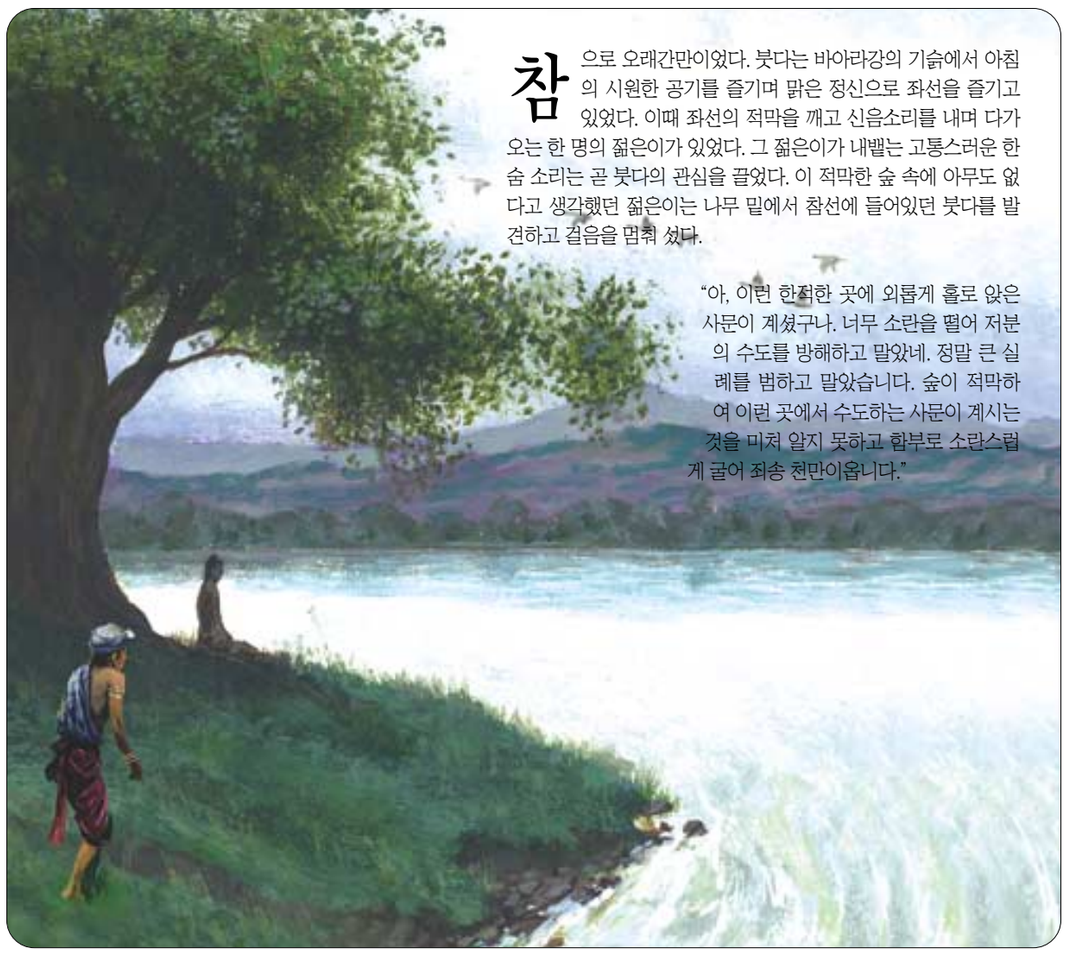


평화롭고 아름다운 물가다바는 '이시파타나(Rsiptana)'라고도 하는데, 이는 많은 수행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다. 부처님과 그의 다섯 제자들은 모두 여섯명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교단을 탄생시키고 있었다. 이 최초의 승가(僧伽, Sangha) 여섯명 중 두 명은 서로의 순번에 의하여 매일 같이 탁발하여 공동분배 하였고 다른 네 사람은 계속하여 그들의 깨우침을 널리 전파시키기 위한 방법에 몰두하게 되었다.

부처님이 사슴동산에서 행한 최초의 설법을 '초전법륜(初轉法輪)'이라고 한다.

법륜(法輪)이란 담마찻카(Dhammackka)로써 '진리의 수레바퀴'라는 뜻이다. 수레바퀴는 고대 인도에서 전쟁에 쓰던 부메랑의 일종으로 적을 향하여 던지는 것이어서 '전륜성왕(轉輪聖王)'의 '전륜' 역시 세계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진리의 수레바퀴를 쓰러지지 않게 계속 굴려야 하며 이 수레바퀴가 구르는 동안 진리는 계속 퍼져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전륜성왕 역시 성왕의 힘을 계속 굴려서 결국 세계를 통일하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전륜성왕(轉輪聖王)은 '차크라 바르틴(Cakra-Vartiraja)'이라는 인도의 범어인데, 수미 4주의 세계를 통솔하는 대왕을 말한다. 인도는 그 국토가 넓어 예전부터 단 한번도 통일 국가를 이루어 본 적이 없었다. 다만 전설 속에서만 전륜성왕이 나타나 인도 천하를 다스렸다고 전해지는, 가장 이상적인 군주를 가르키는 것이다.



참으로 오래간만이었다. 붓다는 바아라강의 기슭에서 아침의 시원한 공기를 즐기며 맑은 정신으로 좌선을 즐기고 있었다. 이때 좌선의 적막을 깨고 신음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한 명의 젊은이가 있었다. 그 젊은이가 내뱉는 고통스러운 한숨 소리는 곧 붓다의 관심을 끌었다. 이 적막한 숲 속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젊은이는 나무 밑에서 참선에 들어있던 붓다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춰 섰다.

"아, 이런 한적한 곳에 외롭게 홀로 앉은 사문이 계셨구나. 너무 소란을 떨어 저분의 수도를 방해하고 말았네. 정말 큰 실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숲이 적막하여 이런 곳에서 수도하는 사문이 계시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함부로 소란스럽게 굴어 죄송 천만이옵니다."

"아니야. 괜찮으니 너무 염려 말게나. 나는 지금 몸과 마음을 조용히 쉬고 있는 중이었네. 그런데 문제는 나보다도 젊은이에게 있는 것 같아 걱정이군. 도대체 무슨 고통이 그리 심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려 들고 있는가? 지금 자네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내뿜는 숨소리와 또 그 살인이라도 저지를 듯한 그 분노의 표정으로 보아 자네는 지금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한 괴로움으로 자신을 극도로 학대하려고 하고 있어!"

"자 이리 가까이 다가오게.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전후 사정을 풀어보게. 어쩌면 내가 자네가 찾고 있는 해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사문이시여. 저의 이 고통스러운 사연을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바라나시에 살고 있는 대지주 구리간의 아들 야사스(Yasas,耶舍)이옵니다. 저의 집은 경제적으로 풍부하여 바라나시의 상류층 인사들과 항상 같이 어울리며,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나는 매일같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잔치를 펼치고 놀았습니다. 잔치에는 으레 춤과 노래와 연주가 따르는 법이 아닙니까? 우리는 많은 무희들을 불러 들였지요."



이 세상 누구에 의해 움직이나?

문 다른 종교에서는 자구나 모든 만물이 어떤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길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억겁의 윤회를 거쳐 가면서 인간이라는 몸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불교에서는 자연법칙을 그대로 순응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처님의 힘이나 그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이나 모든 만물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원래 갖추어져 있는데도 모르니까 믿어야 하고 맡겨야 하고 관해야

답 뭘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50%라면 보이는 세계가 50%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음과 양이 한데 합치고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서 한 사람이 태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지는 동시에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자기 영혼이 거기에 계합이 돼야 합니다. 즉 자신말입니다. 자신이 계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아이가 출중하냐 안 하냐가 달려 있습니다.

참 묘한 법이죠.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서 하나만 남고는 나머지는 물로 돌아가 그 물질 자체가 다 없어지고, 한데 합쳐진 그 하나에서 모습을 바꿔서 다시 수억 마리가 되니 말입니다. 두 사람의 정자와 난자 속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면 인간의 몸 하나에 또 수억 마리가 들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로 대장을 하나 바깥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몸뚱이를 하나 내놓고는 그 몸뚱이 속에 내가 수억 마리가 돼 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몸뚱이 속에 있는 내가 옳습니까, 현재에 나와서 사는 내가 옳습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내 속에 천차만별로 들어 있는 그 생명들과 지금 이 육신의 생명이 따로 있습니까? 내 뱃속 오장 육부 속에 있는 생명들이 진짜 생명입니까? 어떤 것이 진짜 내 생명입니까? 그래서 신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한마음의 자성신이 수십억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나라에 아주 급한 일이 생겼는데 50억의 군사가 나라를 먹어치우려고 쳐들어오고 있었답니다. 이쪽 나라에는 군사가 10억뿐이니 저쪽에 비하면 아주 적은 군졸들이죠. 그러니 질 게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 나라에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50억을 10억이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는가. 같이 대항하자면 40억이 더 많아.'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한생각 하기를 '모습 없는 모습이여! 그쪽에 50억이라면 나도 체가 없으니 50억이 될 수 있지 않는가. 모습 없는 내 모습이 그쪽 모습 있는 데로 가서 내가 된다면 50억이 싸움할 일도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한생각을 하면서 피리를 부니까 그쪽에서 전부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야, 우리가 싸움을 해서 뭘 하냐.'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50억이 전부 피리 부는 사람 한 사람이 돼 버린 거죠. 아시겠어요? 피리 부는 한 사람이 50억이 돼 가지고 뿔뿔이 다 헤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 싸움을 할 수도 없고, 이기고 지고 할 것도 없는 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에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이라는 것은 30억 년 전이나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자성신이나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입니다. 차를 끌고 다니는 것을 예를 들어봅시다. 신이 기름이라면, 기름은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도둑질을 하러 가든 말을 안 합니다. 근데 마음내는 그 놀음은 운전수에 달렸어요. 이리로 가든지 저리로 가든지 망해먹든지, 이건 운전수가 끌고 가기에 달렸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사람에게 짐승의 허물을 쓰게 하느냐, 다시 사람의 허물을 쓰게 하느냐. 또는 비상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느냐, 또는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느냐.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대로 자연 법계에서 벌써 주어져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아이고, 사람 살기 귀찮아서 어떡하나.' 하고 말입니다. 죄가 있다 없다, 유전이 있다 업보가 있다,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 내 팔자가 어떤가, 운명이 어떤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왜냐? 자성신은 생각 내는 생산처란 말입니다.

체가 없는데다가 체가 없는 걸 놓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자석에다가 자석을 붙이면 다 한 자석이 되듯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없어져 버리는 동시에, 즉 체가 없는 것이, 체가 없는 생각을 잘하면 다 녹아 버리는 동시에 생각을 좋게 자기 분수에 맞게 잘 내면 생산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삼천 년 전의 신이 따로 있고 지금 현재의 자기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저 높은 어디에 신이 계신다고 한다면 자기 신은 능력이 없고 부처님 신만 능력이 있는 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생각을 하는 데에 따라서, 기름은 본래 주어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차를 잘만 끌고 다닌다면, 한생각 잘 해서 잘 끌고 갈 수만 있다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생각을 하고 낼 수 있는 그 자성신에 의해서 우주 공간 안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일체가 다 될 수가 있고, 천차만별의 신이 내 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뇌물을 가지고 가서 바치니까 "야, 이거 못 받겠다. 난 이런 거 안 받는다. 내가 해 줄 수 있으면 그냥 해 줄지언정 이건 받지 않겠다." 하길래 "아무도 없는데 뭘 그러냐?" 고 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 네가 없고 나만 있어서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우주 전체에서 알고 있는 것인데 어찌 없다고 하겠느냐. 내 마음에서 아는 것을 전체가 알고 있거늘 어찌 그렇게 치사하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짐 무겁게 해주지 말고 이거 가지고 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 하나로 인해서 그냥 짐을 잔뜩 무겁게 짊어지고 살기도 하고, 또 한생각을 잘해서 괴롭지 않고 아주 편하고 가볍게 살 수도 있으니까요. 알고 보면 괴로운 것도 없지만 말입니다.

옳게 관하고 있는지요?

문 현대불교신문에 실린 법문을 통해서 주인공에 관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생각의 흐름과 감정의 흐름을 잘 지켜보는 것을 관하는 거라고 생각하여, 생각의 흐름이나 감정의 뒤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게 관하는 것인지요? 틀리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관하는 것인지 가르침 주시길 바랍니다.

답 누구든지 앉아서 관하든지 서서 관하든지 누워서 관하든지 일하면서 관하든지 바로 들어간다면 참선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한마음 주인공밖에 없어" 그렇게 믿고 그 자리에 맡겨 놓는 것이 관이에요. 관해 본다, 관해 듣는다, 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말하고 있다, 움죽거리고 있다 이런 걸 이름 해서 관세음라고 이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이라고 하기 이전에 각자 나를 먼저 발견해야 하니까, 나부터 알아야 하니까, 진리 속에서 참구해서 알아야 하니까 내가 있는 것을, 즉 말하자면 내 집에 전화부터 놔야 남의 집에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남의 전화도 받을 수 있듯이, 나부터 먼저 믿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다는 것을, 과거 살던 내 근본 불성 자체가 있다는 것을 주인공, 너만이 알게 할 수 있다.' 하는 게 참구하는 거고 관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진실히 공부해 나가다보면 그 다음에는 일하면서도 관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애로가 닥치는데, 누가 아프다든가 뭐 별의별 게 다 닥치죠. 그런데 그렇게 닥치더라도 '거기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하고 거기 맡기고, '거기서만이 이끌어줄 수 있고 화목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올 수 있다.' 하고 모든 걸 하나로 둥글려서 놓고 가다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우주만물 천체가 내 도량 아님이 없음을 알게 되니 비로소 관한다는 말조차도 붙지 않는 자기 근본자리를 발현하게 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새롭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갖추어져 있는데도 여러분이 모르고 또 못 믿으니까 관하라고 하는 거고, 믿으라고 하는 거고, 일체를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로 믿고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거기다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겨 놓아야 나의 근본을 발현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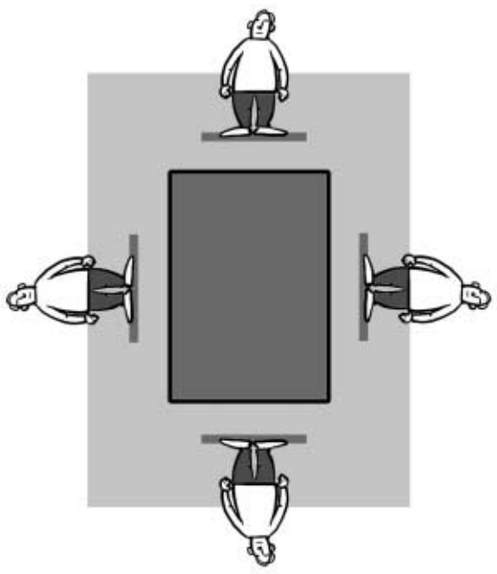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정혜쌍수에 대해서

문 정혜쌍수(定慧雙修)라 하여 선정과 지혜가 같이 가야 하고, 자비와 지혜라는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왜 같이 가야 하며,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예전에 어느 큰스님께서 눈 뜨고 푹 자야 된다고 하셨듯이, 여러분이 눈을 뜨고 푹 자지 않으면 선정에 들 수가 없고 지혜도 커지지 않습니다. 무의 세계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움죽거리고 하는 것은 근본 자동기에 의해서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의해서 스위치만 눌렀다 하면은 그냥 자동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물질과 더불어 이 세상의 진리가 전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이고 내는 그 용(用),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선정이라 하면은 우리 몸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이 몸을 다스린다 이 소립니다. 이것을 둘로 한데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균등을 잡아서 같이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선이다 악이다 하는 걸 떠나고 선정과 지혜를 균등을 잡아서 한데 놓는다면, 끄달리지 않는 법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고부터 공했다는 이치를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할 겁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 화두인데도 불구하고 공한 데다가 물질적인 그 자체를 덧붙여, 바로 보지 못하게 마음으로써 가려놓는 그런 덧붙이기 덧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공부하는 것은, 골바로 들어가는, 이 세상의 진리의 균형이 평등한 구넓을 바로 찌른단 얘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난 것이 화두이자 공했습니다. 그래서 공한 그 자체에서 나오는 만법은 공한 데로 들고 공한 데서 난다, 이것이 바로 선정이며 지혜입니다.

지혜가 활용이라면 선정은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본과 활용이 둘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데서 그대로 활용을 하되 그 활용은 누가 하는 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공해서 세울 것이 없다면서 무엇을 활용을 한다 하는가. 이것이 바로 함이 없는 무행, 무심으로써 돌아가는 자연 법칙입니다. 이것을 쌍으로, 즉 말하자면 선정과 지혜를 쌍으로 한꺼번에 넣고 굴리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위법에서 무위법을 배우고 무위법에서 유위법을 배우려고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내가 나를 찾는데 무지하게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의 실적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로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대로 모든 것을 주인공에 일임하라고 하고 거기에서 일체 만물이 들고 난다는 걸 바로 알고 관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한 가정에 살면서 한 가지 일을 보면서도, 때로는 부부지간의 생각이 다르고 자식들하고도 각각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각각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항상 당신과 나라고 둘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나무에 달린 콩이 콩깍지도 똑같은 콩깍지요 콩도 똑같은 콩인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아 놨어도,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도 자기는 껍데기로서 자기를 낳아 놓고 죽지 않은, 즉 말하자면 내놔도 줄지 않고 들여놔도 줄지 않고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두가 자기 모습이며 한뿌리 주인공의 가장구와 이파리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스스로 지혜와 자비가 커지게 되고, 모든 고가 다 스스로 녹게 됩니다. 그리고 홀연히 내가 그 세세한, 즉 말하자면 망상의 습도 홀연히 어느 사이에 다 끊어져서 내가 이 세상에 근본적으로, 편안하고 좋고 자유스럽게 됐을 때 비로소 화신불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화신불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모든 일에 지혜를 넓히고, 그렇게 지혜가 스스로 넓혀지니까 세존의 자리를 갖추게 된다는 얘기예요. 각을 이루어서 자기가 부처를 이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선 지도를 옛날과 같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옛날과 지금이 뜻과 법이 다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대에 따라 어떠한 방편을 쓰느냐에 따라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물깊이를 알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라야만이 그 물속의 이치를 전달을 해도 함이 없이 할 줄 알고 서로가 마음이, 즉 말하자면 자가발전소의 에너지는 왔다갔다 오고 감이 없이 자동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내 근본에서 내 몸을 스스로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구차하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살려고 애써도 살아지지 않는 거고 죽으려고 애써도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다면 자기 주처에서 끌고 다닌다는 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선정과 지혜 양면을, 모든 걸 한데 합쳐서 쌍으로 뭉쳐 돌아갈 때에 그때 홀연히 과거 업식으로 인해 가지고 나온 종문서를 몽탕 태워버리는 거예요. 말기만 하면 타버리니까 세상에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도다!' 할 수 밖엔 없는 거죠.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로 규정을 지어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한 점의 마음에 있는 거다. 정과 혜가 둘이 아니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모든 것에 끄달리지 않는다면, 생활에서 끄달리지 않는 정과 마음에서 끄달리지 않는 혜가 균형을 잡고서 돌아간다면 이것은 천체물리학으로서 배울 수 있는, 이것이 말로 하니깐 그렇지 세상에는 더 볼 수 없는 공부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고 남 달린 코 달렸고 남 달린 눈 달렸고 남 달린 귀 달렸고, 오관을 통해서 엽렵하고 똑똑하게 모두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갈 수는 없다!' 하는 그러한 각오가 뚜렷하게 섰다면 여자든 남자든 마음은 둘이 아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칼을 뽑았다면 그냥 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칼을 뺐다가도 무서워서 달아난다면 오히려 자기 뒷잔등이에 칼이 꽂히게 되는 거죠.

누구나가 이 세상에 나왔다면 그만큼 벌써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부할 수 있는 권리! 권리증은 벌써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응애' 할 때 이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공부하는 이치가 무엇인가? 학술적으로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일거일동이 참선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에 맞춰서 눈 한 번 깜빡거리는 것도 참선이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일체를 놓고 쉬어라. 맡기고 물러서지 마라.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해라. 너의 몸뚱이는 네 주인의 시자밖에 되지 않는데 시자는 주인에 의해서 움죽거릴 뿐이니까 쉬어라.' 하는 거죠.

정과 혜 둘 아니게 균형 잡아서 모든 것에 끄달리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더 볼 수 없는 공부

☞30면으로 계속

물질계 자기는 정신계 자기를 믿고 오직 거기다가 맡기고 길을 걸어라

☞29면에서 계속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지

문 IMF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와 생활고가 심해지면서 취업난과 카드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과연 마음공부 즉, 둘이 아닌 하나 됨으로써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여러분이 지금 불일이 있어 부산으로 간다고 합시다. 또 광주로 가고 대구로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이나 광주, 대구로 온 것만 생각하거든요. 오는 것만 알고 되돌아가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있고 오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가는 길과 오는 길이 두 개가 한데 합쳐서 작용을 해야 할 텐데 양변이 작용을 못하는 까닭에, 즉 말하자면 물질계와 정신계가 한데 합쳐져서 작용을 해야 보이지 않는 50%에서 보이는 데로 나오게끔 돼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헤어나지 못하니 어지럽고, 물질세계에서 여직껏 살아나온 관습과 인과, 업보, 유전성 이런 걸로 꽉 뭉쳐서 돌아가니까 부작용이 나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데 접근이 되지 않고, 또 그러니 공덕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전체가 같이 돌아가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덕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별적인 하나의 생각으로서 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한마음 주인공은 포괄적인 하나이지 개별적인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은 체가 없어서, 즉 말하자면 영혼은 체가 없어서 마음도 마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은 체가 없어서 수만 개를 이룰 수도 있고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마저도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작용의 문제가, 정신계의 발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정신계를, 즉 말하자면 자기가 정신계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현실 물질계에서 50%만 살려니까 가는 길만 알지 오는 길은 모른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엔 없고 거죽의 모든 관습에 의해서만이 생각을 하게 돼서, 정말 진실하게 뿌리에서부터 가장구, 이파리까지 생각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뿌리가 깊이 묻어져야 가장구가 나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텐데 그렇지 못한 까닭이다 이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이러고저러고 말로 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 깊은 속에서 스스로 자기 과거에 살던 자기 영혼의 근본이 발현이 되면 현실의 나와 둘이 아니게 작용을 할 때에 에너지 광(光)이 생긴단 얘기죠. 그래서 지수화풍 자체가 대두가 돼서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재료로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본래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섯 가지 오신통이 굴려지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은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거, 보는 게 없이 보는 거, 듣는 게 없이 듣는 거, 또는 남의 속을 아는 게 없이 아는 거, 과거를 아는 게 없이 전체 아는 거, 그거를 오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진으로 하여금 굴린다 이 소리죠.

그래서 한마음 주인공 자리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거기서만이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이 그 숙명통 컴퓨터,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우라고 컴퓨터라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살던 대로 입력이 된 것이 용도에 따라 솔솔 나오는데 어디 가서 그것을 해결한 건가 이거죠. 살던 고대로 입력이 돼가지고 현실에 자꾸 그게 나오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거를 되돌려서 거기다가 맡겨 놓는다면은 앞서에 입력했던 게 없어질 거 아니냐 이겁니다. 새로 입력을 하면 앞서 입력되었던 건 지워지고 다시 새롭게 입력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자고 하는 거죠.

없어지고 또 없어지게끔 이렇게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물러서지 않고 열심히 하다보면 내 주인공자리의 맛을 볼 수 있으니 그때는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이, 설사 지금 당장 먹을거리가 없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여하게 자유자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무궁무진한 보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모두 꺼내 쓸 생각을 못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니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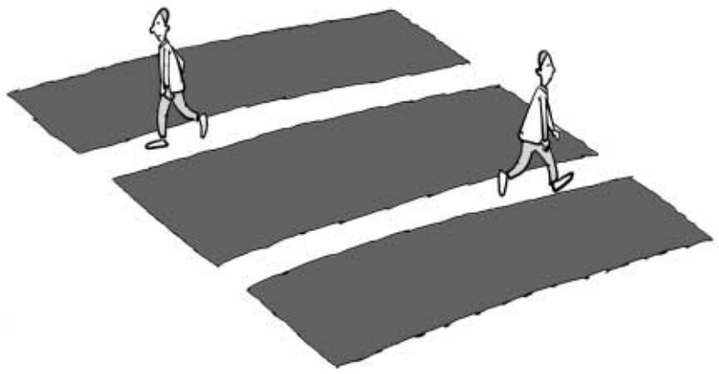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주인공 발견하려면…

문 주인공에 일체를 맡기며 생활하다보니까 마음이 편해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인공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 마음이 편할 때 주인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종종 '주인공은 누구인가?'라거나 '주인공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화두를 염합니다만, 스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난 자체가 화두이니, 화두를 따로 드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이 편할 때 주인공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과, 화두를 드는 것이 바른 수행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화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화두입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내 앞에 수박이 놓여있는데 쪼개서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요 놈이 뭘꼬?' 하고 평생을 굴리고 굴려봐야 그 맛은 못 볼 겁니다. 수박을 놓고 '이게 뭘꼬?' 하고 있어 봤자 그 맛을 알 수가 없으니 무조건 쪼개서 맛을 보고 그걸 넘어서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무조건 마음의 칼로 쪼개서 맛을 봐라 하듯이, 주인공에 모든 것은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다 하고 아예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그냥 수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박을 놓고 이 뭣고 하기 이전에 그냥 수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가 갑니까?

수박을 내 몸이라고 합시다. 수박을 놓고 요놈이 뭘꼬 하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관이라고 할 수 있고 참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세상은 홀떡 넘어서야 할 세상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빨라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자전거에 치인다는 노래 아시죠? 그렇듯이 우물쭈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가오는 대로 그냥 잘라서 먹고 넘어가라 이거예요.

부처님이 앞에 있어도 그냥 먹고 넘어가라 이 소리죠. 일체 만법을 다 거기다가 맡겨 놓고 넘어가는데, 고놈만은 왜 놓지 못하고 고놈이 뭘꼬 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고놈이 뭘꼬 하기 이전에 그냥 고놈도 꿀떡 집어삼키고 넘어서라 이 소리예요. 그럼 맛을 알게 될 겁니다. 고놈 맛을.

고놈이 뭘꼬 하고 아무리 그래 봤자야 그냥 올타리 밑에서 맴도는 거와 같으니까 그냥 꿀떡 집어삼켜서 먹고 넘어서서 길을 걸어라, 자기를 꼭 붙잡고 물질계의 자기는 정신계의 자기를 믿고 오직 거기다 맡기고 길을 걸어라 이겁니다.

무기공에 빠진 것 같은데…

문 **주인공에 관하는 수행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감정이 나오는 족족 '주인공이 하는 거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 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나 감정들이 금방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러면 생각이나 감정이 없이 무생물처럼 멍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기공에 빠지는 것도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맞게 가는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그 자리에 놓아버린다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자기이고,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도 자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 구절은 대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문제의 원인을 만들고 내가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벌써 부처 될 수 있다는 인가를 받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 자기를 의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문이 하도 많으니깐 무문(無門)이라고 했겠지마는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내가 문입니다. 내가 나왔으니 내가 나온 자리로 다시 들어가야죠. 그래, 거기서 살림살이를 전부 하는 건데 어디서 한다고 딴 데서 자꾸 남의 이름을 부르느냐는 겁니다.

그냥 내 주인공에 모든 걸 일임해서 몰락 놔 버려라, 내 주인공에 감사해라. 그리고 그러함을 진실로 믿어라 이럽니다. 모든 것은 내 주인공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거일동 움죽거리게 하는 것조차도, 어떤 환상이 보여도 거기다 일임해서 놔 버리다 보면 진짜 내 스스로서 환희롭게 발현이 돼서 다 알게 되는 이치가 있으니 거기에서 의정도 나오고 그러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일체가 그 자리에서 들고 난다는 것을 알고 몰록 내려놓으면 무기공에 빠질래야 빠질 것도 없습니다. 무기공이 뭐 어디 따로 있나요. 마음이 잘못되면 무기공이지.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는 게 그대로 여여하지 못하면 무기공이죠. 그렇지만 다 놔버리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게 놓는 게 아니거든요. 본래 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거일동, 일어서고 똥 누고 밥 먹고 이러는 게 전부 공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이 없이 한 거니까 하긴 했어도 여여하게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공(空)이다 하는 것은 유(有)로 살리기 위한 공이지 없을 공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살리고자 하는 공부를 하는 거지, 땅에 묻혀버리자 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흙이 덮어져서 안 보여도 다행히 싹은 우뚝하게 섰더라. 솟아서 그 싹이 다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전자의 내가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어찌 과거가 따로 있고 미래가 따로 있고 오늘이 따로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면 꼭두각시놀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배우들이 배역을 맡아서 쇼하는 것 같고, 같은 게 아니라 사실이죠, 뭐.

움죽거리고 사는 생활이 그대로 참선인 줄 알아야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무기공에 빠진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움죽거리고 사는 생활이 그대로 살아있는 선, 참선인 줄 모르고 아주 생활까지도 버리고 어느 하나를 고집하면서 그냥 앉아있으려고만 하니 그게 무기공에 빠진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생활하면서,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는 그대로가 좌선이며, 또한 마음으로 모든 걸 맡기고 사니까 언제든 편안한 것이 좌선이죠. 그러니 뛰고 앉고 서고 자고 하는 게 전부 참선이니까 둘로 보지 마시고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 나온 그 자리에 돌려놓고 지켜보면서 지극하게 관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적 성향에서 벗어나려면…

문 **감각적인 욕망이 많습니다. 그 욕망에 대해 자책을 하면서도 그 욕망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러한 욕망이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욕망에 이끌려 생활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느낌이 좋을 때는 감각 속에서 살고자 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스런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인공을 찾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중적 성향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답 나는 이중적인 성향이 없다고 봐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이 바로 주인이 있으니까 육신이 생산돼서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또 나왔으니까 모두 들이고 내는 거, 요만한 거 하나도 그냥이 없어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움죽거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말을 하고 움죽거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각각 떨어져 있나요, 전부 하나이지.

어디에서 누가 악을 쓰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눈도 가고 귀도 가죠? 귀가 가면 판단도 내리죠? 이렇게 다 같이 호응이 돼서 돌아가지 그냥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부해서 그거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되놔라, 이거죠. 거기다가 되맡기고, 안되는 것도 거기니까 되는 것도 거기다, 안되는 것이 있다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거다. 그러니깐 거기서만이 해결해줄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거기다 맡겨 놓고, 이것이 발전이 되면은, 정신계의 발전이 되면 그때는 모두와 더불어 벗어나게 됩니다.

안되는 것도 거기니까 되는 것도 거기다

그건 무슨 연고냐? 말없는 데서, 즉 무심으로서 모든 사람들한테 마음이 오고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인연의 끈과 끈이 다 직결로 연결이 돼있어서 가설이 돼있기 때문에 어디서 오든지 어떤 게 오든지 서로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좀 있어야 모든 거를 놓을 수도 있는 거다 이 소리죠. 능력이 없으면 놓을 수가 없거든요. 발발발발 떨면서 당장 이게 없는데 이걸 어떡하면 좋은가 하고, 이게 당장 안되는데 이걸 어떡하면 좋을까 하고 벌벌 떠니까 더 안되는 거예요. 사량으로만 야단법석을 하니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벌써 작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어주진 않고 자기가 그냥 발산을 하니까 그 말한 발산은 풍지박산이 돼서 없어지고, 귀신 방귀 뀌면 없어지듯이 없어지고 말아버리는 거죠, 뭐. 그러니까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음공부를 하면 돌에 세워놔도 산다고 그랬어요. 바가지 한쪽이 없어도, 이건 바가지로 비유하는 겁니다. 쌀을 일어야 하는데 바가지가 없어서 어디 가서 얻어다가 이 쌀을 일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벌써 바가지는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광대무변한 묘법인데도 여러분이 정신세계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자기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을 믿지 않고, 또 거기다 맡겨놓을 줄 모르고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뭐, 가는 길 50% 밖에는 모르는 거죠. 오는 길 50%하고 맞물려서 같이 작용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질 못하니깐 그렇게 생각으로 끄달려서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안 믿어지고 또 모르겠더라도 자기를 끌고 다닌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자기 주인공에다 돌려서 맡겨 놓고 모든 것은 거기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되는 것도 거기 안되는 것도 거기니까 일체를 내려놓고 좀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쁘든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세계불교 온라인 미디어의 현주소

다양한 컨텐츠만이 살길

불교 미디어는 인터넷에서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을까? '사이버 저널리즘'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정도로 오프라인 미디어의 온라인 진출이 디지털 시대의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의 불교 신문 · 잡지 역시 이런 흐름에 발맞춰가고 있다.

불교 미디어들은 전문지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일간보다는 계간이 많다. 대표적인 계간 잡지로는 <트라이시클(Tricycle)>, <샴발라선(Shambhala Sun)>, <만달라(Mandala)> 등이 있다.

일간 사이트의 경우, 오프라인 매체의 온라인 화보다 메일링 서비스 형태로 기사를 제공했다. 또 스스로 기사를 생산하기보다 매일 타 미디어의 불교관련 소식을 모아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실정이다. '담마 타임즈(The Dhamma Times)'가 그 대표적인 예다. 싱가포르 불교사이트 중 최대규모인 '더데일리인라이트먼트(The Daily Enlightenment)'도 이에 속한다.

이 외에도 대만 자제공덕회에서 발행하는 격주간 신문 '자제도여'와 월간 <자제>, 불교예술 전문지인 <어서나(Urthona)>, 티베트 불교 선사들의 가르침과 인터뷰 내용으로 구성되는 <부디즘 투데이(Buddhism Today)> 등이 인터넷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 미디어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기사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활성화 된 사이트 일수록 단순한 기사 제공에서 벗어나 온라인 커뮤니티, 쇼핑, 토론 공간 등 네티즌의 다양한 요구에 발맞추려한 노력이 엿보였다. 다시 말해 완전한 포탈은 아니지만 준 포탈로서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온라인 진출 디지털시대 필수
대부분 타매체 소식 모아 서비스
활성 사이트 일수록 충족도 높아

이같은 불교미디어들이 보다 활발한 홍보를 통해 독자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사제공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네티즌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차별화 된 컨텐츠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 미디어에 주어진 과제다.

특히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등 국내 불교미디어 사이트들은 전 세계 불자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는 영문 서비스 개설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 트라이시클 (Tricycle- www.tricycle.com) : 국내에도 잘 알려진 불교종합정보지. 1991년에 창간된 비영리 계간지.

▣ 만달라(Mandala- www.mandalamagazine.org): 30년 전 티베트의 승려인 섭튼 예쉐(1935-1984)가 설립한 국제기구인 FPMT(Foundation for the Maha yana Tradition)에서 발행하는 잡지.

▣ 샴발라선(Shambhala Sun, www.shambhalasun.com):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불교시사 계간지. 불교뿐 아니라 예술, 정치, 대중문화 등 현대사회의 주요한 이슈들을 불교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잡지다.

▣ 담마타임즈 (The Dhamma Times, groups.yahoo.com/group/dhammatimes): 사이버 일간인 담마타임즈는 일반, 교계 미디어를 막론하고 그날 보도된 불교관련 소식을 야후 그룹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 더데일리인라이트먼트(The Daily Enlightenment, asp.thedailyenlightenment.com): 메일링서비스 일간. 멤버들의 칼럼, 기고, 싱가포르 불교 소식을 중심으로 오늘의 불경, 불교교리, 회원들 간의 선문답, 불교용품 쇼핑으로 구성됐다. 영어판과 중국어판이 있다.

▣ 격주간 자제도여, 월간 자제(Tzu Chi, www.tzuchi.org/global): 자제공덕회에서 발간하는 자제도여는 격주간 신문, 자제는 중문 · 영문 · 일문 등 3개 국어로 발행되는 월간 잡지다.

▣ 어서나(Urthona, www.urthona.com): 영국에서 발행되며, 불교와 예술을 주제로 한 잡지다. 불교와 관련된 예술, 세계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 부디즘 투데이(Buddhism Today, www.diamondway.org): 미국 캘리포니아 비영리 다이아몬드 웨이 불교 센터(Diamond Way Buddhist Center)에서 발간하는 잡지.

세계의 불교학 연구현장

① 옥스퍼드 · 빨리성전협회(Pali Text Society)

언어학 · 고문헌 연구 활발
빨리성전협 세계 대표 학술단체
100여년간 경전 번역 · 연구 독보적

8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옥스퍼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은 한국이나 일본 등 동양의 대학과는 달리 불교학과가 따로 분리돼있지 않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는 원전연구와 인도철학이 불교관련 학과로 주류를 이뤄 주로 박사과정에만 독립된 '불교학 학위과정'이 있다. 옥스퍼드 역시 석사과정에서 인도종교학 학위과정이 있으며 박사과정에서 원시불교, 대승불교, 빨리경전 등 불교학 과목의 연구를 신청할 수 있다. 학부과정에서는 동양학부 내 인도학과에서 불교공부를 할 수 있기도 하다.

'옥스퍼드'하면 영어사전을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로 옥스퍼드는 인문학이 가장 잘 발달돼 있으며, 특히 문헌학과 언어학은 오랜 전통과 함께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불교에 대한 연구 또한 이와 같이 철학적인 접근보다 언어학과 고문헌에 대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옥스퍼드에서 북쪽으로 13㎞ 떨어진 옥스퍼드의 명소 '브렌하임 궁전'의 모습.

옥스퍼드에는 불교학의 권위자 곰브리히 교수(R.Gombrich)가 있으며 그는 빨리성전협회(Pali Text Society, www.palitext.demon.co.uk)의 회장을 맡고 있다. 빨리성전협회는 영국 불교학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불교학술단체로 손꼽힌다.

영국의 집정관으로 스리랑카에 방문했던 리스 데이빗(Rhys Davids) 부부에 의해 1881년 영국에서 창립된 빨리성전협회는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빨리 문헌 연구의 기본 텍스트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후 100여 년 동안 동 · 중아시아에서 들어온 대부분의 경전을 번역 · 연구하면서 독자적인 역량을 쌓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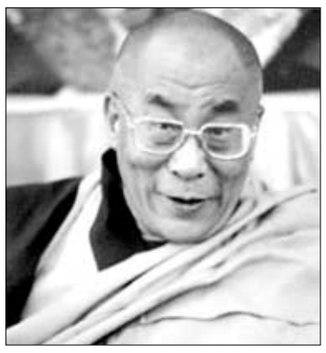
이들은 빨리어 삼장(三藏) 모두를 번역해 영국 불교학의 학문적 배경과 초기 인도불교학 발전에 기여했다. 영어로 번역된 빨리 경전 150여권이 출판되었으며, 학회는 현재까지 주석서 번역에 주력해오고 있다.

옥스퍼드는 이밖에도 런던, 캠프리지 대학 등과 함께 영국 대영도서관의 돈황프로젝트(International Dunhuang Project)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스타인 박사(Aurel Stein 1862~1943)가 인도, 중국, 이란, 이라크, 요르단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견해 유럽으로 들여온 경전을 번역, 판본을 연구해 디지털 경전을 만드는 사업이다.

한상희 기자

달라이 라마 9월 17일 뉴욕 방문

4일간 매일 2회 강연 · 공개토론 개최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9월 17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서 달라이 라마는 매일 2회의 불교 강연회와 공개 대화의 시간(21일)을 가질 예정이다.

17일부터 21일 브로드웨이 74번가에서 열리는 불교강연회에서는 불교 수행과 철학적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달라이 라마는 21일 센트럴파크에서 뉴욕의 불자들을 위한 공개토론회도 갖는다. 11세기 인도의 성자 아티샤(Atisha)의 글인 '보살의 보석 화관(The Boddhisattva's Jewel garland)'을 주제로 해, 어떻게 마음을 수행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낼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1일 오후 7시 링컨센터에서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콘서트'가 개최된다.

뉴욕= 강유신 특파원

스리랑카, 불교사전 편찬 박차

스리랑카 불교부(部) 로쿠반다라(W. J. M) 장관은 스리랑카 불교자문단에 '영문 불교 백과대사전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스리랑카의 선데이 옵저버가 8월 10일 전했다.

1955년 스리랑카불교협회가 불기 2500년을 기념해 최초로 발간작업에 착수한 바 있는 영문 불교백과대사전은 현재 알파벳 'L'에 해당하는 작업까지 완료됐으며, 이는 1961년 21권의 분책(分冊)으로 발간된 바 있다.

로쿠반다라 장관은 "향후 5~6년 이내로 이 사전의 편찬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백과대사전은 각권마다 80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총 11권으로 제작될 계획이다. 또 각권의 내용을 4권 정도의 분책으로 함께 발간하게 된다.한상희 기자

대만의 우란분절에 3만명 참석

한국의 우란분절에 해당하는 '전국 공불재승(供佛齋僧)' 법회가 8월 17일 대만 북부 타오위엔현 국립 체육대학 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국가및 사회를 위한 기복행사와 함께, '효'에 대해서 선양한 이날 행사에는 각 지방에서 올라온 출, 재가 불자 3만여명이 동참했다. 대만= 이상미 통신원

신비의 약알카리 중탄산 약수

그동안 확실한 영가천도 도량으로 영험을 자랑하던 정토사에서는 우리몸에 가장 좋다는 (약알카리와+중탄산 약수) 우리나라에서도 한곳에만 나온다는 약알카리수에도 중탄산수는 함유되지 않았으나 정토사에서는 두가지성분모두 있으며 미네랄 성분인 양이온 나트륨 칼륨 칼슘 게르마늄등이 들어있어 과히 최고의 약수라고 자부합니다.

정토사의 약수는 지하 암반에서 나오는 순수한 자연그대로의 천연 약알카리와 중탄산 두가지 모두있는 암반 지하수입니다.
이 약수로 난에 15분정도 화분을 담구어 물을주면 약 4-5일정도 지나면 일반물로는 살려낼수없는 미세하고 아름다운 꽃의 색깔이 살아나오고 꽃의 수명이 오래갑니다.

또 중탄산수의 성분이 있어 장이 안좋아 변비나 된변을 보시는분 매일 변을 못보시는분은 정상인과 같이 하루에 한번 무른변을 보게됩니다.
그외 많은 좋은점이 많으나 생략합니다.

그동안 물량이 넉넉지않고 수질오염을 우려해 알리지 않았으나 불자님 들께 이 신비의 약수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jto3390@naver.com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
☎ 031-775-3350

지장보살원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보현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보현스님

새벽 맑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취해 명상에 빠진 보현스님은 날이면 날마다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엣된 여승을 바랑을 질어지고 목탁을 두들기며 서울 시내 지하철역마다 내렸다. 다시 타고 다음 역으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전 지하철을 4바퀴를 돌며 불교을 전하고 그들의 찌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출가 후 줄곳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증진하던 중 지장보살님의 화현하심을 영접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여 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답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 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료로 일만 여점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 때에는 안양의 00아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못해 부도 직전에 이른 수원의 어느 건설회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법당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홍익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선사의 원력으로 어렵고 괴로운 고(苦)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문의 전화 02)857-4576, 017)430-5008
보현사 보현스님 합장

불교의식(범음 · 범패)
제 2기생 학인모집

본 대구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초종파를 막론하고 불교의식 염불, 또는 범패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이라면(스님)은 물론 현재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교임 또는 법사님께서도 본 교육원을 이수하신 후에는 아무런 불편없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과 정

▶ 의식 초급반(3개월) 주 2회 강의 (매주 월, 화요일)
● 강의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 (2시간)
● 강의내용 : (새벽 도량석, 종성염불, 상단새벽예불, 저녁예불, 아침송주, 저녁송주, 상단불공(제불통청), 신중퇴공, 행선축원, 불공축원, 관음시식, 배송, 사미율법 및 초발심 자경문
▶ 의식중급반 (5개월) 주 2회 강의(매주 수, 목요일)
● 강의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 (2시간)
● 강의내용 : 시련절차, 천도, 49제 재공편, 전점안법, 설교의식, 시왕불공, 시식, 배송, 다비편, 방생의식, 불상 및 탱화 점안법, 예수제의문, 구병시식 등
※ 재장엄번설치법, 령가축원문작성법, 위패, 지의, 전, 작성법
▶ 작법반 : 일반(5개월) 주 1회 지도(매주 일요일)
● 강의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2시간)
속성(2개월)주 1회지도(매주 금요일)시간 : 오후 1시 ~ 4시 30분(3시간 반)
● 종 목 : 천수바라, 도량계(나비춤), 사다나니(가지게) 화의재진연바라
▶ 역학반(10개월) 주 1회 지도(매주 수요일)
● 강의시간 : 오후1시~3시(2시간) ※ 특별강사초빙
▶ 사물특강반 내용 : 태징, 광쇠, 북치는법(천수북, 정근북, 장엄염불북, 요잡쇠)
● 기 간 : 3개월 주 1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2시간)
▶ 속성반 : 의식, 작법, 사물(짧은 기간에 이수하실분은 별도 등록 요함)

대구불교의식 법음 · 범패 교육원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3동 167-14(2층)
원장 주동주(동현) 합장 ☎ 053)955-7725

중풍(뇌졸증)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 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증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 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증(중풍), 동맹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 개발약사 약력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1965년 효성카톨릭대학교 약학과 졸업
▶1997년 홍채학 연구소 설립
▶현재 대체의학, 본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새한빛약국(반석 당뇨 연구실) 경영중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피부병

2달분 258,000원

구입신청 033-255-5669 오리엔탈제약(주)

경 축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개교 1주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건물외부 전경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불교학과 상담심리학을 중심으로 그 관련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 · 교수 · 훈련하는 전문대학원(교육인적자원부 인가)입니다.

대학원 학생모집

Ⅰ. 개설학과 및 수여학위

개설학과	전 공	수여학위	
		석 사	박 사
불교학과	불교학	불교학석사	불교학박사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박사
	명상학	명상학석사	명상학박사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	상담학석사	상담학박사
	자아초월상담학	상담학석사	상담학박사
	요가치료학	상담학석사	상담학박사

Ⅱ. 모집과정

1) 모집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연구과정 · 편입생
2) 박사과정 : 2004. 9. 1 개설 : 2004년 5월 모집

Ⅲ. 지원 자격

1) 석사과정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학부전공 상관없음).
2) 박사과정 :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Ⅳ. 전형 일정

1) 원서접수 기간 ◆봄 학기 : 매년 10월 셋째 넷째 주
◆가을학기 : 매년 5월 셋째 넷째 주
2) 전형 일시 : 10월, 5월 넷째 주 토요일 10:00
3) 전형 방법 : 영어 · 전공 필기시험 · 면접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2)808-3321, 6582, Fax (02)808-6581 www.sgsb.ac.kr


도서관


강의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전임 및 겸임교수 초빙

1. 초빙분야

전 공	초빙인원	임용예정일	비 고
불교학	전임 1명	2004. 3. 1	계약제 임용
사회복지학	전임 1명	2004. 3. 1	〃
	겸임 1명	2004. 3. 1	〃
미술치료학	전임 1명	2004. 9. 1	〃
요가치료학	겸임 1명	2004. 3. 1	〃

2. 지원자격 :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제출서류 : ① 이력서(상단에 전공과 초빙분야(전임 · 겸임)표기 바람) ② 연구실적목록 및 실적물 ③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 대학원) ④ 경력증명서 ⑤ 석 · 박사학위논문 ⑥ 자기소개서 ⑦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각 1부
4. 제출기한 : 2003. 9. 30까지
5. 제 출 처 : 우)153-83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1층 행정실)
6.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영어로 강의 가능한 분 우대

「안양 보장사 영각당(납골당)」 회원모집



◆ 안양유원지 입구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 믿을 수 있습니다.
- **보장사 영각당**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교육부인가 전문대학원)와 보문중 · 고등학교(대전), 안양시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이사장 · 주지 : 전덕해) 소속의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수익금은 전액 교육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투자됩니다.
◆ 최고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 교통이 편리합니다 : 전철 1호선 관악역 도보 10분
◆ 주차가 편리합니다 : 자체주차장과 바로 앞 공영주차장 600대 주차가능

영각당 납골단 이용가격

단의 종류	위 수	이용가격	단의 종류	위 수	이용가격
개인단	1위	250만원~300만원	가족단	12위	2,500만원
부부단	2위	450만원~500만원	특별단	20위	4,000만원

※이용가격은 영구보존 가격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40-10
Tel (031) 471-3322 Fax (031) 471-3488
서울 사무소 : 02)534-4444 www.bojangsa.co.kr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보장사 평생교육 프로그램

『행복의 심리학』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요?



'행복의 심리학' 강좌가 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분, 모두 모두 오세요.
행복한 삶으로 당신을 안내하겠습니다.

◆ 기 간 : 2003년 9월 1일 ~ 12월 14일
◆ 시 간 : 매주 일요일 오전 10~12시
◆ 장 소 : 보장사 (안양유원지입구)
031-471-3442, 3322
◆ 교육비 : 5만원(15회강의)
◆ 강 사 : 상담심리학 박사 박애선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강좌명 : 행복의 심리학(너와나의 이해)

※부부동반 신청시 교육비를 할인(20%)하여 드립니다.